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2015년 11월호

리아호나

연차 대회 말씀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데일 지 렌런드 장로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지지받음

십이사도 정원회

앞줄 왼쪽부터: 러셀 엠 넬슨 장로,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 엠 러셀 밸라드 장로,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뒷줄 왼쪽부터: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쿠엔틴 엘 쿡 장로,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닐 엘 앤더슨 장로,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데일 지 렌런드 장로

2015년 11월호 목차

제52권, 제11호

여성 총회

6 **우리 안의 신성함을 발견하여**
로즈메리 엠 윅솜

9 **약속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됨**
린다 에스 리브즈

12 **의로운 목적을 이루려 여기에 있나니**
캐럴 에프 맥콩키

15 **로즈 할머니와 함께한 여름**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토요일 오전 모임

20 **복음은 놀랍도록 이롭습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24 **하나님께서 키를 잡고 계십니다**
엠 러셀 밸라드 장로

27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삶의 기쁨**
리처드 제이 메인즈 장로

30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립시다**
닐 에프 매리엇

33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래리 알 로렌스 장로

36 **하나님의 기쁜 말씀**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장로

39 **브리스틀식으로 정돈하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쿠엔틴 엘 쿡 장로

토요일 오후 모임

43 **교회 역원 지지**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44 **오늘날 세상의 시험에 맞서**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47 **보라 네 어머니라**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50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브래들리 디 포스터 장로

53 **시험받고 유혹받으나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휴고 몬토야 장로

55 **빛을 선택하십시오**
번 피 스탠필 장로

58 **주님께 의지하면 응답이 주어지리라**
제임스 비 마르티노 장로

61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강화되어**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신권 총회

65 **신앙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닐 엘 앤더슨 장로

69 **다음 한 걸음**
랜들 케이 베네트 장로

76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80 **여러분은 이 대업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83 **계명을 지키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일요일 오전 모임

86 **본이 되고 빛이 되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89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91 **담백하고 귀중한 진리**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93 **하나님의 눈으로**
데일 지 렌런드 장로

95 **자매님들께 드리는 간청**
러셀 엠 넬슨 회장

98 **맑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그레고리 에이 슈바이처 장로

101 **저희가 항상 그를 기억함을**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

104 **우리의 동반자인 성신**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일요일 오후 모임

108 **교회가 필요한 이유**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112 **나의 마음이 이를 끊임없이 깊이 생각하며**
데븐 지 듀란트

115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되고 행복하도다**
폰 지 키치 장로

118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캐롤 엠 스티븐스

121 **우리가 누구를 의뢰하여 왔는지 기억하며**
앨런 디 헤이니 장로

124 **보는 눈과 듣는 귀**
킴 비 클라크 장로

126 **너의 길을 계속 가라**
고이치 아오야기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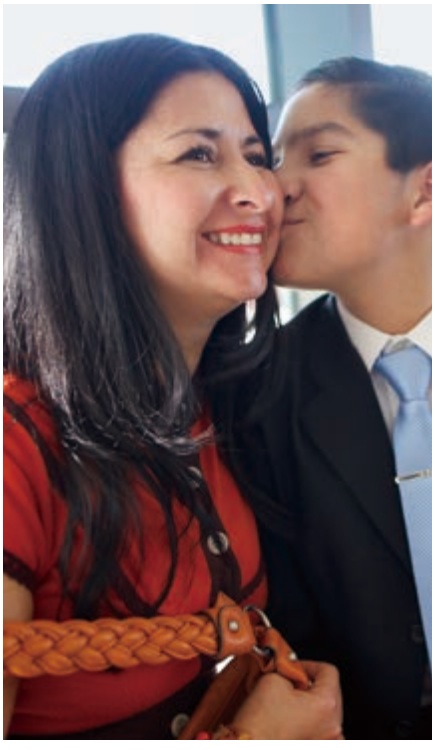
128 **"나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택함을 받고"**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72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역원 및 교회 본부 역원**

132 **연사들이 전한 말씀 대회 말씀을 삶에 적용합시다**

134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 색인**

135 **교회 소식**



제185차 반연차 대회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저녁 여성 총회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보니 엘 오스카슨.
개회 기도: 애비 모건.
폐회 기도: 그레이스 테.
음악: 유타 남부 캐시 밸리의 여러 스테이크에서 모인 초등회, 청녀, 상호부조회 연합 합창단, 지휘: 클라우디아 비글러, 오르간: 보니 굿리프, 플루트: 사라 존슨. "오라 주의 자녀들", *찬송가*, 13장; 메들리, 몰멘 편곡, 미출판: "나는 하나님 계획 따르리", *어린이 노래책*, 86쪽, 및 "신앙의 발자취로", 데일리, 플루트 및 오르간 협주; "As Zion's Youth in Latter Days", *영어 찬송가*, 256장, 케이슨 편곡, 잭맨 출판; "사랑하는 자녀들아", *찬송가*, 40장, 왓킨스 편곡, 미출판; "신앙으로 나아가서", *찬송가*, 157장, 데스켄트(선택 음성 파트) 편곡 비글러, 미출판.

2015년 10월 3일 토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메리 알 더럼.
폐회 기도: 에이드리언 오초아 장로.
음악: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및 라이언 머피, 오르간: 클레이 크리스텐슨 "전진하세 주 예수 믿으니", *찬송가*, 55장; "위대하신 여호와여", *찬송가*,43장; "구주 나 사랑하시네", 크리머, 머피 편곡, 잭맨 출판;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 *찬송가*, 6장; "사랑하는 구속주여", *찬송가*, 95장, 마누킨 편곡, 잭맨 출판;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 *찬송가*, 16장, 윌버그 편곡, 옥스포드 출판.

2015년 10월 3일 토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터렌스 엠 빈슨 장로.
폐회 기도: 가즈히코 야마시타 장로
음악: 유타 리버튼 지역 연합 스테이크 초등회 합창단, 지휘: 에밀리 와들리, 오르간: 린다 마겟츠 및 보니 굿리프: "아름다운 구주", *영어 어린이 노래책*, 62쪽, 케이슨 편곡, 잭맨 출판; 메들리, 드포드 편곡, 미출판: "경전 상고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라", *어린이 노래책*, 66쪽, 및 "이야기 들으며 나 생각에 잠기네", *영어 어린이 노래책*, 56쪽; "날 따르라", *찬송가*, 65장; "주 사랑 느껴요", *영어 어린이 노래책*, 74쪽, 카돈 편곡, 잭맨 출판.

2015년 10월 3일 토요일 저녁 신권 총회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래리 에스 캐처 장로.
폐회 기도: 스티븐 더블유 오언.
음악: 유타 오렘 지역 연합 스테이크 아버지와 아들 합창단, 지휘: 코리 멘덴홀, 오르간: 앤드류 언즈워스 및 클레이 크리스텐슨: "Let Zion in Her Beauty Rise", *영어 찬송가*, 41장, 맥데빗 편곡, 맥데빗 출판; "예수님 생각 하오니", *찬송가*, 104장, 맥데빗 편곡, 맥데빗 출판; "전지 전능하신 주님께", *찬송가*, 56장; "나 주님 따르리", *영어 찬송가*, 220장; "우리들은 니파이처럼", *어린이 노래책*, 92쪽, 맥데빗 편곡, 맥데빗 출판.

2015년 10월 4일 일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치 홍 (샘) 웡 장로.
폐회 기도: 췌럴 에이 에스플린.
음악: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오르간: 리차드 엘리엇 및 앤드류 언즈워스: "Arise, O God, and Shine", *영어 찬송가*, 265장; "이스라엘 구속주", *찬송가*, 27장, 윌버그 편곡, 힌쇼 출판; "주님 곁에 계신다면", 디포드, 카돈/엘리엇 편곡, 미출판; "굳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내 영혼이 햇빛을 받아", *찬송가*, 153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 *찬송가*, 31장, 윌버그 편곡, 잭맨 출판.

2015년 10월 4일 일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외르크 클레빈가트 장로.
폐회 기도: 스코트 디 와이팅 장로.
음악: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및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 및 린다 마겟츠: "소리 높여 찬양해", *찬송가*, 47장, 머피 편곡, 미출판; "Our God Is a God of Love", 쿤딕, 잭맨 출판;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 *찬송가*, 36장; "세상은 즐겨 일하는 일꾼 필요하네", *찬송가*, 161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서로 사랑해", *찬송가*, 193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대회 말씀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표지
앞표지 사진 촬영: 웰든 시 앤더슨
뒤표지 사진 촬영: 크리스티나 스미스

대회 사진
솔트레이크시티의 연차 대회 전경 사진: 웰든 시 앤더슨, 칼리 벨, 코디 벨, 자네 빙엄, 에일 보그스, 랜디 콜리어, 마크 데이비스, 네이트 에드워즈, 브라이언 니콜슨, 레슬리 닐손, 맷 라이어, 브래들리 슬레이드, 크리스티나 스미스; 카발칸테 가족 사진: 아롤도 카발칸테 제공; 미국 조지아 아테네: 휘트니 고슬링;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에릭 아이잭슨; 오픈쇼 가족 사진: 오픈쇼 가족 제공; 인도 뭄바이: 웬디 깁스 키일러; 노르웨이 드람맨 및 오슬로: 애슐리 라르슨; 우크라이나 키에프: 마리나 루카치; 벨리제 산페드로: 조수아 페냐; 칠레 아리카: 셀비 진 랜달; 멕시코 듀랑고 베르메히요: 안젤리카 카스타네다 레예즈; 필리핀 카비테 카비테 시티: 대니 솔레타.

대회 말씀 자료
연차 대회 말씀을 인터넷에서 여러 언어로 시청 또는 청취하고 싶다면 **conference.lds.org**에 접속해서 해당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연차 대회 말씀은 복음 자료실 모바일 앱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2015년 11월호, 제39권, 제11호
리아호나 12571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십이사도 정원회: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렌런드

편집인: 조셉 더블유 시타티
부편집인: 제임스 비 마르티노, 캐럴 에프 멕콩키
고문: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랜달 케이 베네트, 크레이그 에이 카돈, 췌럴 에이 에스플린, 크리스토펄 골든, 더글라스 디 홈스, 래리 알 로렌스, 캐롤 엠 스티븐스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와너
운영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스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메간 베르호프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트니 비애티, 데이비드 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톤, 로리 폴러, 게릿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질 햇킹, 샬럿 라카발, 민디 앤 레빗, 마이클 알 모리스, 샐리 존슨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퍼키, 잰 핀보로우, 리차드 엠 롬니, 폴 벤덴버그, 머리사 위디슨
편집부 인턴: 에밀리 홈스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캇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맨디 엠 벤틀리,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콜린 힝클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콧 엠 무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큰호스트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제작 팀: 콘니 바소프 브릿지, 줄리 버멧, 캐티 던컨,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커비, 지니 제이 닐슨, 가일 타테 러퍼티

사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위크
배부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텐슨

미국, 캐나다 외 지역에서는 store.lds.org에서, 또는 현지의 교회 배부 센터, 혹은 와드, 지부 지도자에게 *리아호나*를 신청하거나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통권: 제596호, 제52권, 제11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5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 및 번역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liahona-korea@ldschurch.org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kr "물품신청 ☞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70-4816-25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에 온라인으로, 또는 l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아호나*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몰몬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샬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스와힐리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5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시각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November 2015 Vol. 39 No. 11.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연사 색인

게리 이 스티븐슨, 91
고치이 아오야기, 126
그레고리 에이 슈바이처, 98
닐 에프 매리엇, 30
닐 엘 앤더슨, 65
댈린 에이치 옥스, 61
데븐 지 듀란트, 112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128
데일 지 렌런드, 93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108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15, 20, 76
래리 알 로렌스, 33
랜들 케이 베네트, 69
러셀 엠 넬슨, 95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89
로버트 디 헤일즈, 44
로즈메리 엠 윅솜, 6
리처드 제이 메인즈, 27
린다 에스 리브즈, 9
번 피 스탠필, 55
브래들리 디 포스터, 50
앨런 디 헤이닉, 121
엠 러셀 밸라드, 24
제임스 비 마르티노, 58
제프리 알 홀런드, 47
캐럴 에프 맥콩키, 12
캐롤 엠 스티븐스, 118
쿠엔틴 엘 쿡, 39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101
킴 비 클라크, 124
토마스 에스 몬슨, 83, 86
폰 지 키지, 115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36
헨리 비 아이어링, 43, 80, 104
휴고 몬토야, 53

주제 색인

가족, 12, 24, 47, 89, 91
간증, 24, 89, 91, 93
개종, 27, 30, 50, 58, 80, 95, 115
견딤, 126
결혼, 44, 95
경전 공부, 112
경전, 58, 86, 112
계명, 24, 83, 115, 118
계시, 58, 101, 104
교육, 6, 44
교회 모임, 108
교회 부름, 89, 91, 93
교회 조직, 108, 128
교회 지도자, 24, 128
교회 회원, 20
구원의 계획, 9, 12, 20, 24, 30, 118, 121, 126
금식, 58
기도, 30, 58
기쁨, 15, 27, 39
데이트, 44
모범, 80, 86
모성, 47
몰몬경, 27, 58, 65, 98
봉사, 6, 12, 53, 80, 93
부모의 본분, 50
빛, 55, 86
사도, 24, 65, 128
사랑, 6, 15, 47, 89, 118
사망, 24, 30, 104
사탄, 9, 83
선지자, 24, 36, 65, 118, 124, 128
선택의지, 39, 83
성신, 15, 33, 36, 39, 65, 104, 118, 124
성약, 9, 12, 24
성전 사업, 53
성찬, 30, 69, 101, 104, 118
성찬식 모임, 24
속죄, 24, 33, 36, 53, 61, 69, 83, 121
순종, 58, 65, 83, 115, 118, 124
신권, 65, 80, 83, 108
신뢰, 118, 121
신성한 본질, 6, 12, 20, 50, 93
신앙, 15, 55, 58, 65, 69, 76, 86, 91, 126
아론 신권, 76, 80
안식일, 24, 36, 39, 69, 101
여성들, 95
역경, 9, 15, 27, 30, 36, 44, 53, 58, 124, 126
영감, 80
예수 그리스도, 24, 27, 30, 39, 47, 55, 61, 69, 83, 86, 89, 91, 93, 98, 101, 115, 118, 121, 124
용기, 76, 80, 83, 98
유혹, 39, 53
은혜, 20
의로움, 39, 65, 83, 95
자기 극복, 39
자녀, 9, 50
재정, 44, 112
제자 됨, 20, 33, 86, 98
조셉 스미스, 24, 36, 65, 108
중독, 61, 83
진리, 20, 24, 76, 104
축복, 83, 118
치유, 30, 61
평화, 83
필멸, 9, 86
하나님 아버지, 80, 118
하나님의 왕국, 108
합당성, 39, 44
행복, 39, 83
활동 촉진, 80
회개, 9, 12, 36, 69, 83, 121
회복, 65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5차 반연차 대회 하이라이트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딸임을 … 말씀드립니다."라고 연차 대회의 일요일 오전 모임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말했다. "여러분은 구주의 사랑과 가르침을 되새기고, 자신의 빛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추기 위해, 그분의 면전을 떠나 한동안 이 지상에 살도록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을 다 한다면, 이 지상 생활이 끝난 후, 그분께 돌아가 영원히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88쪽)

이번 연차 대회에서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엘 톰 페리 장로, 그리고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가 최근에 별세하신 소식을 알렸다. 교회 회원들은 새로운 세 분의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을 지지했다.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데일 지 렌런드 장로.

다른 하이라이트:

-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밸라드 장로와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그리고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주님께서는 선지자와 사도를 기초로 그분의 사업을 행하고, 우리가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음을 강조했다.(24, 128, 108쪽 참조)
-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회장과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여성의 중대한 역할을 설명했다. 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성스러운 의식을 맺고 지키는 여성,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말할 수 있는 여성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하지 않으며 온전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96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우리 구주께서는 지상 생활의 모든 어려움을 온전히 겪으셨[습니다.] … 그 때문에 구주의 속죄로 그분이 우리를 돕는 권능, 즉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줄 권능이 그분에게 부여됩니다."(61~62쪽)라고 재차 확인했다.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CONFERENCE CENTER

로즈메리 엠 윅솜
본부 초등회 회장

우리 안의 신성함을 발견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품성의 씨앗을 발견하고 키우기 위해 지상에 왔습니다.

자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인생은 선물임을 간증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계획이 있고, 우리 개개인의 목적은 우리가 지상에 오기 훨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최근에 저는 아기가 필멸의 세상에 태어나는 기적이 주님 계획의 일부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몇 달 동안 어머니의 몸에 의지하여 필요한 것을 얻으며 그 자궁 속에서 몸이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머니와 아기 모두에게 극적인 사건인 출생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곳에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올 때 아기는 온도와 빛의 변화를 느끼고, 가슴을 누르던 압력에서 갑자기 풀려나면서, 가쁘게 첫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작은 폐에는 순식간에 첫 공기가 들어차고, 폐가 움직여 아기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제 탯줄이 묶이고, 어머니와 아기를 잇던 생명줄이 영원히 분리되면서, 아기의 지상 생활이 시작됩니다.

욥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1]

우리는 "영광의 구름을 가르며"[2] 세상에 왔습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은 우리가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3]고 가르칩니다. 하늘 아버지는 당신의 신성함을 아낌없이 우리 내면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신성한 품성은 오직 부모만이 느끼는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품성의 씨앗을 발견하고 키우기 위해 지상에 왔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전 본부 청녀 회장님이신 일레인 캐넌 자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의 일생에는 중요한 날이 두 번 있습니다. 바로, 태어난 날과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되는 날입니다."[4]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도록 돕기 위해,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지상에 왔습니다. 우리는 매 호흡마다 그분을 따르고자 노력합니다.[7] 우리 각자의 신성한 품성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께 가까이 가고자 노력할 때 정제되고, 확장됩니다.

신성한 품성은 업적이나 지위, 마라톤에 참여한 횟수, 인기나 자부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닌 신성한 품성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의 존재일 때 확립되었으며,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필리핀 케바이트 시티 케바이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의 신성한 품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품성을 돌보고 꽃피우고 성장시킬 선택의지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보배[로운] 약속"[5]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즉, 자신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보배로운 약속을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시선을 거울 속이 아니라 창밖으로 돌릴 때, 우리는 자신이 그분의 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열심히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옆으로부터가 아니라, 아버지께 위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신에게 내재된 신성함의 불씨가 의심스럽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로 "제가 정말 당신의 딸인가요? 저를 사랑하시나요?" 하고 여쭈어 보십시오. 엠 러셀 밸라드 장로님은, "영이 여러분에게 전해 줄 가장 감미로운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주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6]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7] 대개 처음으로 배우는 초등회 노래는 "난 하나님의 자녀"[8]입니다. 이제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랑스러운 가사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말을 덧붙여 봅시다. 이를테면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안의 신성한 품성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9]라고 하셨습니다. 그 미래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단순히 존재하는 것 이상을 행할 때, 또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이루고자 생활할 때 현실이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을 우리 삶으로 초대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품성 덕분에 배움을 얻습니다

신성한 품성은 그러한 영원한 진리들을 스스로 알고자 하는 소망의 숨을 불어넣어 줍니다.

저는 에이미라는 청녀의 글에서 그 교훈을 배웠습니다. "십 대로 사는 게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사탄은 사력을 다합니다. 옳거나 그른 일만 있을 뿐, 중간은 없습니다.

좋은 친구를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친한 친구들이 있지만, 그런 관계도 어떤 이유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긋나더라도 제 동반자가 되어 줄 가족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힘겨워하던 어느 날 밤, 저는 언니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날 밤 그 청녀의 언니는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의 다음 말씀을 동생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마. … 물러서면 안 돼. 계속 걸어가. 계속 노력해 봐. 네 앞에 도움[과] 행복이 … 있어. … 결국 모든 것이 잘될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은 일이 올 거라 믿어."[10]

에이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읽고, 정말 하나님이 저를 위해 존재하신다면,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리고 그분이 계심을 믿자,

아주 놀랍고 행복하며 따뜻한,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며,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의 가능성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두려움과 꿈을 아시고 가능성을 아끼시며, 여러분이 기도로 다가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여러분만 그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도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곁에 앉은 이들도, 세상도,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신성한 품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해 그분의 믿음직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신성함을 보기 시작하면, 곧 다른 사람들의 것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품성 덕분에 봉사합니다

신성한 품성은 타인에게 봉사하려는 소망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최근 인도주의적 봉사 및 후기 성도 자선회의 책임자인 샤론 유뱅크 자매님이 글렌 엘 페이스 장로님의 경험을 전해 주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에티오피아에 광범위한 가뭄과 심각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찾아오는 이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도록 음식과 물을 갖춘 구호소가 차려졌습니다. 한 굶주린 노인은 구호소를 향해 먼 길을 가다 어느 마을 부근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살펴보니, 숨진 채로 땅에 쓰러져 있는 엄마 곁에서 아기가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이를 안아 들고 40킬로미터를 걸어 구호소까지 갔습니다. 노인이 도착해서 뱉은 첫 마디는 "배가 고프다"거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아기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11]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품성 때문에 타인을 돕겠다는 소망으로 타오르게 되며,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힘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이 딸, 혹은 이 형제, 이 아버지, 이 친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가뿐 숨을 몰아 쉬던 의심 가득한 사람의 신성한 품성을 다시금 평온히 숨쉬게 해 주는 것은 바로 성신의 속삭임입니다.

선지자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신성한 품성에 울려 퍼지며 그것을 따를 힘을 줍니다.

매주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의 신성함에 희망의 숨을 불어넣게 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한 품성의 깊이를 발견하려는 노력은 그 보배로운 선물이 더 크게 자라나는 시작점이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신성한 품성이 이끄는 대로 그분의 딸이 되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저 하나님[에게로] … 회복"[12]되는, 그분께 돌아가는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욥기 33:4.
2. "Ode: Intimations of Immortality from Recollections of Early Childhood," *The Complete Poetical Works of William Wordsworth* (1924), 359.
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4. Elaine Cannon, "'Let Me Soar,' Women Counseled," *Church News*, Oct. 17, 1981, 3.
5. 베드로후서 1:4.
6. 엠 러셀 밸라드, "의로운 여성", *리아호나*, 2002년 12월호, 42쪽.
7. 로마서 8:16.
8. "난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참조.
9.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기쁜 마음으로 복음 생활을 합시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121쪽.
10. 제프리 알 홀런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45쪽.
11. Glenn L. Pace, "Infinite Needs and Finite Resources", *Ensign*, June 1993, 52; *Tambuli*, Mar. 1995, 18–19 참조.
12. 니파이후서 9:26.

린다 에스 리브즈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약속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됨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에 대한 비전에 우리는 매일 집중해야 합니다.

동영상에서 본 이 어린 자매가 정말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낳을 기회가 없었던 많은 분들이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며, 가르치고 축복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의 자매인 우리는 그렇게 해 오신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초등회와 청녀의 어린 자매들을 비롯해 우리 모두는 신생아를 품에 안고 그 눈을 응시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창조된 순결한 작은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최근에 보내 주신 이 하늘의 영에게서 성스럽고 거룩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처럼 감미롭고 부드러우며 영적인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성스러운 선물입니다. 우리 몸은 개인적인 성전입니다. 몸과 영을 순결하고 깨끗이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스런 영의 자녀들을 위한 육체를 창조하는 일을 도울 만큼 합당해질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의 마지막 연차 대회 말씀을 아마 "쿠키와 입맞춤" 말씀으로 기억하실 텐데, 그분은 그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계명은 … 필수적인 것으로, 인류 행복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창조의] 능력을 올바르게 행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충만한 기쁨을, 아니 신의 경지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출산 능력은 행복의 계획에서 부수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에 이르는 열쇠입니다."

회장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생명의 원천에 있는 성스러운 힘을 드러내는 애정 행위를 결혼 이후로 미루는 것입니다. 즉, 신체적 욕구가 자신을 지배할 수도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필멸의 생활에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 승영은 강하고 지속적인 신체적 욕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1]

사랑하는 젊은, 그리고 연세 지긋하신 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염려를 느꼈는데 앨마 이세의 말을 빌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 바라노니 … [여러분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깨어 항상 기도하여,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시험을 받지 않게 하고 …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들리워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도록 하[십시오.]"[2]

훗날 몰몬도 앨마의 시대에 적그리스도인 코리호어가 "전파하여 많은 [여자들]의 마음을 이끌어"[3] 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시대에 "코리호어와 같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옛 남자 친구와 연락하도록 기혼 여성들을 유혹하는 자극적인 연애소설이나, TV 드라마, 소셜미디어, 그리고 외설물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의 불화살을 만지면서 화상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결만큼 성신의 지속적인 동반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즉각적인 만족과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걱정이 있을 때 신앙을 행사하고 인내하며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간구하는 마음으로 진솔한 기도를 하며, 매일 경전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 수많은 대답과 큰 확신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아무런 약속도 주지 못합니다. 선지자 야곱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는 영은 진실을 말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영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말하며, 사물을 장차 있을 그대로 말하느니라."[4]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표준에 미달하는 어떤 것이라도 보거나 읽거나 경험하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보고, 읽고, 듣고, 행하는 것이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주님의 표준에 맞지 않으면, 끄거나, 없애 버리거나, 문을 닫아 버리십시오.

아무도 완벽하지 않지만, 패커 회장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42) …

속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개선할 수 있으며, 흉터를 남기지 않으십니다. 이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든, 어디에 있었든, 무슨 일이 일어났든 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주님께서 속죄하시리라 약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문제는 구주께서 속죄를 하셨을 때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지만 벗어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속을 썩이던 모든 일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영원한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5]

회개 외에도,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도움 또는 도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초등회 어린이들과 청녀들은 모두 "경전의 힘(Scripture power)"[6]이란 노래를 알고, 또 부릅니다! 이것을 "기도의 힘", "성전의 힘", "성약의 힘", "안식일의 힘", "선지자의 힘", "정결의 힘"으로 확장해도 될까요?

또한 성전 가먼트를 올바로 입을 때, 큰 축복과 보호를 받으리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상징적으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왕족의 옷을 입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가 가먼트를 올바로 입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는 뚜렷한 표시로 받아들이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과 맺은 성약을 표시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느니라."[7]

최근에 저는 남편들의 중독과 외도로 두 번의 이혼을 경험한 오랜 친구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와 세 자녀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는데 왜 이런 수많은 시련을 겪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걸까? 난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자녀들을 도와주고 자주 성전에도 가는데 말이야."

이 자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이미 하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넌 이미 하고 있어!"

우리 삶이 시련으로 넘쳐날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된 축복이 "너무 멀리 있다"고 느끼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앰율레크는 아들에게 가르칠 때 "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8]이라고

했습니다. 이생은 우리의 모든 축복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모두 그 뒤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은 필멸의 시기인 2막에서는 각본에 없습니다. 그 대사는 모든 비밀이 풀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는 3막에 나오는 말입니다."[9]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에 대한 비전에 매일 집중해야 하며, 또 날마다 경험하는 "주께서 … 베푸신 많은 친절하신 자비"[10]에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가 왜 수많은 시련을 겪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렇습니다. 그 보상은 너무도 위대하고 영원하며, 영속적이고 기쁜 것이며,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라, 보상을 받는 그날에 우리는 자비롭고 관대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요구된 게 그 정도뿐이었나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가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매일 기억하고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의 면전으로 돌아가 그 사랑의 품에 영원히 안기기 위해서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기꺼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와 함께 영생을 얻고 하나님 왕국에서 승영을 누릴 자격을 갖추게 된다면, 여기서 고난을 겪는다 한들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성스러운 선물이라는 것과, 구주의 속죄 희생을 통해, 우리가 삶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매일 우리 앞에 놓인 아버지의 약속된 보상에 대한 비전을 간직할 때,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11]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보이드 케이 패커, "행복의 계획",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26~27쪽.
2. 앨마서 13:27~29.
3. 앨마서 30:18.
4. 야곱서 4:13.
5. 보이드 케이 패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28쪽.
6. Clive Romney, "Scripture Power," lds.org/callings/primary/sharing-time-music.
7. 교리와 성약 82:10; 강조체 추가.
8. 앨마서 34:32.
9. Boyd K. Packer, "The Play and the Plan" (Church Educational System fireside for young adults, May 7, 1995), 2, si.lds.org.
10. 이더서 6:12.
11. 교리와 성약 84:38.

캐럴 에프 맥콩키
본부 청녀 회장단 제1보좌

의로운 목적을 이루려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감한 대표자로서 의로운 목적을 이루겠다고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동영상에 나오는 리사처럼 시련 중에도 마음이 청결하고 주를 사랑하며 그분께 봉사하는 충실한 여성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리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구주는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라"[1]고 가르치셨습니다. 8세이건 108세이건, 우리는 모두 "[그분의] 눈에 보배롭[습니다.]"[2]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딸들이자 시온의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품성을 지녔으며 모두 영광스런 임무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 저는 딸 여럿을 키우는 아름다운 젊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우리 젊은 여성들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데 도움이 될 목적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지상 생활의 고귀한 목적에 걸맞게 행동할 때 각자의 개인적이고도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밤 이 아름답고 훌륭한 합창단은 우리의 목적을 가르쳐 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시험과 시련,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내고 주어진 몫을 다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목적을 이루려 여기에 있습니다.[3] 자매 여러분, 이 목적 안에서 우리는 모두 소중하고 모두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목적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목적, 즉 구원 사업입니다.[4] 주님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5]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고통을 겪고 모든 땀구멍에서 피를 흘리며 완전한 사랑으로 생명을 내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좋은 소식, 즉 "기쁜 소식이[며,] 곧 예수는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그리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그리고 세상을 성결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모든 불의한 것에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들어오[시어] 모든 자가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6]는 것이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7] 우리가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친절과 온정으로 서로 봉사할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 없이"[8] 순결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는 주님의 의로운 목적을 이루고자, 주님께 봉사할 것을 선택합니다.[9]

선지자 몰몬은 담대히 선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흙의 성막에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음이니, 이는 우리가 모든 의의 원수를 이기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10] 초기의 교회 지도자들과 과거의 개척자들은 회복된 복음을 세우고자,

그리고 승영의 의식들을 행할 성전을 짓고자 영웅적인 용기와 확고한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현재의 개척자들인 여러분과 저 역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11]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께서 가르치셨듯이, "전능하신 분께서 … 세상의 구속주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의 사심 없는 봉사를 통해 … 영광스러운 사업을 전진시켜 나아갈 때 미래는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12] 구원 사업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의 충실한 자매들과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받아들였으며,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육신을 얻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13] 전세에서 맺은 이 성약을 두고 존 에이 윗소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그곳에서 자신뿐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는 자가 되는 데 동의했습니다. 주님과 동반자가 되었으며, 이제 그 계획을 실현하는 것은 아버지와 구주의 사업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도 되었습니다. 가장 초라하고 미약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계획의 목적을 성취하며 전능하신 분과 함께 일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14]

이 필멸의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 사업을 하며 구주께 봉사하겠다고 다시금 성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신권 의식들에 참여하며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서겠다고 서약합니다.[15] 또한, 성신을 받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분의 속삭임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세상에 의로움이 퍼져 나갑니다.

제가 아는 한 초등회 어린이는 버스 정류장에 함께 서 있던 친구에게 "나랑 같이 교회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 배우자!"라고 말했습니다.

한 청녀반에서 저는 소녀들이 함께 팔짱을 끼고 서로 보살필 것을 약속하고는, 중독으로 힘겨워하는 청녀를 돕고자 적절한 방법을 계획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한 저는 자녀들이 힐라맨의 아들들처럼 시련과 유혹, 역경에 용기와 신앙으로 맞설 수 있도록 복음 원리를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고자 모든 시간과 재능과 힘을 쏟는 젊은 어머니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겸손해졌던 때는 결혼과 가족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한 독신 성인 자매의 열렬하고 순수한 간증을 들었던 때 같습니다. 그녀는 직접 경험해 본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이 구원 사업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에까지 계속되게 [합니]다."[16]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 안에 놓인 관계들을 강화하고 그 격을 높일 때, 우리는 아버지의 계획을 이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주님의 집에서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그것을

와드의 두 청녀와 함께한 엘라 호스킨스 자매

영원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순결하고 고결한 삶을 살 것을 선택합니다.

삶에는 모두 때와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직장, 지역 사회, 특히 가정 등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의 대리인이며, 그분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 사업에 비교나 비판, 비난이 낄 자리는 없습니다. 구원 사업은 나이나 경험, 대중적인 인기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신성한 사업은 주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하고자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또 우리의 신성한 은사와 독특한 재능을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이 일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 [저]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17]라고 말하는 겸손함을 지니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18] 우리는 기도와 경전, 성신의 속삭임을 통해 끊임없이 그분의 인도를 구합니다. 버거운 임무를 맡게 된 한 자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처럼 교회 초기 역사에 나오는 자매님들도 밤마다 베개에 머리를 묻고서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제가 그것을 헤쳐 나가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겠나이까?'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서로가 있고 함께한다는 건 축복이에요!"[19] 어떤 환경에 있든, 구원에 이르는 길의 어디쯤에 있든, 우리는 하나로 뭉쳐 구주께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봉사하며 서로 지지합니다.

최근에, 100세 나이로 와드 청녀들의 개인 발전 기록부 프로그램을 돕도록 부름받은 엘라 호스킨스 자매님 이야기를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20] 자매님은 두 해가 지난 102세에 청녀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청녀들, 와드와 스테이크의 청녀 및 상호부조회 회장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자매님의 성과를 축하했습니다. 충실한 봉사 속에서 나이와 조직, 결혼 여부라는 경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청녀들은 호스킨스 자매님의 가르침과 의로운 모범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청녀들은 자매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라고 여쭤 보았을 때, 자매님은 지체 없이 "저는 매일 회개하거든요."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 순수한 빛을 발하는 온화한 자매님을 보며, 저는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구주와 함께 서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면, 우리가 깨끗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순결해집니다.[21] 사도 바울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22]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간직[하고자]"[23] 우리는 회개합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할 때, 우리는 구주의 사랑을 드러내며 다른 이에게 천국을 맛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감한 대표자로서 의로운 목적을 이루겠다고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서서 "마음속으로 노래 부르며 전진하고, 복음대로 생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왕국을 세[웁시다]."[24] 이 영광스러운 사업을 행하면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과 온갖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8:10.
2. 이사야 43:4.
3. "As Zion's Youth in Latter Days", *Hymns*, no. 256 참조.
4. "이 구원 사업에는 회원 선교 사업과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저활동 회원의 활동 촉진,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복음 교육이 포함된다."(*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제5장 소개)
5. 모세서 1:39.
6. 교리와 성약 76:40~42.
7. "하나님 지혜와 사랑", *찬송가*, 107장.
8. 교리와 성약 4:2.
9. 요한복음 17:20~23; 제4니파이 1:15~17; 교리와 성약 35:2; 38:27; 모세서 6:68 참조.
10. 모로나이서 9:6.
11. 교리와 성약 138:56.
12. 고든 비 힝클리, "그 길에 머무르십시오—신앙을 수호하십시오",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72쪽.
1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14. John A. Widtsoe, "The Worth of Souls,"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Oct. 1934, 189.
15. 교리와 성약 4:2.
16.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129쪽.
17. 마태복음 26:39.
18. 앨마서 26:12.
19. 개인 서한.
20. Marianne Holman Prescott, "She Just Doesn't Quit", *Church News*, Sept. 6, 2015, 15 참조.
21. 모로나이서 10:32 참조.
22. 디모데후서 2:22.
23. 모사이야서 5:12.
24. 고든 비 힝클리,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72쪽.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로즈 할머니와 함께한 여름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서 그 밝은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이 그 여정의 모든 발걸음에 힘을 불어넣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는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우리의 소중한 친구이자 주님의 진실한 사도 세 분에 대하여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는 패커 회장님과 페리 장로님, 스코트 장로님을 사랑하며, 그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음악과 영감받은 자매님들의 권고에서 풍성한 영을 느낄 수 있는 여성 총회를 언제나 고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후에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구주께서 가르치신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숭고한 진리를 단순한 이야기에 빗대어 능히 가르치신 주님의 방법은 참 흥미롭습니다. 구주의 비유는 제자들이 머리뿐 아니라 가슴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영원한 원리를 일상생활에 접목하도록 했습니다.[1] 우리의 사랑하는 몬슨 회장님 역시 감동적인 경험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르치는 데 능통하신 분입니다.[2]

오늘 저도 생각과 감정을 하나의 이야기 형태로 다듬어서 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영과 함께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을 위한* 교훈을 찾을 수 있도록 성신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로즈 이모할머니

이것은 에바라는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에바에 대해 여러분이 알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 이 이야기 속의 에바는 열한 살이었다는 것과, 둘째, 에바는 단언컨대 절대 로즈 이모할머니 댁에 가서 지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말로 가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에바의 어머니는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어서, 부모님은 에바를 여름 동안 로즈 할머니 댁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에바의 머릿속에는 이것이 좋지 않은 방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만 가지나 떠올랐습니다. 우선, 어머니와 멀리 떨어져야 하고, 가족과 친구들 곁도 떠나야 했습니다. 게다가 에바는 로즈 할머니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제안은 감사하지만, 에바는 지금 그대로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반대도 해 보고 불만도 표시했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바는 짐을 챙겨서 아버지와 함께 한참 차를 타고 로즈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에바는 그곳이 싫었습니다.

그곳은 골동품 천지였습니다! 오래된 책과 희한한 색깔의 병들, 구슬, 리본, 단추가 넘쳐나는 플라스틱 통이 곳곳에 빽빽이 들어 차 있었습니다.

로즈 할머니는 그 집에 홀로 사셨고 미혼이셨습니다. 유일한 식구인 회색 고양이는 방마다 제일 높은 곳을 찾아 자리를 잡고서 마치 굶주린 호랑이처럼 아래를 노려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집도 그렇게 쓸쓸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집들끼리 멀찍이 떨어져 있는 시골인데다, 동네에 에바 또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바까지도 쓸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로즈 할머니에게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에바의 머릿속엔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때로는 밤새 뜬 눈으로 어머니가 건강해지기만을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에바는 하나님이 어머니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수술이 잘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여름이 끝날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에바는 그러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한시름 놓게 되면서, 에바는 로즈 할머니에게 조금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체구가 크셨습니다. 모든 게 다 컸는데, 목소리며, 활짝 웃는 미소며, 시원시원한 성격이 그러했습니다. 몸집이 커서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았지만, 일을 하실 때면 언제나 노래를 흥얼거리고 껄껄 웃으셨습니다. 집안엔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매일 밤 로즈 할머니는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경전을 꺼내 큰 소리로 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따금씩 "저런, 그러지 말았어야지!"라든가 "나도 거기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혹은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들어 본 적 있니?"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밤에 기도하기 위해 에바의 침대 곁에서 둘이 함께 무릎 꿇을 때, 로즈 할머니는 하나님 아버지께 큰어치 새, 전나무, 일몰, 별들, 그리고 "살아 있다는 것의 경이로움"에 대해 감사드리며 정말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바가 듣기에 로즈 할머니는 하나님을 마치 친구처럼 아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바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즈 할머니는 에바가 아는 사람 중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걸까요?

로즈 할머니는 미혼에, 자녀도 없고, 그 희한한 고양이 말고는 곁에 아무도 없는 데다 구두끈을 매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의 그런 단순한 일조차 힘들어하는데 말입니다.

마을에 갈 때면 할머니는 창피할 정도로 커다란 밝은 색깔의 모자를 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비웃기는커녕 오히려 주위로 모여들어 할머니와 대화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로즈 할머니는 전에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서 이젠 장성해 부모가 된 예전의 학생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준 로즈 할머니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에바는 로즈 할머니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긴 산책길을 함께 걸었고, 에바는 참새와 콩새의 차이점도 배웠습니다. 야생 딱총나무 열매를 따고, 오렌지로 잼도 만들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 바다를 건너 성도들과 대평원을 횡단한 고조할머니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에바는 금세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로즈 할머니가 자신이 아는 가장 행복한 사람 중 하나이시라는 것 말고도, 할머니와 함께할수록 자신이 더 행복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여름은 점점 더 빨리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에바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로즈 할머니는 곧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며 알려 주셨습니다. 에바는 할머니 댁에 온 후로 집에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는 했지만, 지금도 과연 그런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듯한 고양이와 사랑하는 로즈 할머니와 함께 지낸 이 괴상하고 낡은 집이 그리워질 거라는 것을 에바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데리러 오시기 전날에, 에바는 몇 주 동안 궁금해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로즈 할머니는 에바를 찬찬히 바라보시더니 응접실에 걸린 그림 앞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것은 그림을 잘 그리는 할머니의 친구분이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뭐가 보이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에바도 이미 보았던 그림이지만, 자세히 살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한 개척자 소녀가 밝은 푸른색 길을 따라 경쾌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풀과 나무들은 싱그러운 연둣빛이었습니다. 에바는 "한 여자아이가 있네요. 발걸음이 신 나 보여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맞아, 한 *개척자* 소녀가 행복하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가고 있지."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개척자들은 분명 수많은 날을 암울하고 삭막하게 보냈겠지. 상상도 못 할 만큼 너무도 힘든 삶이었을 거야. 하지만 이 그림에선 모든 게 밝고 희망차지 않니? 경쾌한 발걸음으로 길을 가는 이 아이를 보렴."

묵묵히 듣고 있는 에바에게 로즈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지. 그래서 누구나 비관주의와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는 게야. 하지만 나는 일이 잘 안 풀려도 삶의 경이로움과 기적에 집중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알고 있지. 그 사람들이 내가 아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란다."

그러자 에바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듯 단번에 슬픔에서 행복으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맞아, 아마 그럴 거야."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슬퍼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란다. 기쁨을 누리라고 창조하셨지![3] 그러니 그분을 신뢰하면, 삶의 훌륭하고 밝고 희망찬 부분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실 거야. 분명, 세상은 더 밝은 곳이 될 거란다. 물론 순식간에 그럴 수는 없을 테지. 좋은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걸 본 적 있니? 이 할미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 이를 테면 집에서 만든 빵이나 오렌지 마멀레이드 같은 걸 만들려 해도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하잖니?"

에바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겐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거예요."

"에바, 넌 정말 내 삶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니?" 로즈 할머니는 에바와 함께 푹신한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도 극도로 좌절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느끼던 때가 있었단다."

"할머니가요?" 에바가 물었습니다.

이에 로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살면서 이루고 싶었던 게 참 많았단다."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여태껏

본 적 없는 슬픔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계속 가슴 아픈 일만 생기더구나. 그러다 어느 날은 삶이 절대 내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실감하게 되었단다. 그날은 정말 우울하더구나. 당장이라도 다 포기하고 비참해질 것만 같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동안 아무것도 안 했단다. 그냥 화가 나더구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화살이 돌아갈 정도였지.” 할머니는 잠깐 웃음소리를 내셨지만, 평소처럼 방안 가득히 울리는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이건 불공평해’라는 말만 노래처럼 되뇌었지. 하지만 결국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뭔가를 발견하게 되었단다.”

“그게 뭐였는데요?”

“바로 신앙이란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난 신앙을 발견했어. 신앙은 소망으로 이어졌지. 그리고 신앙과 소망 덕분에, 언젠가 모든 것이 이해될 것이고, 구주가 계시기에 잘못된 모든 게 올바르게 될 거라는 확신도 생겼단다. 그 후엔 앞에 놓인 길이 생각했던 것만큼 암울하거나 먼지가 자욱해 보이진 않더구나. 하늘색, 청록색, 빨강색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선택권은 내게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지. 고개를 떨군 채 자기 연민의 먼지투성이 길을 발을 질질 끌며 걸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미약하나마 작은 신앙을 품고, 밝은 색의 옷을 꺼내 입고, 무용신발도 신고서는 노래하며 삶의 길을 즐겁게 뛰어갈 수도 있는 거지.” 이제 할머니의 목소리는 그림 속의 소녀와 같은 경쾌함을 풍겼습니다.

로즈 할머니는 협탁 위로 손을 뻗어 손때 묻은 경전을 들어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내가 우울증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 그게 스스로 노력해서 낫는 병인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다만, 분명한 것은 날 비참하게 만든 건 바로 나였단 거지! 나도 암울한 날들을 보내 봤지만, 슬퍼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더구나.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야. 하지만 구주를 믿는 신앙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해도 내 인생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을 맺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었단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에바가 물었습니다.

로즈 할머니는 성경을 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렇게 나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이 그림속의 개척자 소녀처럼 여러분 자신의 밝은 제자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여러분이 내 딛는 모든 발걸음이 신앙으로 강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4]

로즈 할머니는 에바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감정이 북받쳐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들어 본 적 있니?”라고 속삭이듯 말하며 환히 웃으셨습니다.

에바는 정말 아름다운 말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몇 장을 넘겨서 에바가 읽을 수 있게 또 한 구절을 가리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5]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데 계획대로 안 된 과거나 현재의 일에 연연할 이유가 있을까?"

에바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요! 행복해진다는 게 그냥 미래의 행복만 마냥 기다리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모든 행복은 영원에서나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행복해질 수 있지." 로즈 할머니는 힘차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바, 현재는 영원의 한 *부분*이란다. 영원은 죽음 이후에나 시작되는 그런 게 아니야! 신앙과 소망은 우리 앞에 놓인 행복을 두 눈을 크게 뜨고 보게 해 줄 거야.

이런 시가 있단다. '영원은 지금 이 순간들이 모여 이루어지나니.'[6] 난 내 영원이 어둡고 두려운 '지금 이 순간들'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했어.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눈을 질끈 감고 쓰라린 결말을 향해 분노하며 살고 싶진 않았지. 나는 신앙을 통해 현재를 즐겁게 사는 데 필요한 소망을 얻었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에바가 여쭈었습니다.

"내 삶을 의미 있는 것들로 채우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행사했지. 학교에 가서 교육도 받고 좋아하는 직업도 찾고 말이야."

에바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쁘게 산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바쁜 사람들 중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로즈 할머니는 "어린 애가 어쩜 이리 똑똑할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연하지. 바쁘면서 불행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는 거란다. 바로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것 말이야."

에바는 "그게 뭔데요?" 하고 물었습니다.

"바로 사랑,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란다."라고 로즈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여타 모든 것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할지니라' 같은 말은 사실 모두 사랑으로 귀결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위해 봉사하고 싶고 그분을 닮고 싶어진단다. 이웃을 사랑하면 자기의 걱정은 제쳐 두고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돕고 말이야."[7]

"그렇게 하면 행복해지나요?" 에바가 다시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지긋이 웃음 짓던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맞아, *그렇게 하면* 행복해진단다."

예전과 달라짐

다음 날 에바는 로즈 할머니를 꼭 껴안고서 모든 것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제 에바는 가족과 친구에게로, 자신의 집과 이웃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에바는 예전의 에바가 아니었습니다.

에바는 나이가 들면서 종종 로즈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후에 에바는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 안에 서 있던 에바는 밝은 푸른색 길을 경쾌하게 걸어가는 개척자 소녀 그림을 바라보며, 어느덧 자신도 그 멋진 여름날의 로즈 할머니와 똑같은 나이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속에 특별한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에바는 자신의 삶과 가족에 대해, 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그리고 로즈 할머니[8]가 신앙과 소망, 사랑[9]에 대해 가르쳐 주신 오래전의 그 여름날에 대해 새삼 감사했습니다.

축복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의 친구인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영혼에 영감을 주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서 그 밝은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이 그 여정의 모든 발걸음에 힘을 불어넣고, 소망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두신 영광이 펼쳐지고, 하나님과 모든 자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도로서 이 모든 것을 축복과 간증으로 남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예를 들어, 마태복음13:24~30; 18:23~35; 20:1~16; 22:1~14; 25; 누가복음 10:25~37; 15:11~32 참조.
2. 예를 들어, 토마스 에스 몬슨, "무사히 본향으로 인도되기를",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67~69쪽; "사랑—복음의 정수",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91~94쪽;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121~124쪽;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89~92쪽 참조.
3. 니파이후서 2:25 참조.
4. 요한계시록 21:3~4.
5. 고린도전서 2:9.
6. "*Forever—is composed* of Nows," *Final Harvest: Emily Dickinson's Poems*, sel. Thomas H. Johnson (1961), 158; 또한 poetryfoundation.org/poem/182912 참조.
7. 누가복음 9:24 참조.
8. "무성한 가시덤불 속에서 *부드러운 장미가* 피어나는 법이다."(Ovid, *Epistulae ex ponto*, book 2, epistle 2, line 34; "Saepe creat molles aspera spina rosas")
9. 모로나이서 7:42 참조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복음은 놀랍도록 이롭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집중하기를, 그리고 구주의 은혜가 우리를 들어 올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오늘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여기 연단에 세 자리가 빈 것을 보니 슬픈 마음이 밀려오는군요. 패커 회장님과 페리 장로님, 스코트 장로님이 그립습니다. 우리는 세 분을 사랑하고 그 가족들의 복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대회가 열리는 주말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이분들의 빈자리를 채워 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세 사람을 지지할 특별한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세 분을 위해 우리가 기도한다면, 거룩한 사도 직분의 겉옷을 입게 되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롭습니까?

일전에 어떤 문구를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주에 무수히 많은 별이 있다고 말해 주면 믿겠지만, 벽 페인트가 아직 마르지 않았다고 말해 주면 확인하려고 만져 볼 것이다."

어쩌면 우리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 유능한 의사들이 저를 진료하고 나서 병이 제대로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때 저는 진작부터 알았어야 할 어떤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제가 참고 기다릴 줄 모르는 환자라는 점입니다.

결국 저는 더 빨리 낫는 법을 찾기 위해 직접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의사들이 모르고 있거나 숨기고 있는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한참을 그러고서야 저는 제 행동에 상당한 모순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스스로 뭔가를 연구해 보는 것은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기댈 수 있는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무시한 채, 엉터리 주장일 때가 많은 인터넷 지식에 매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진리의 위대한 가치를 제대로 실감하기에는 우리 눈에 그 진리가 너무 직접적이고 너무 평범하고 너무 단순해 보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태껏 경험해서 아는 참된 것들을 밀쳐 두고 더 기이하고 복잡한 지식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좇는 일은 알맹이가 거의 없는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진리 추구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에 들어섰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롭게 작용하고 있는지 찬찬히 생각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 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의미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가?"

"나는 진정 행복한가?"

"내가 하는 노력은 나를 삶의 가장 높은 영적인 목표와 가치에 도달하도록 이끌어 주는가?"

삶의 목적과 관련된 심오한 질문들 때문에 세계 곳곳에 사는 여러 개인과 가족들이 진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리를 탐구하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와 회복된 복음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도 이따금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경험은 나에게 이로운가? 그것으로 인해 나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가? 그것은 나와 내 가족에게 복음 안에서 약속된 평화와 기쁨의 축복을 안겨 주는가?"

앨마도 제이라헤믈라의 교회 회원들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마음에 이 크나큰 변화를 경험하였느냐? … [또한] 너희는 지금 [그것을] 느낄 수 있느냐?"[1] 이런 성찰의 시간은 우리가 날마다 하는 노력을 신성한 구원의 계획에 부합하도록 다시금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회원들은 교회 회원으로서 하는 경험이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하다며 행복한 마음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이들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자신이 주님께 헌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크나큰 평안과 기쁨과 의미를 찾는다고 간증할 것입니다. 저는 매일마다 눈부신 기쁨을 한가득 품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덕택에 자신의 삶이 놀랍도록 풍성해졌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을 하며 교회 회원이 된 것이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을 압니다.

이런 분을 만나면 마음이 슬퍼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음이 어떻게 사람의 영혼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마음을 소망으로 채우며, 생각을 빛으로 채워 주는지를 직접 체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열매가 어떻게 평범하고 무료한 삶을 특별하고도 멋진 삶으로 바꿔 주는지를 저는 스스로 압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복음에서 더 큰 유익을 얻을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영혼에 구속의 사랑의 노래[2]가 흐르는 사람과,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골똘히 생각하자 수많은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오늘은 그중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하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는 제자가 되는 길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이 복음은 아주 단순한

것이라서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심오하고도 복잡해서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평생, 아니 영원토록 연구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리의 백합을 가지고 와서는 인공적인 좋은 아이디어와 프로그램과 기대치 등으로 겹겹이 색을 입힙니다. 그 하나하나는 특정한 때와 상황에서 그 자체로 유용하고 적절할 수도 있지만, 겹겹이 색을 올리면 찌꺼기가 생겨 두껍고 무거운 층이 쌓이고, 급기야 한때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그 소중한 꽃은 묻혀 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로서 우리는 교회와 복음을 철저히 순수하고 담백한 상태로 보호해야 하며, 회원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 모두는 진정 중요한 일, 즉 이웃에게 영감을 주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힘과 시간을 바치려고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흠잡을 데 없는 공과를 가르치기로 유명한 한 상호부조회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한번은 가르칠 공과 주제에 딱 들어맞는 배경이 될 아름다운 퀼트를 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오고, 이웃집 이사를 도와주고, 남편은 고열로 고생하고, 친구는 외롭다고 호소했습니다. 공과를 가르칠 날이 다가왔지만 퀼트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로 전날 밤에는 퀼트를 다 짜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정작 다음 날은 기운이 다 빠져서 제대로 생각을 정리하기도 버거운 상태로 간신히 버티고 서서 공과를 가르쳤습니다.

물론 퀼트는 놀라울 정도로 멋졌습니다. 완벽한 바느질에 생생한 색감에 정교한 무늬까지 탁월했고, 중앙에는 공과 주제인 "단순하게 하라"라는 말이 의기양양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 생활은 그리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생활은 간결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기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게 됩니다.[3]
- 하나님을 더 신뢰할수록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더 충만해집니다.
-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우리의 행동을 그분의 말씀에 맞추고자 합니다.
-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돕고자 합니다.
- 제자의 길을 더 걸어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갈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신앙과 소망과 사랑을 끊임없이 키워 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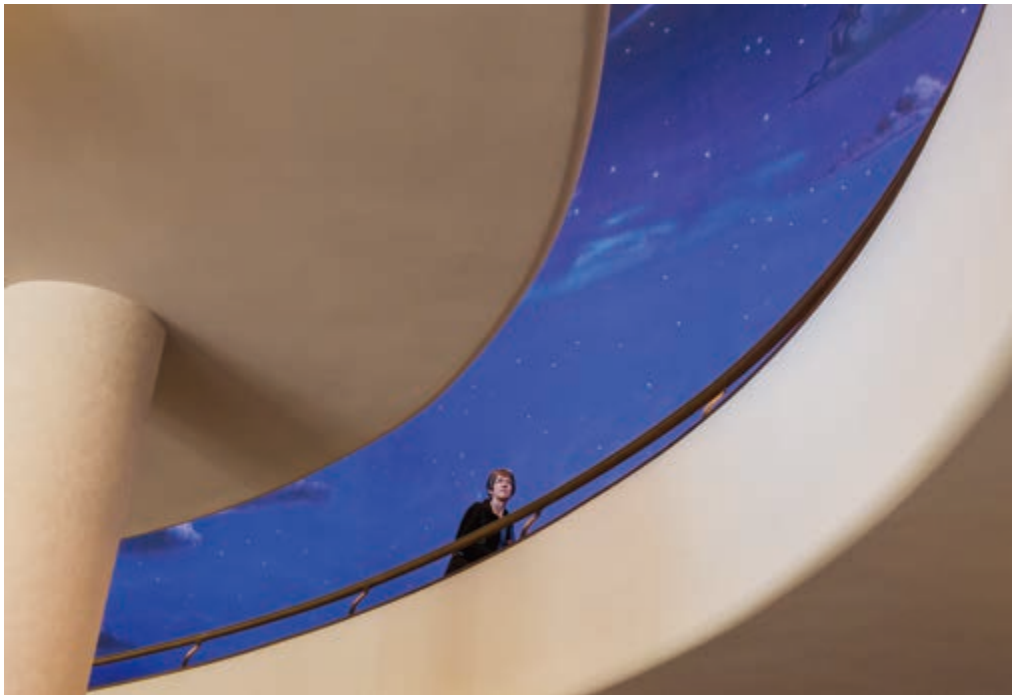
복음은 눈부시게 간결하고, 아름답도록 이롭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롭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좀 더 높은 창공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제자 됨에 대해 좀 더 단순하게 접근해 보십시오. 복음의 기본 교리와 원리, 실천에 집중해 보십시오. 약속하건대,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틀림없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더 이롭게 작용할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로, 지금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자질을 "더" 갖지 못했다며, 더 영적이고, 존경받고, 지적이며, 건강하고, 부유하고, 다정하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며 낙담합니다. 물론, 더 훌륭해지길 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약점이 있기에 좀 더 겸손하게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4]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반대로,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 우리를



낙담시켜 어떤 일을 시도조차 못하게 만듭니다.

살면서 배운 교훈 하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자질을 "더"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모습 그대로 데려다가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하는 마음과 믿고자 하는 열망과 주님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됩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요, 한낱 가난한 농부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보셨습니다.[5]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택했을 때, 사울은 극구 사양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집의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찌 왕위에 앉을 수 있었겠습니까?[6]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그는 "준수한 소년"[7]이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책임에 짓눌려 낙담한 나머지 한때는 다 포기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8]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필멸의 눈으로만 자신을 바라본다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참모습과 잠재력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딸이요, 한없는 잠재력과 신성한 운명을 지닌 영원한 빛의 존재로 보십니다.[9]

구주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주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합니다.]"[10] 그분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왕국을 열어 주는, 가능하게 하는 권능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모두 부활하여 영광의 왕국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가장 낮은 영광의 왕국인 별의 왕국조차도 "모든 이해력을 뛰어 넘는"[11] 곳이며, 무수히 많은 사람이 이 구원을 상속받을 것입니다.[12]

하지만 구주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상상도 못할 만큼 위대한 것을 갈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해의 왕국에서 누리게 될 승영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면전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13] 해의 왕국에서 우리는 "그의 충만함과 그의 영광"[14]을 받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15]

우리의 목표는 승영이며, 제자 됨은 우리의 여정입니다.

조금만 신앙을 더 행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적인 추종자로서의 걸음을 내디딘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16] 온 몸과 마음이 환히 밝아질 것입니다.[17]

여러분이 스스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위대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으로 삶에 이롭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복음은 이롭습니다!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18]에 집중하기를, 그리고 구주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 그 자리에서 들어 올려 아버지의 면전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운명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된 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이로운가요?"라고 묻는다면 자랑스럽고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쁨에 차서 "놀랍도록 이롭습니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알고 싶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소망이자, 기도요, 간증이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앨마서 5:14, 26.
2. 앨마서 5:26 참조.
3. 로마서 10:17 참조.
4. 이더서 12:27.
5. 사사기 6:12~15 참조.
6. 사무엘상 9:21 참조.
7. 사무엘상 9:2.
8. 민수기 11:14~15 참조.
9. 요한1서 3:1~3 참조.
10. 이더서 12:27.
11. 교리와 성약 76:89.
12. 교리와 성약 76:109 참조.
13. 교리와 성약 14:7 참조.
14. 교리와 성약 76:56.
15. 교리와 성약 84:38 참조.
16. 사무엘상 10:9 참조.
17. 마태복음 6:22 참조.
18. 고린도후서 11:3.

엠 러셀 밸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께서 키를 잡고 계십니다

시온의 정든 배에 실린 계명과 성약은 값진 진리이자 교리입니다. 이 배의 키는 주님이 잡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10월 연차 대회에서 시온의 정든 배,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머물고, 두 손으로 꽉 붙들라는 브리검 영 회장님의 권고를 따를 것을 여러분에게 권유했습니다.[1] 그 후, 제 이야기에 저희 가족을 비롯한 많은 분이 "그 시온의 정든 배에서 우리는 무엇을 꽉 붙잡아야 하나요?"라고 질문해 주셔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브리검 영 회장님의 말씀을 상기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시온의 정든 배에 있습니다. … [하나님이] 키를 잡고 자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 그분이 지시하고 인도하고 이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자신이 맺은 성약과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실 것입니다."[2]

분명,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필멸의 세상에 넘실대는 험한 물길 속에서도 우리가 항로에 머물 수 있도록 명확하고 단순하며 영원한 진리가 실린 시온의 정든 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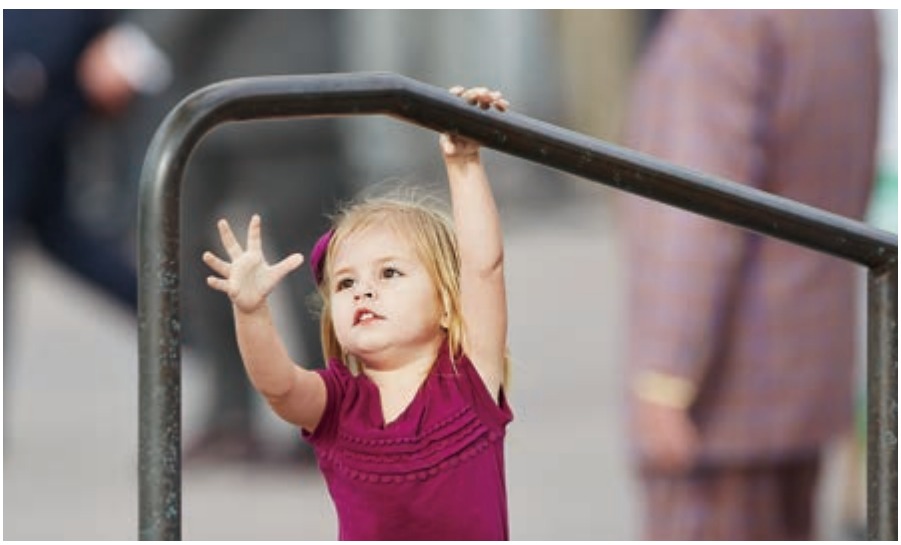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항상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인도합니다. 비록 필멸의 존재이며 인간적인 결함도 있지만, 이 주님의 종들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장애물을 피하고, 안전하게 필멸의 삶을 헤쳐 나가, 최종 목적지인 하늘에 도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도록 영감을 받습니다.

저는 총관리 역원들과 40년 가까이 함께하면서, 선지자와 사도들, 다른 총관리 역원들과 보조 조직 지도자들이 조용한 영감과 심오한 계시를 받아 실행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이 선한 형제 자매님들은 완벽하지도, 완전무결하지도 않지만, 주님의 인도에 따라 그분의 사업이 전진하도록 온전히 헌신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심치 마십시오. 주님은 늘 그런 식으로 당신의 사업을 이끄셨습니다. 실제로 구주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3]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종들을 떼어 놓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초대 사도들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가르침과 성역,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은 고난, 십자가에서 맞은 죽음과 같은 생생한 기사들은 우리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이 아니었다면, 빈 무덤과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간증을 우리는 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초대 사도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4]

주님은 교회를 회복하고자 조셉 스미스를 부르시고, 또 당신이 다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선포할 사도들을 성임하시며 이 명령을 다시 한 번 강조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받아들이기란 늘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신권을 통한 충만한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입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완벽하거나 완벽에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는 필멸의 존재들을 움직여 그분의 사업을 성취시킬 만큼 크다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의도가 아주 훌륭함에도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교회 내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친구와 이웃, 직장 동료, 그리고 배우자 및 가족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간적인 약점을 찾기는 오히려 쉽습니다. 하지만 서로 인간적인 본성에만 주목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중대한 실수를 범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지도자에게 어떻게 영감을 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을 움직여 인간으로서는 놀랍고 비범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꽉 붙잡고 시온의 정든 배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구원의 계획이라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을 비롯하여 많은 가르침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이곳 지상에 있는 목적은 무엇이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 주는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도 포함됩니다. 또한, 그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자녀라는 특별하고도 영원한 관점을 심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며, 그분과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그분들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영원히 그분들 면전으로 돌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성약을 맺을 것입니다.

갓난아기를 안을 때마다 저는 궁금해집니다. "귀여운 아기야, 너는 누구니?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것 같니?"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는 이런 심오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보고 또 경험하고 있을까? 삶은 계속될까? 죽은 자들의 영이 머무는 큰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란 어떤 것일까?"

저희 가족 중에도 손녀인 새라와 에밀리, 손자 네이든이 그 세계에 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저희 가족은 두 손으로 복음 진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저희는 구주의 속죄를 통해 위로와 확신을 얻고 의문을 풀었습니다. 비록 그렇게 떠나 보냈지만, 그 아이들이 살아 있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 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의 또 다른 핵심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귀한 목적을 위해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이 필멸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필멸의 몸을 지어 주는 것은 아담과 이브의 책임이자, 나아가 그 후손들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의 자녀들이 지상 생활을 경험하여 배우고 성장하도록 그들을 지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서 맡은 핵심적인 역할을 가르치시기 위해 하늘의 사자들과 사도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 앞에 놓인 위험을 경고하면서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주님의 사도들은 인생의 질문에

답을 구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경고하고, 다가가서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20년 전,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그 영감 어린 선언문을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우리는 순결에 관한 성약을 어기거나,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족이 붕괴될 때 개인과 지역 사회와 국가에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 [5]

우리는 사도로서 오늘 다시 한 번 이 엄숙한 경고를 확인하겠습니다. 계명과 성약은 시온의 정든 배에 실린 소중한 진리요 교리이며, 하나님께서 그 배의 키를 잡고 계심을 부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교리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덕분에 세상에서 물들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체적 안식을 얻고, 일요일마다 아버지와 아들을 예배하며 영적인 기운을 회복합니다. [6] 안식일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그분들께 사랑을 표하는 일입니다. [7]

안식일을 기쁘게 여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는 성찬식은 주님의 것이며,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지역 지도자들과 교회 회원들께 당부드렸습니다. 성찬 의식을 행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맺은 성약을 다시 새롭게 하고 구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그분의 희생과 속죄를 기억합니다.

이와 같은 예배의 영은 매달 금식 간증 모임에도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찬식은 회원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간략히 표현하고, 이런 것들에 관해 자신의 간증을 전하는 기회입니다. 금식 간증 모임은 영감받은 생각을 짧게 나누고, 진지하게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연설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린 자녀들은 간증의 중요한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초등회에서,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정의 밤에서 간증을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안식일을 기쁘게 여기는 것을 강조한 것은 주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주신 영감의 직접적인 결과물입니다. 와드 평의회 구성원들은 감독단을 도와 매주 성찬식을 위해 계획된 음악과 주제를 몇 주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가정과 교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돌아옵니다. 자녀들은 주님의 방법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그분의 영을 느끼고 그에 반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녀들이 주님의 영을 느낄 때, 우리 모두가 일요일마다 교회에 참석해서 성찬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노소를 불문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안식일을 보내는 데서 오는 영적인 고양과 위안을 느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리스도는 항상 가까이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거나 기꺼이 회개하고 그분께 나아가려 할 때 흔쾌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시온의 정든 배 안에 있는 이런 몇 가지 진리만을 깊이 생각하며 배 안에 머뭅시다. 그리고, 배는 탈 것으로 정의되며, 탈 것의 목적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우리 배는 복음의 충만한 축복과 하늘의 왕국, 해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키를 잡고 계신 이 크고 힘 좋은 배는 구원과 승영을 향해 나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배 밖으로

뛰어내려 혼자 힘으로 헤엄쳐서 그곳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승영은 이 필멸의 여정의 목적지이며,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주님의 속죄와 의식, 교회의 지도 교리와 원리라는 수단 없이는 그곳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배우고 우리를 구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승영으로 가는 여권이 되는 영원한 가족을 갖고자 결심하며 성약을 맺습니다. 신권을 통해, 예측할 수 없는 필멸의 세상에서 물결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곳도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시온의 정든 배에 감사합시다. 이 배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홀로 표류하며 기진맥진한 채, 키도 노도 없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며, 대적이 일으킨 세찬 바람과 파도의 소용돌이에서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영화로운 배,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꽉 붙잡고, 그 안에서 계속 항해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 시온의 정든 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 간증과 기도를 전합니다. 아멘. ■

주

1. 엠 러셀 밸라드, "배 안에 머물고 배를 꽉 붙드십시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89~92쪽 참조.
2. Brigham Young, "Remarks," *Deseret News*, Nov. 18, 1857, 291.
3. 요한복음 13:20.
4. 마태복음 28:19~20.
5.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6. 교리와 성약 59:9~23 참조.
7. 이사야 58:13~14 참조.

리처드 제이 메인즈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삶의 기쁨

이생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찾으려면 우리 삶의 정중앙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 세계의 선한 사람들에게 의로운 삶의 표준을 낮추거나 심지어 포기하라며 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마주하게 되는 악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삶을 산다면, 오늘날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또한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삶의 중심에 둘 때, 다음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삶에는 안정과 행복이 깃들게 됩니다.

일본 시코쿠의 작은 산촌에 사는, 칠십인인 타이치 아오바 장로님은 청소년 대회에서 한 강좌를 맡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대회의 주제는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였습니다. 이 주제를 염두에 두고 무엇을 가르칠지 숙고한 결과, 장로님은 자신의 직업을 교수법에 활용하기로 하셨습니다. 아오바 장로님은 도예가이십니다.

강좌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아오바 장로님이 마치 마술을 부리듯 손에 든 진흙으로 접시와 사발, 잔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고서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범을 보인 후에, 나와서 한 번 해 볼 사람 있느냐고 물었을 때 청소년들은 너도나도 손을 들었습니다.

아오바 장로님은 앞으로 나와서 이 흥미로운 일에 도전해 보도록 청소년 몇 명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장로님의 시범을 본 그들은 도자기를 빚는 일을 꽤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단순한 사발 하나를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물레 밖으로 진흙이 사방팔방으로 튀었고,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진짜 힘드네요."라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아오바 장로님은 청소년들에게 도자기 만드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것 같으냐고 물으셨습니다. 대답은 "경험이 없어서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재능이 없나 봐요." 등 다양했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청소년들의 말이 다 맞았습니다. 하지만 실패의 가장 주된 원인은 진흙을 물레 정중앙에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제 딴에는 중앙에 진흙을 놓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정중앙이 아니었습니다.

타이치 아오바 장로의 도자기 물레에 놓인 진흙 반죽과 같이 이생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정중앙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오바 장로님은 학생들에게 "한 번 더 해 볼까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물레 정중앙에 놓고 물레를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진흙 중앙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청소년 몇 명도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엔 모두 손뼉을 치며 "와! 흔들리지 않네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해냈어요!" 하며 좋아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모양은 아니었지만 결과는 처음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청소년들이 성공한 이유는 진흙을 완벽히 물레 정중앙에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도예가의 물레와 유사하며, 물레가 도는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도예가의 물레 위에 놓인 진흙처럼 우리 역시 정중앙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핵심이자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배우고, 그분의 복음을 따르며, 그분의 계명을 정확히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선지자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1]

우리가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둔다면, 주님께서는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해의 왕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되어야 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실 수 있습니다. 이생에서 누리는 기쁨은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 속죄 희생에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정비례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대대로 후기 성도였던 조상들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족 전통의 근간으로 삼을 때 오는 축복과 기쁨이 일상에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시절에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때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주는 축복이 그것을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의 삶에 얼마나 놀랍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다음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종한 이들이 거치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2]

몰몬경에는 예수께서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언급하신, 그 보화를 찾을 때 오는 기쁨을 느끼고자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 했던 개종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앨마서 20장에 암몬과 라모나이 왕이 암몬의 형제인 아론을 감옥에서 구출하기 위해 믿도나이로 향한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던 길에 그들은 온 땅을 다스리는 레이맨인 왕인 라모나이의 부친을 만났습니다.

왕은 아들 라모나이가 자신이 적으로 간주하는 니파이인 선교사 암몬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들들과 백성을 위해 성대하게 베푼 잔치에 라모나이가 마땅히 참석했어야 했다고 여겼습니다. 라모나이 왕은 너무 화가 나서 아들 라모나이에게 암몬을 베어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라모나이가 거부하자 왕은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칼을 빼들어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암몬의 저지로 라모나이는 목숨을 구했습니다. 암몬은 왕을 제압했고, 그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 지나고, 왕은 암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살려 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3]

왕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나라의 절반이라도 기꺼이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암몬의 요구가 단지 그의 형제 아론과 그의 친구들을 석방해 주고, 왕의 아들인 라모나이가 계속 왕국을 다스리게 해 달라는 것임을 듣고서 분명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일 덕분에 암몬의 형제 아론은 후에 믿도나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아론은 레이맨인 왕이 통치하던 땅으로 가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론은 왕을 알현하고,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비롯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를 가르칠 특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가르침은 왕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아론의 가르침에 대한 왕의 대답은 앨마서 22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론이 그에게 이러한 것을 해설하자, 왕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야 그대가 말한 이 영생을 얻겠느냐? 참으로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에게서 나서, 내 가슴에서 이 간악한 영을 뿌리뽑고, 그의 영을 받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 버림을 받지 않겠느냐? 그가 이르되, 보라, 이 큰 기쁨을 받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겠노라. 참으로 나의 왕국이라도 버리겠노라 하더라."

정말 놀랍게도, 목숨을 부지하려 왕국 절반을 포기하려 했던 이 레이맨인 왕은 그전과는 달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복음 생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왕국 전체를 흔쾌히 포기하려 했습니다.

제 아내 낸시도 개종자입니다.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고 받아들여 그에 따라 생활하면서 느낀 기쁨에 대해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메인즈 자매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20대 초반, 저는 이 인생의 기로에서 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진정한 목적도, 방향도 없이 표류하는 것만 같았고, 그런 걸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시다는 것을 알았고, 살면서 가끔 기도할 때면 그분이 들으신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답을 찾기 시작하면서 몇몇 교회에도 참석해 보았지만 언제나 똑같은 느낌과 실망감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제 기도가 마침내 응답되고, 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임하게 되어 크나큰 축복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처음으로 삶의 목적이 뚜렷해졌고, 행복의 계획이 제 삶에 진정한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삶을 살 때, 커다란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더 큰 행복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선지자 리하이와 그의 가족은 기원전 600년경에 예루살렘을 떠난 후, 약 8년간 광야를 떠돌다 마침내 바닷가 근처의 땅에 도착했고, 그곳을 풍요라 이름 붙였습니다. 니파이는 광야에서 보낸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는 참으로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4]라고 표현했습니다.

풍요 땅에 살면서 니파이는 배를 한 척 지어 바다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한 후에,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둔 백성들과 레이맨 및 레뮤엘의 본을 따라 믿지 않는 이들 사이에 극심한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두 백성 간에 폭력의 위험성이 너무나 커져서 니파이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갈라져 나와 안전한 곳을 찾아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리하이와 그의 가족이 예루살렘을 떠난 지 약 30년이 지난 그때에, 특히나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겪은 많은 시련과 환난을 기록한 후인 그 시점에, 니파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적이면서도 어찌 보면 놀랍기도 한 말을 남깁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더라."[5] 고난을 겪고서도 그들의 중심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도예가의 물레 위에 놓인 진흙처럼, 이생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찾으려면 우리 삶의 정중앙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레이맨인 왕, 제 아내 낸시, 니파이 백성의 예는 하나같이 이 참된 원리를 뒷받침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우리도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한다면 평화와 행복,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간증으로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이사야 64:8.
2. 마태복음 13:44.
3. 앨마서 20:23.
4. 니파이전서 17:6.
5. 니파이후서 5:27.

닐 에프 매리엇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립시다

영에게 자신을 열어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분의 뜻을 감지하게 됩니다.

지난 4월 연차 대회에서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1]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변화는 인생 경험이나 출생지에 관계없이,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최남부 출신인 저는 유년 시절에 오래된 개신교 찬송가에서 참된 제자의 변화된 마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가사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여,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뜻을 이루소서!
당신은 토기 빚는 분이요
저는 진흙이니이다
순종하며
조용히 기다리오니
당신 뜻대로
저를 빚어 만드소서[2]

바쁘게, 경쟁하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조용히 기다릴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 배우고, 이해력을 얻고자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하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힘쓰며 이해에 도움이 될 응답을 기다리게 됩니다.

제 마음의 변화는 열두 살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주기도문[3]을 읊조리는 것 외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신가요? 어딘가에 계시다는 것은 알지만, 그곳이 어딘가요?" 하고 무릎을 꿇고

여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질문을 십 대 시절 내내 계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지혜로 제가 십 년 동안이나 찾으며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1970년, 선교사들이 제게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과 구주의 속죄에 대해 가르쳐 주었을 때, 제 기다림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 진리들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주의 자비와 권능이라는 지식을 기반으로, 가훈을 "모든 것 잘되리"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고 응답을 바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서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쾌활하고 부족함이 없는 저희 딸 조지아가 스물한 살에 자전거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 갔을 때에도, 저희 가족은 "모든 것 잘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훈을 굳게 믿으면서, 딸 아이 곁으로 가려고 브라질의 선교부에서 미국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로 즉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사랑스러운 딸은 제 비행기가 도착하기 몇 시간 전에 영의 세계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슬픔과 충격이 전류처럼 가족들에게 번지고 있던 그때, 어떻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여전히* "모든 것 잘되리"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조지아가 지상에서 죽음을 맞은 후, 저희 가족은 쓰라린 고통을 겪었고, 또 요즘에도 순간순간 깊은 슬픔을 느끼지만, 그 누구도 진정으로 죽지는 않는다는 지식에 회의를 품지는 않습니다. 조지아의 육신이 기능을 멈췄을 때 비통에 빠지기는 했으나, 저희는 그 아이가 영으로는 살아 있다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성전 성약에 충실하면, 딸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구속주와 그분의 부활을 믿는 신앙, 그분의 신권 권능을 믿는 신앙, 영원한 인봉을 믿는 신앙이 있기에 저희 가족은 확신을 갖고 가훈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다 잘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 주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4]

저희 가훈은 "*지금* 모든 것 잘되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꼭 현재의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결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경전에는 "부지런히 찾으라. 항상 기도하라. 또 믿으라. 그리하면 … 너희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리라"[5]라고 나옵니다. 이 성구는 모든 것이 *유익하다*는 뜻이 아니라, 온유하고 충실한 이에게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모두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하며, 그 시기는 주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 욥이 고난 중에 그랬듯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6]는 것을 알고 그분을 기다립니다. 유순한 마음은 시련을 받아들이고, 다가올 치유와 온전케 되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영에게 자신을 열어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분의 뜻을 감지하게 됩니다. 제가 안식일의 정수로 여기는 성찬을 취할 때면, 저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더 해야 할 것이 있사옵니까?" 하고 여쭈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종하고 조용히 기다리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더* 변화시켜야 할지, 즉 영적 인도나 치유 및 도움을 받을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인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에게 속으로 분을 품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고백할 것이 더 있는지 여쭐 때, 그 "비밀"이 기억 속에 분명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성신께서 이렇게 속삭이실 것입니다.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진심으로 물었지? 바로 이것이야. 분노가 너의 발전을 위축시키고 건전한 관계를 맺는 능력을 훼손하고 있어. 너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단다." 아,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적의를 품는 것이 꽤 정당하다 여겨질 때에도, 주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만이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운 힘과 인도를 받게 됩니다.

아마도 그러한 힘과 인도로 우리는 성전에 더 자주 가게 되거나, 구주의 속죄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게 되거나, 친구, 감독, 전문 상담사, 아니면 의사와 상담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치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경배할 때 시작됩니다.

참된 경배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와 아들 앞에서 진실할 때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치유되고 충실한 마음을 지니려면 먼저 주님 앞에서 상한 마음을 보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내게 희생으로 드릴지니"[7]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 곧 우리 뜻을 바칠 때, 우리는 필요한 영적 인도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이해가 커지면, 아집으로 찼던 마음이 감사로 금이 가고 부서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후,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의 멍에를 메기를 갈망하며 그분께 나아갑니다. 상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 멍에를 메면, 우리는 성신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얻고 인도를 받습니다.

저는 매사를 제 방식대로 하려는 인간적인 욕망을 없애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결국 *제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에 비해 너무도 부족하고 한계가 있으며 열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길은 이생에서는 행복으로 인도하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8]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길*을 우리 자신과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너무 많은 실패를 했으며, 죄가 되는 행동이나 마음속의 세속적인 욕망을 변화시키기에는 자신이 너무 나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약을 맺은 이스라엘인으로서 우리는 오로지 우리 힘만으로 변화에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청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꿈꿨던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저명한 신학자 로버트 엘 밀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는 영적 확신"과 어우러진, "향상을 위한 건전한 갈망"에 대해 기술하기도 했습니다.[9]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 의지하여
날 사랑하심 아오니
성실한 맘으로 주 뜻 행하고
원하신 대로 되오리[10]

우리가 상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제물을 받아들이십니다. 또, 우리를 다시 받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손실이나 상처를 입고, 거절을 당했든 간에, 그분의 은혜와 치유는 그 모든 것보다 강력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구주의 멍에를 멜 때만 확신을 품고 "모든 것 잘되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댈린 에이치 옥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32쪽.
2. "Have Thine Own Way, Lord," *The Cokesbury Worship Hymnal*, no. 72.
3. 마태복음 6:9~13 참조.
4. Gordon B. Hinckley, Jordan Utah South regional conference, priesthood session, Mar. 1, 1997; 또한 "Excerpts from Addres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Ensign*, Oct. 2000, 73 참조.
5. 교리와 성약 90:24.
6. 욥기 5:18.
7. 제3니파이 9:20.
8.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3쪽; 강조체 추가.
9. Robert L. Millet, *After All We Can Do: Grace Works* (2003), 133.
10.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찬송가*, 146장.

래리 알 로렌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우리가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겸손해진다면 성신은 우리가 발전하도록 이끄시며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길을 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방향을 여쭈어야 합니다.

저는 청년 성인 시절에 교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후기 성도인 친구들의 모범을 보고 복음에 흥미가 생겼지만, 결국은 특별한 교리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충실한 남자와 여자가 발전을 거듭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늘 부모님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개념이 좋았고, 그 참됨이 느껴졌습니다.

침례를 받고 얼마 후에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진보에 관한 이 진리를 성경에서도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회원이 된 지 40년이 넘은 지금도 이 구절을 읽을 때면, 우리가 이 지상에 온 목적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점차 성결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 배우고 발전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그 길은 "꾸준한 발전의 길"[2]로 불립니다. 우리가 그 협착하고 좁은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영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도록 계속해서 과제를 부여합니다. 성신은 이상적인 여행 동반자가 되어 줍니다. 우리가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겸손해진다면 성신은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길을 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방향을 여쭈어야 합니다. "제가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어떤 약점을 강화해야 할까요?"와 같은 어려운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부유한 젊은 관원이 나오는 신약전서의 기사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여태 십계명을 지켜 온 의로운 젊은이였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영생이었습니다.

그는 구주를 뵙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3]

예수께서는 곧바로 이 젊은이를 위해 특별한 권고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4]

젊은이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런 희생을 염두에 둔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여쭤 볼 만큼 겸손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고를 따를 만큼 충실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으면 기꺼이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해롤드 비 리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함에

이르고자 한다면, 언젠가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5]

제가 아는 어떤 충실한 어머니는 자신을 낮추고 "제가 발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주님께 여쭤 보았습니다. 곧바로 그녀는, '불평을 그치라'는 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불평하는 사람으로 여겨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신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자신의 불평하는 습관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개선하라는 응답에 감사하며, 힘든 일 대신 축복을 세어 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영이 이를 받아들인다는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맞는 이성 친구를 찾을 수 없을 것만 같던 한 겸손한 젊은이가 주님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상적인 남성이 되지 못하도록 저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생각과 마음에는 다음과 같은 답이 떠올랐습니다. "상스러운 말을 쓰지 말라." 그는 순간 자신이 쓰는 말 중에 절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한 독신 자매는 용감하게도 "제가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라고 여쭈었고, 영은 "이야기할 때 끼어들어 가로막지 말라."라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성신은 참으로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조언을 주십니다. 성신은 더 없이 정직한 동반자이며,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거나 말할 용기가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 줄 것입니다.

매우 빠듯한 일정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한 귀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과 공부, 가족 그리고 교회 부름을 위한 시간을 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면서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기대와는 다른 응답이 왔습니다. 좀 더 신중하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인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일요일을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 바치기로 했습니다. 즉, 그날에는 학교 공부를 놓고, 대신 복음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로 그는 자신이 구하던 평안과 균형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에 저는 교회 잡지에서 타지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수업에서 뒤처져 있었고, 사회 생활도 기대했던 것과 같지 않았으며, 그저 어느 것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그녀는 무릎을 꿇고 "제 생활을 개선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라며 눈물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성신은 "일어나 방을 청소하라."라고 속삭였습니다. 정말 예상 밖의 응답이었지만, 그 일은 그녀가 필요했던 출발점이었습니다. 시간을 내서 방을 정리한 뒤, 그녀는 영이 방을 채우고 마음을 고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신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영은 우리의 속도에 맞추어, 한 번에 한 단계씩 일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 내 교훈에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 내가 더 줄 것이[라]"[6]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컨대, 성신이 감사하다는 말을 더 자주 하라고 속삭였을 때 여러분이 그에 즉시 응답한다면, 성신은 이제 여러분이 "미안합니다. 그건 제 잘못이었습니다."와 같이 더 어려운 단계로 옮겨갈 때가 되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라고 여쭐 가장 완벽한 시간은 성찬을 취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을 취할 때가 우리가 자신을 점검할 시간이라고 가르쳤습니다.[7] 이 경건한 분위기에서 생각이 하늘을 향할 때, 주님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조용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저도 수년 동안 제가 발전할 방법을 알려 주는 영의 메시지를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중 제가 가슴에 담은 개인적인 메시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목소리를 높이지 말라.
- 자신을 조직하라. 매일 할 일을 목록으로 만들라.
-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먹으며 육신을 더 잘 보살피라.
- 성전에 더 자주 참석하라.
- 기도하기 전에 시간을 내어 명상하라.
- 아내에게 조언을 구하라.
- 운전할 때는 인내하라. 과속하지 말라.(저는 아직도 이 부분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구주의 속죄 희생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고, 또 성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속죄가 죄인들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종적이고, 합당하며, 양심적인 선한 남자와 여자 즉, 더 나아가며 더욱 충실하게 봉사하고자 애쓰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속죄가 존재한다는 점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8]

저는 여러분에게 조만간 영적인 활동을 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여쭤 보십시오. "제 발전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라고 말입니다. 그런 다음 조용히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진지하다면 응답은 곧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을 위한 계시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영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고 전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영화나 음악을 좀 더 선별하여 즐기라거나, 사업상 거래에서 좀 더 정직하라, 또는 금식 헌금을 좀 더 후하게 내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응답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영은 우리의 약점만이 아니라 강점 또한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실 수 있도록, 때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여쭈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을 아신다는 점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딜 때마다 기뻐하십니다. 그분께는 우리가 나아가는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중요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끈기를 갖되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완벽해지려면 무덤 너머로 가야 하겠지만, 이곳 필멸의 생에서도 그 기초를 놓을 수는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9]

삶에서 영적인 성장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계속 발전하는 길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중요한 경험들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수년 전 읽은 스펜서 더블유 킴볼 회장님의 말씀은 제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마음과 의에 굶주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점점 더 많은 빛을 부어 주시며, 마침내는 하늘의 휘장을 뚫을 수 있고 인간이 현재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권능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의로운 사람은 어느 날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이심을 알게 되리라는 아주 귀중한 약속을 받습니다."[10]

성신의 인도대로 본향을 향해 가며, 언젠가 우리가 이 궁극적인 경험을 몸소 체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5:48.
2. 닐 에이 맥스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속죄에 관한 간증", *리아호나*, 2002년 4월호, 9쪽.
3. 마태복음 19:20.
4. 마태복음 19:21.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2000), 197쪽.
6. 니파이후서 28:30.
7. 고린도전서 11:28 참조.
8.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필멸의 여정과 속죄", *리아호나*, 2012년 4월호, 14쪽.
9. 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제3권. (1954~56), 2:18~19.
10. Spencer W. Kimball, "Give the Lord Your Loyalty,"*Ensign*, Mar. 1980, 4; Tambuli, Feb. 1981, 47.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하나님의 기쁜 말씀

성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우리 생활에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기쁜 말씀은 보여 줍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우리 중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기쁜 말씀, 곧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는 말씀을 듣고자"(야곱서 2:8) 이곳에 왔습니다. 이런 말씀은 경전과 지도자들의 메시지에서 찾을 수 있으며, 어두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과 위안을 가져다줍니다.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이 세상에서는 기쁨이 충만하지 아니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함을 배웁니다.(교리와 성약 101:36 참조)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사, 우리가 겪는 여하한 고난도 다 그분의 기쁨 안에 삼키우게 하실 것입니다.(앨마서 31:28 참조)

사랑하는 사람이 끔찍한 병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볼 때면 우리의 가슴은 고뇌로 가득 찹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영혼이 공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녀 중 누가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아마 그 자녀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생에서 해의 왕국의 결혼을 이루고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소망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람에게서 학대를 받아, 영혼 깊이 고통스러운 흔적이 새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원하기를 바라던 관계가 배우자의 외도로 파괴되기도 합니다.

이런 시련을 비롯하여 이 시험의 상태에 내재하는 많은 고난에 부딪힐 때,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물었던 것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교리와 성약 121:1)

인생의 이런 어려운 순간에,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기쁜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다음과 같은 위안의 메시지를 전해 줍니다.

"내 아들아, 네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역경과 네 고난은 잠시 뿐이리니,

그러고 나서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 너는 너의 모든 원수를 이기리라."(교리와 성약 121:7~8)

환난 중에 충실한 자는 천국에서 더욱 큰 상을 받는다는 것을, 또한 "많은 환난 후에야 축복이 [온다]"(교리와 성약 58:3~4 참조)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말씀에 희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기쁜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대의를 위해 용감히 봉사하여 받은 거룩한 약속을 충실히 받들 때, 우리의 영원한 인봉이 인정되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축복이 되리라는 점입니다.(Orson F. Whitney, Conference Report, Apr. 1929, 110 참조)

또한 그 말씀에서 우리는 충실한 삶을 산 연후에는 어떤 특정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 해도 그것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한 것이라면, 그 어떤 축복도 잃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죽는 날까지 충실하게 살았다면, 우리는 "[그런 기회를 얻은] 여느 남자나 여자가 받게 될 모든 축복과 승영 및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The Teachings of Lorenzo Snow*, ed. Clyde J. Williams [1984], 138 참조)

이제, 우리는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고통과 고난이 우리 삶에 닥칠 수도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리온 지 롬니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지상 사람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과 고난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 사함받지 못했기에 생긴 결과입니다. … 죄에는 고통과 슬픔이 수반되듯이, 죄의 용서에는 행복과 기쁨이 따릅니다."(Conference Report, Apr. 1959, 11)

회개가 부족할 때, 그것은 왜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될까요?

가능한 대답 중 하나는 "형벌이 부가되었고, 사람에게 양심의 가책을 가져오는 공의로운 율법이 주어졌[기]"(앨마서 42:18; 또한 16절 참조) 때문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를 정죄하는 이는 바로 우리 자신이며, 그것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과 같이 격심해지는 것은 우리 마음속 낙담의 고통 때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24쪽 참조)

만일 "[우리] 죄로 인하여 지극히 작은 점에라도 [우리] 스스로를 변명하려"(앨마서 42:30) 하거나 죄를 감추어 양심을 달래려 한다면,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라고는 고작 영을 슬퍼하게 하는 것(교리와 성약 121:37 참조)이거나, 회개를 미루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위안은 일시적인 것인 데다가 결국은 삶에 더 큰 고통과 슬픔을 안기며 죄 사함을 받을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말씀은 이런 종류의 고통에도 위로와 희망을 가져다주며, 죄의 결과로 비롯된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있음을 알려 줍니다. 이런 위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서 오며,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며, 계명에 순종할 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죄 사함과 마찬가지로, 회개는 하나의 과정이지 특정한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의 각 단계에는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성찬을 취할 때,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계명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그분께 보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의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죄 사함이 점차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의도에 수반되어야 하는 올바른 순종 없이는, 머지않아 죄 사함의 효력이 사라지고 영의 동반이 철회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그분에게서 멀리 옮겨 가는 위험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니파이후서 27:25 참조)

위안을 주는 것 외에도, 하나님의 기쁜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얽매이면 죄 사함을 받는 이 과정이 중단될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면, 신앙을 통해 그 과정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20:5~6 참조)

죄 사함을 받는 과정에 장애가 될 이런

벨리제 산페드로

헛된 것들 중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과 관련된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 예로, 합당한 사유 없이 성찬식에 늦게 도착하는 것, 먼저 자기를 살피지 않고 도착하여 합당하지 않게 빵과 물을 취하는 것(고린도전서 11:28 참조), 먼저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도착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전자 기기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건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과, 성찬을 취한 후 모임을 떠나 이 성스러운 날에 집에서 부적절한 활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종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까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식일과 관련이 있으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다른 계명에도 적용되는 한 가지 답을 이사야의 다음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말라]"(이사야 58:13).

여기서 핵심 문구는 "금하여 … 오락을 행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를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의 뜻은 육에 속한 사람의 욕망과 갈망과 격정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뜻과 상충합니다. 선지자 브리검 영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뜻과 격정, 감정이 하나님과 그분의 요구에 완전히 복종할 때, 그 사람은 성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삼키운 바 되어, 그것이 우리 자신을 모든 선으로 인도하고 결국에는 불멸과 영생의 면류관을 씌워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Deseret News*, Sept. 7, 1854, 1)

하나님의 기쁜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에 힘입어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악마와 육체의 뜻이 아닌 그분의 뜻과 화합하여 그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라고 권고합니다.(니파이후서 10:24~25 참조)

오늘날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기쁜 말씀은, 성신의 영향력을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려면 우리 생활에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영을 동반하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평안과 기쁨을 속삭여 줄 것이며, 그것은 원한, 미움, 시기, 다툼, 그리고 모든 악을 [우리의] 마음에서 없애 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선을 행하고, 의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가르침: 조셉 스미스*, 98쪽 참조)

우리는 성신의 영향력으로, 자기 감정이 상하거나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이 행복감을 더 느끼고 생각이 더 깨끗해질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이 커지고, 더 기꺼이 용서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퍼뜨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를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선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힘쓸 때 오는 기쁨을 누리고, 진실하고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 삶에서 항상 성신을 동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우리의 가족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원리들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브리스틀식으로 정돈하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성스러운 복음 원리를 따르면,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되고, 이생에서 행복을 찾고, 하늘의 본향에 돌아가도록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지자 리하이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의가 없을진대 행복이 없을지라"[1]

사탄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허황된 생각을 심는 데 성공해 왔습니다.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은 *현재 이생에서* 누리는 행복과 쾌락과, *다음 생에서* 누리는 행복 중에서 어느 한쪽을 택하는 것이라 말합니다.(악마는 다음 생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허황된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이야기하지만,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2]

하나님이 세우신 행복의 계획에서 궁극적으로 가장 고귀한 목적은 의로운 제자들과 성약의 가족들이 이생에서 사랑과 조화, 평화 속에 화합하고,[3] 또한 영원의 세상에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며 우리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의 영광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4]

제가 젊은 선교사로서 영국 선교부에 봉사했을 때 처음으로 파견된 지역은 당시의 브리스틀 지방부였습니다. 그곳의 교회 지도자 한 분은 그 지역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에게 "브리스틀식으로 정돈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분이 말하는 요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뱃사람들이 쓰는 말인, "브리스틀식으로 정돈하라"라는 말의 기원과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 브리스틀은 영국에서 두 번째로 번화한 항구였습니다. 간만의 차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13미터에 이르는 항구였습니다.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 때에는 오래된 배들이 바닥에 닿으면서 옆으로 쓰러지곤 했는데, 잘 만든 배가 아니면 그럴 때 파손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물건을 조심해서 쌓아 두지 않거나 묶어 놓지 않으면, 이리저리 굴러다니거나 망가지거나 파손되었습니다.[5] 그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자, 그분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선교사로서 의롭고, 규칙을 따르고,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도전은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저는 "브리스틀식으로 정돈해야" 한다는 말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성전에 가기에 합당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어 보겠습니다.

브리스틀 해협은 간만의 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생에서 닥치는 폭풍과 유혹은 대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폭풍과 유혹이 오리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과 유혹을 이겨 내려면, 의로운 준비와 아울러 하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6]

이생에서 누리는 행복과 다음 생에서 얻는 행복은 의로움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도 "*의로운* 자들의 영은 낙원이라 일컫는 행복의 상태, 곧 안식의 상태, 평화의 상태로

위: 브리스틀 항의 오래된 배처럼, 우리는 썰물이 빠지고 우리를 받쳐주던 모든 것이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 삶을 유지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킬수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 자제심을 행사하고 올바른 삶을 살 때 유혹에 빠지지 않을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영접[됩니다.]"[7]

이스라엘에서, 또 나중에 니파이 백성 가운데서 성역을 시작하실 때, 구주께서는 이생과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행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의식을 강조하셨지만, 도덕적 행동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예컨대, 제자들이 의에 굶주리고, 의에 목마르며, 자비롭고, 마음이 순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그 밖의 기본이 되는 도덕적 원리를 따른다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토대가 되는 교리적 메시지로서, 의로운 태도와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행동 두 가지 모두를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모세 율법에 있는 요소들을 대체하고 초월할 뿐 아니라[8] 인간의 그릇된 철학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수 세기 동안 믿음을 고취해 왔을 뿐 아니라 의롭고 바람직하며 도덕적이고, 또 행복과 지고의 은총 및 기쁨을 가져다주는 행동 표준을 확립해 왔습니다. 하지만 구주께서 가르치신 원리와 기본적인 도덕성은 오늘날 세상에서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것이 뿌리째 달라졌다고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9]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10] 하는 경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자기 위상 강화를 강조하는 세상은 큰 걱정거리의 진원입니다. 다른 종파에 속한 어떤 저명한 저술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음 시대에 사람들이 실제로 더 행복해진다는 증거, 자녀들이 더 잘 살 것이라는 증거, 사회 정의라는 대의가 더 커질 것이라는 증거를 거의 볼 수 없는 반면에, 감소하는 결혼율과 약화되는 가정이 더 심한 외로움과 전반적인 불황을 가져오리라는 것은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11]

구주의 제자로서 우리는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행복의 계획에서 도덕적 선택의지는 핵심이 되는 구성 원리이기에 우리의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12]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드러나듯이, 구주께서는 성역을 베푸시는 내내 이런 점을 강조하셨습니다.[13] 이런

각 비유에서 주님은 준비하고 행동하는 것을 칭찬하시고, 미루는 것과 게으름을 꾸짖으셨습니다.

엄청난 행복이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 안에 있음에도, 행복은 아주 멀리 있고 또 현재 여건과는 단절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에게는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야로는, 현재 우리를 유혹하고 주의를 흩뜨리는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그런 유혹에 저항함으로써 오는 보상은 저 멀리 있어, 얻지 못할 것이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의로움에 대한 보상은 그 즉시, 바로 지금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도덕한 행동과 같은 간악함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앨마는 아들 코리앤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느니라."[14]

우리의 교리는 앰율레크가 앨마서 34장 32절에 분명히 밝힌 바와 같습니다. "보라, 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라. 참으로 보라 이 생의 날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수행할 날이니라."

그러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 것 외에도 의로움에 도움이 되는 원리들이 많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의로운 자제력과 행동

저는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어린 자녀를 지켜볼 때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비틀거리고 넘어집니다.

저는 1960년대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그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에 대해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께서 2010년 연차 대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15] 여러분은 네 살배기 어린이들이 마시멜로를 하나씩 받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고 15분 혹은 20분을 기다리면 하나씩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실험을 녹화한 영상에는 많은 어린이가 마시멜로를 먹고 싶은 것을 참느라고 몸을 뒤트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16] 몇몇은 그냥 먹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실험을 했던 월터 미셸 교수는 작년에 한 저서에서 그 연구를 시작한 여러 계기 중 하나는 자신의 자제력에 대한 회의와, 흡연 중독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린, 1964년 미국 보건총감 보고서를 보고 특히 더 걱정에 빠졌습니다.[17] 수년에 걸친 연구 끝에 그의 한 동료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자제력은 마치 근육과 같아서, 사용할수록 더 강해진다. 유혹적인 것을 일단 한 번 피하면 그 후로 다른 유혹을 이겨 내는 능력은 점점 더 커지게 된다."[18]

자제력을 행사하고 의롭게 생활하면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강화된다는 것이 영원한 진보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영적인 영역과 현세적인 문제에 모두 다 성립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선교사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발전시키고 또 순종과 영성을 강조합니다. 엄격한 일정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들은 오늘날 널리 퍼진, 가볍거나 야한 옷차림 대신 단정하고 보수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모습은 도덕적이고, 진지한 메시지를 전해 줍니다.[19]

현재 선교사로 봉사 중이거나 지난 5년 사이 선교사 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젊은이는 대략 230,000명에 이릅니다. 그들은 훌륭한 영적인 힘과 자제력을 키웠는데, 이는 계속적으로 연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자질들은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처럼 퇴화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되이 따르는 사람임을 말해 주는 행동과 모습을 개발하고 몸소 실천해야 합니다. 의로운 행동이나 건전하고 단정한 모습 중 어느 하나라도 저버린 사람은 기쁨이나 행복 그 어느 것도 가져다주지 않는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회복된 복음은 우리에게 행복의 계획이라는 청사진을 제공해 주고, 우리가 자제력을 이해하고 행사하는 데 도움을 주며, 유혹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 줍니다. 또한 복음은 이를 어겼을 때 회개하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둘째: 안식일을 존중하면 의로움이 커지고 가족이 보호받습니다

초기 기독 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다른 성스러운 기본 목적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의 크나큰 업적을 상징합니다.[20]

우리 부부, 그리고 제 동료 두 분과 그 부인들은 얼마 전에 친한 친구인 로버트 아브람스와 그의 아내 다이앤의 초대를 받아 그들의 뉴욕 자택에서 유대식 안식일을 같이 보낼 기회가 있었습니다.[21] 유대교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의 초점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은 가족을 축복하고 안식일 찬송을 부르며 시작되었습니다.[22] 우리는 그들과 같이 손을 씻는 의례를 하고, 빵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유대식 식사를 하고, 경전을 암송하며, 축하 분위기에서 안식일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영어 통역이 뒤따르는 히브리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소중한, 구약전서에서 낭독했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라고 선포한 이사야의 말씀과[23]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24]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훌륭한 저녁 시간에 가장 감명을 준 내용은 가족 간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겪었던 극심한 박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안식일을 존중하는 전통은 분명 경전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로서 유대인을 보존하고 축복하는, "영속적인 성약"[25]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많은 유대인의 생활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인, 독특한 가정생활과 행복에도 기여했습니다.[26]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에게 안식일을 존중하는 일은 가족을 축복하고 강화하며, 우리와 창조주를 이어 주고, 행복을 키워 주는 의로움의 한 형태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하찮고,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것들을 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세상에 거하나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 줍니다.

지난 여섯 달 동안, 교회에는 정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는 안식일을 다시 새롭게 강조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와 더불어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만들자는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의 제의[27]에 우리 회원들이 호응한 결과였습니다. 안식일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생의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임을 많은 회원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헌신의 표시이자 성찬식의 성스러움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우리는 훌륭하게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권고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안식일 예배를 발전시킬 것을 당부합니다.

셋째: 우리가 의로울 때 하늘의 보호가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일환으로 성신의 은사를 축복받습니다. 이것은 "성신을 계속해서 동반하는 권리[로], 사람이 합당할 때에는 언제나"[28] 받는 은사입니다. 신회의 이 구성원은 우리가 생활에서 복음을 가장 우선시할 때, 우리를 깨끗이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또한 악을 경고하는 음성이며,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음성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성신의 느낌을 꼭 따라야 합니다. 영은 우리가 유혹과 위험을 피하도록 돕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입니다.]"[29]

성스러운 복음 원리를 따르면,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되고, 이생에서 행복을 찾으며, 하늘의 본향에 돌아가도록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은 쉽지 않고, 애초에 그렇게 계획되지도 않았습니다. 인생은 시험과 시련의 시간입니다. 브리스틀 항구에 있던 오래된 배처럼, 바닷물이 빠져 이 세상에서 우리를 떠 있게 해 주는 모든 것이 사라진 듯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밑바닥까지 닿게 되어 심지어 옆으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련을 겪을 때,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 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면 정말 중요한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화평과 행복, 또 기쁨이 깃든 달콤한 축복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생 및 해의 영광의 축복과 더불어 실현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후서 2:13. 이 성구는 몰몬경에 있는 대구법의 한 예이다. 몰몬경에 글과 말씀이 실려 있는 많은 선지자가 이 문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교리적으로 중요한 개념을 강조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예를 들어, 니파이후서 9장 25절(야곱)과 니파이후서 11장 7절(니파이)을 참조한다.
2. 니파이후서 28장 참조.
3. 제4니파이 1:15~17 참조.
4. 교리와 성약 59:23 참조.
5. Wiktionary, "shipshape and Bristol fashion," wiktionary.org 참조.
6. 교리와 성약 38:30 참조.
7. 앨마서 40:12; 강조체 추가.
8. 마태복음 5장 머리말(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참조.
9. Carl Cederstrom, "The Dangers of Happiness," *New York Times*, July 19, 2015, Sunday Review section, 8 참조.
10. 니파이후서 15:20.
11. Ross Douthat, "Gay Conservatism and Straight Liberation," *New York Times*, June 28, 2015, Sunday Review section, 11.
12. 니파이후서 2장 참조.
13. 마태복음 25:2~3, 14~30 참조.
14. 앨마서 41:10.
15.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계속 인내하십시오",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56쪽 참조.
16. Walter Mischel, *The Marshmallow Test: Mastering Self-Control* (2014), 136~138 참조; 또한 Jacoba Urist, "What the Marshmallow Test Really Teaches about Self-Control," *Atlantic*, Sept. 24, 2014, theatlantic.com 참조.
17. Mischel, *The Marshmallow Test*, 136–38 참조.
18. Maria Konnikova, "The Struggles of a Psychologist Studying Self-Control," *New Yorker*, Oct. 9, 2014, newyorker.com,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이며 의지력과 자제력을 연구한 로이 바우마이스터 박사의 인용문.
19. Malia Wollan, "How to Proselytize," *New York Times Magazine*, July 19, 2015, 21 참조. 그녀는 브라질 선교사 훈련원의 마리오 디아스가 한 말을 인용했다.
20. 경전 안내서, "안식일" 참조.
21. 폰 지 키치 장로와 그의 아내 버니스 자매, 존 테일러와 그의 아내 잰 자매는 우리 부부와 동행하여 2015년 5월 8일에 로버트 아브람스와 그의 아내 다이앤과 함께 즐거운 안식일을 보냈다. 아브람스 씨는 뉴욕 주 법무 장관을 네 번이나 지냈으며, 오랜 세월 동안 교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아브람스 씨는 또한 유대인 동료 부부 두 쌍도 초대했다.
22. 안식일 저녁 식사 찬송으로는 *Shalom Aleichem*("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을 불렀다.
23. 이사야 58:13~14 참조.
24. 에스겔 20:20.
25. 출애굽기 31:16~17 참조.
26. Joseph Lieberman, *The Gift of Rest: Rediscovering the Beauty of the Sabbath* (2011) 참조. 리버맨 상원의원이 쓴 상당히 유익한 이 저서는 유대인의 안식일을 설명하며 영감 어린 통찰을 전한다.
27. 이사야 58:13~14 참조; 또한 러셀 엠 넬슨,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29~132쪽 참조.
28. 경전 안내서, "성신".
29. 갈라디아서 5:22.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교회 역원 지지

형제 자매 여러분, 몬슨 회장님의 요청에 따라 이제 교회의 총관리 역원과 지역 칠십인,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토마스 스펜서 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디이터 프레드릭 우흐트도르프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러셀 엠 넬슨을,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그리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렌런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일회장단 보좌들과 십이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 분이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받음에 따라,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를 칠십인 회장단 일원에서 해임하고, 래스번드 장로와 데일 지 렌런드 장로를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에서 해임하겠습니다.

이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신적인 봉사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다음 분들을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칠십인 회장단에서 돈 알 클라크 장로, 칠십인 제이정원회에서 고이치 아오야기 장로와 브루스 에이 칼슨 장로를 해임하며 그들을 명예 총관리 역원으로 지명합니다.

이분들의 훌륭한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리 아 코발로프 장로를 지역 칠십인에서 해임하겠습니다.

그분의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존 에스 태너 형제를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좌에서, 그리고 데븐 지 듀란트 형제를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에서 해임함을 알리는 바입니다. 전에 알려 드렸듯이 태너 형제님은 BYU-하와이 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형제님들의 봉사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데븐 지 듀란트 형제는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좌로, 그리고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형제는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그 외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대를 표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의 스테이크 회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십이사도 정원회에 새로 부름받으신 분들은 연단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내일 아침에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오늘날 세상의 시험에 맞서

선교 사업, 교육과 진학, 결혼, 직업, 교회 봉사와 관련된 선택들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 성인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조직적인 종교 또는 종교 단체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는 추세입니다. 빚을 지고 있거나 직업을 찾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좋게 생각하지만, 그 절차를 밟는 것은 주저합니다. 아이를 갖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복음과 영감 어린 인도 없이, 많은 이들이 인생의 낯선 곳에서 길을 잃은 채 방황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복음 계획이 가져다주는 축복 덕분에 교회의 청년 성인 회원들의 상황은 현 시대의 이러한 추세보다는 덜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원한 계획에는 쇠막대를 굳게 잡고서 주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분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가르침에 연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쇠막대를 우리는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의 "택함의 날"[1]입니다.

소년 시절, 제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면 제 아버지께서는 때로 이렇게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로버트, 똑바로 보고 제대로 날거라!" 여러분도 저처럼 그랬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말하신 명백함을 좇아 저도 여러분들께, 특히 우리 젊은이들, 곧 고귀한 청남과 고귀한 청년 성인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저]의 영혼이 명백함을 기뻐하나니 … 그로 인해 우리가 배움을 얻을까 하기"[2]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선교 사업, 교육과 진학, 결혼, 직업, 교회 봉사와 관련된 선택들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곧 여러분이 항상 앞을, 미래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공군 조종사 시절에 저는 한 가지 원칙을 배웠는데, 그것은 절대, 고의로 폭풍 속을 비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어떻게 그걸 깨달았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폭풍을 만나면, 언저리로 돌아서 가거나, 다른 길을 택하거나, 착륙 전에 폭풍이 그치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인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마지막 날의 짙은 폭풍 속에서 "제대로 날도록" 돕고자 합니다. 조종사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선택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볼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생길 수 있는 최악의 결과는 뭘까?' 하고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의로운 선택을 하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술을 마시지 않는 편을 선택한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빚을 지는 것을 절대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파산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노르웨이 드람맨

경전의 목적 중 하나는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들이 악과 유혹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방법은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도망쳐 나왔습니다.[3] 리하이는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4] 마리아와 요셉은 헤롯 왕의 사악한 계획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5] 매번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분은 상황이 흘러감에 따라 거기에 맞서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아니면 받아들여야 할지를 알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며,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를 인도해 줄 성신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와 경전,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 축복사의 축복, 영감받은 부모님과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의 조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의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음이라."[6] 유일한 문제는 이제, 나는 주님의 인도를 따를 것인가, 주님의 음성과 그분 종들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인가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면, 그분도 여러분들을 위해 필요한 곳에 계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7]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분의 영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영 … 그 영을 신뢰하라. … 무엇이든지 다 의로운 것에 속한 것[을] … 이로써 너는 알게 되리니."[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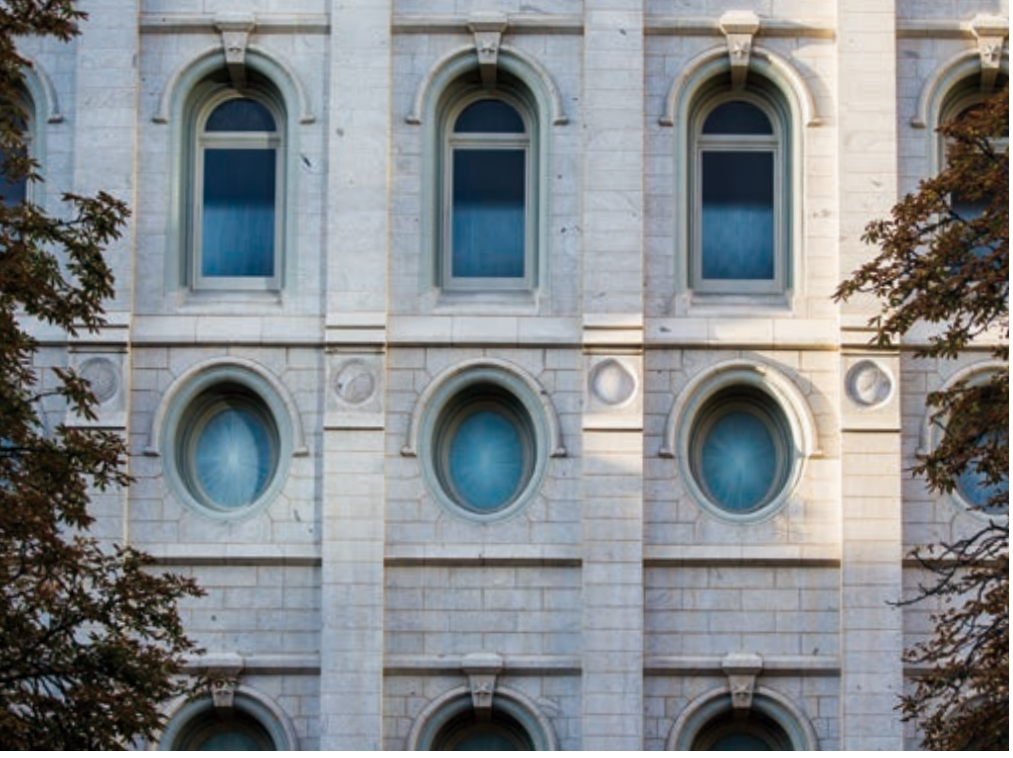
이런 원리를 기반으로,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조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대의 많은 이가 무거운 빚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 청년 성인 시절의 스테이크 회장님은 월가의 투자은행에서 종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소유한 재산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자네는 부자인 거라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십일조를 내고, 저축하십시오!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저축하십시오. 남들이 비싼 장난감을 살 때, 경쟁하려 하지 마십시오. 금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은 사지 마십시오.

세상의 많은 청년 성인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빚을 지고는, 결국 생각보다 빚이 무겁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장학금 또는 보조금을 찾아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구하십시오. 분명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내해야겠지만, 이는 여러분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은 더 좋은 고용 기회를 잡도록 여러분을 준비시켜 줍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축복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도록 해 줄 것입니다. 평생 학습의 길로 들어서게 해 줄 것이며, 무지와 오류에 맞서 싸울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가 가르쳤듯이, "지식은 암흑과 불안과 의심을 없애 주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 곳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 지식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9] "그들이 하나님의 권고에 귀 기울일진대, 학식을 얻음은 좋으니라."[10] 교육은 결혼을 포함한, 앞에 놓인 미래에 대해 여러분을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또 한 번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결혼으로 가는 길은 데이트라 불리는 영역을 지납니다! 데이트는 더 긴 대화를 나눌 기회가 됩니다. 데이트를 할 때에는, 서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십시오. 가능하다면, 서로의 가족에 대해 배우십시오. 두 사람의 목표는 양립할 수 있습니까? 서로가 계명, 구주, 신권, 성전, 부모 됨, 교회 부름, 타인을 위한 봉사에 대해 서로 같은 것을 느낍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성공 또는 실패를 맛볼 때, 분노를 절제하고자 할 때, 일에 차질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데이트 상대는 타인을 무너뜨립니까, 아니면 고양시킵니까? 그 혹은 그녀의 태도와 언어, 행동이 여러분들이 매일 봐도 좋을 그런 종류의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완벽한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결혼합니다. 올바른 결혼이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 내 배우자가 될 그녀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십 대 내내 단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데이트하면서 다른 흥밋거리나 활동 때문에 결혼을 늦추지 마십시오. 왜 그렇겠습니까? 데이트와 결혼은 종착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이르고자 하는 그곳에 가기 위한 관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11]

지금 여러분의 책임은 미래의 배우자와 결혼하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배우자가 건전하고 매력적이며, 정직하고, 행복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만약 자신이 이미 그런 사람이지만 아직 미혼이라면, 인내하십시오. 저는 주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아시며, 그분께 충실히 헌신하는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께는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으며, 이생에서든 다음 생에서든 그 계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영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께 권고하려 하지 말고, 그의 손에서 권고를 얻기 힘쓰[십시오]."[12] 이생에서 혹은 장차 올 세상에서 그분의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13]

가진 것이 충분치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훌륭한 교회 회원은 최근에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돈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신앙으로 키웠지요." 이 말에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을 행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신앙 위축증"이라 부르는 어려움을 겪게 되실 것입니다. 신앙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힘이 사그라들 것입니다. 신앙을 매일 행사하면, 여러분은 "점점 더 강하여지고 …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점점 더 굳건하[게]"[14] 될 것입니다.

결혼에 준비되어 있기 위해, 반드시 성찬을 취하고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해집시오. 규칙적으로 성전에 가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교회 부름에 봉사하는 것 외에도,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15] 구주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자, 이제 눈앞에 놓인 선택에 관해 진지한 고민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청년 성인 시절에 저는 부모님과, 충실하고도 제가 신뢰하는 조언자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신권 지도자였고, 다른 한 분은 제 가능성을 믿고 계신 스승이셨습니다. 두 분 다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언을 원한다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게." 저는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안녕을 마음으로 바라는 이들 중 몇 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히 정하여, 조언자로서 삼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의 조언은 주의하십시오. 지금 상태보다 더 훌륭하게 되고자 한다면, 손을 옆으로 뻗지 말고 *위*로 뻗으십시오![16]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 위로 손을 뻗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만이 여러분을 들어 올려 주고, 크나큰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순종하겠다는 여러분의 다짐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구주의 속죄 희생은 여러분을 위한 일이었으므로, 힘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17] 여러분에게는 선택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얻는 강한 간증이 있으며, 또한 여러분은 영의 인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 제작자인 한 청년은 스스로가 "잃어버린 세대", 즉 "희망이나 기쁨, 성취를 찾고는 있지만, 이를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찾는"[18] 세대의 일원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주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많은 축복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과 선택, 상황을 주의 깊게 돌아봐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기적은 성경에 간단하게 한 구절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19] 여러분도 그처럼 스스로를 돌이켜 보라고 권해도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저희는 자주 평의회를 엽니다. 가족 평의회도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개인 평의회"라 부르는 것을 열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 보십시오.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삶의 어떤 영역을 더욱 강화하면 다른 사람들도 강화할 수 있게 될까? 앞으로 1년 후에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자 하는가? 2년 후에는? 그 목표에 도달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기억하십시오. 조종사는 여러분이며, 비행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은 성신의 위로하는 손길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저의 간증을 전합니다. 또한 구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특별한 간증을 전합니다. "[주의] 이 위대한 대업에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겠느냐? 전진하고 물러서지 말라."[20] 여러분이 주님을 따를 때, 그분께서 여러분을 지지하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높은 여러분의 본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05:35.
2. 니파이후서 25:4 참조.
3. 창세기 39장 참조.
4. 니파이전서 2장 참조.
5. 마태복음 2장 참조.
6. 교리와 성약 78:18.
7. 교리와 성약 88:63 참조.
8. 교리와 성약 11:12, 14.
9.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65쪽.
10. 니파이후서 9:29.
11. 창세기 2:24.
12. 야곱서 4:10
13. 교리와 성약 38:30.
14. 힐라맨서 3:35.
15. 사도행전 10:38.
16. Boyd K. Packer, *Teach Ye Diligently* (1975), 145 참조.
17. 교리와 성약 58:28 참조.
18. Nathan Clarkson, in Emma Koonse, "'Confessions of a Prodigal Son' Writer Says 'We Are All Prodigals,' Modern Retelling of Story Aimed at Millennials," *Christian Post*, Jan. 26, 2015, christianpost.com.
19. 누가복음 15:17.
20. 교리와 성약 128:22.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보라 네 어머니라

인간이 지닌 그 어떤 사랑도, 자녀를 향한 헌신적인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에 근접한 것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감미로운 유대에 합류하게 되신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님과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님과 데일 지 렌런드 장로님, 그리고 그 아내분들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마음을 모아 환영합니다.

이사야는 구주의 속죄에 관해 예언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1] 위대한 후기의 시현은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 세상에 들어오셨나니"[2]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고대 및 현대의 경전은 모두 "그가 그들을 구속하였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업어 주었고 그들을 안고 다녔느니라."[3]라고 간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찬송가는 우리에게 "구조자의 소리 [들으라]!"[4]라고 간청합니다.

짊어지다(bear), *감당하다(borne)*, *안고 다니다(carry)*, *구조해 내다(deliver)*. 메시야를 묘사하는 강력하고도 희망찬 말들입니다. 또한 이 단어들에서는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곳으로, 그러나 주님의 손길 없이는 도달할 수 없을 그러한 곳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리라는 도움과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은 짐과 고난, 노고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조차 없는 대가를 치르시어 우리가 실패했을 때 들어 올려 주시고, 힘이 다했을 때 우리를 안고 나아가시고, 안식처가 아득히 멀어 보일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집으로 구조해 주시는 그분의 사명을 매우 적절히

묘사해 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십자가 위에 들리게 하심이요, … 내가 … 들렸던 것같이 사람들이 … [내게] 들림을 받아[야 하느니라]."[5]

그러나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또한 이 *짊어지다(bear)*, *감당하다(borne)*, *안고 다니다(carry)*, *들어 올리다(lift)*, *수고하다(labor)*, *구조해 내다(deliver)*라는 말이 주로 사용되는 또 하나의 대상이 떠올려지십니까? 속죄를 행하시는 중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6]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연단에서, 전에도 언급했던 한 가지 사실을 선언합니다. 인간이 지닌 그 어떤 사랑도 자녀를 향한, 헌신적인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에 근접한 것은 없습니다. 이사야는 구주를 묘사하면서 여호와의 사랑을 이해시키고자 헌신적인 어머니의 이미지를 차용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7]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시라도 잊으시리라는 생각은 그 정도로 터무니없는 것임을 이사야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고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8] 그중 가장 고무적인 말은 바로 그 충실함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않으리라]"[9]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산들은 떠나고 작은 산들은 옮기울지라도, 나의 친절함은 네게서 떠나지 아니 [할 것이라.]"[10] 우리의 어머니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어머니들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실(bear: 이 단어는 낳다, 짊어지다, 간증하다 등의 의미가 있다—옮긴이) 뿐 아니라 자녀를 도와 *함께* 그들의 짐을 짊어지십니다(bear). 출생 전까지 우리를 몸 안에 품고 다니고, 또 평생을 품어 주시는 그 보살핌은 참으로 엄청난 위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슴 아픈 예외의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어머니는 직관적, 본능적으로 이것이 가장 숭고한 형태의 신성한 책임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런 깨달음은, 특히 젊은 어머니들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 훌륭한 젊은 어머니는 제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인간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기에 그렇게 자유의 커다란 부분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걸까요?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기에 기꺼이 자신을 바쳐, 책임을 짊어진 채 약점과 근심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몇 번이고 그 일을 반복하는 걸까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랑이 아이가 생겼으니 내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걸까요? 어머니의 사랑은 신성한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당조차 하지 못할 경험에서부터 숭고한 경험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를 수없이 넘나드는 동안, 그런 사랑이 힘을 발휘할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상의 마지막 자녀까지 무사히 구원받는 걸 보고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나이다]'[11]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 힘이 지속될 것을 압니다."

이 격조 높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사업을 하며 목격한, 훌륭한 어머니의 영향력을 보여 주는 세 가지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제 첫 번째 이야기는 교훈적인 것으로, 어머니들이 쏟는 노력이 전부 훌륭한 결실을 맺지는 못함을, 그리고 그 노력은 어느 정도의 기다림을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50년 넘게 알고 지낸 저의 사랑하는 친구는 한때 자신이 참되다고 알던 교회를 떠난 채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를 위로했으나 무엇도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친구가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제프", 그가 말했습니다."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간에, 난 어머니를 뵐 생각을 하니 견딜 수가 없네. 어머니는 복음과

자식이 전부였어. 내가 어머니를 비통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나도 마음이 찢어진다네."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그 친구를 그의 어머니가 사랑의 팔로 따뜻하게 맞아 주었을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그것이 부모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점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비교해 봅시다. 예수 또한 세상의 죄를 지셔서 지치고 피곤하여 상한 심령으로 돌아가셨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의 시기가 닥쳐올 때마다 구주를 바라보고, 그분께서 "보라 네 어머니라"라고 하셨듯이, 우리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그분들이 우리의 죄로 인한 슬픔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합당하게 선교 임지로 갔으나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와 연관된 정신적 충격으로 스스로 조기 귀환을 선택한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여전히 합당했지만, 신앙은 위험해져 있었고, 정신적인 부담은 점점 더 무거워졌으며, 영적인 고통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음이 상하여 혼란과 분노를 느끼고 절망했습니다.

그의 선교부 회장님과 스테이크 회장님, 감독님이 그를 찾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축복하고 도움을 주며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영적인 고통은 오로지 개인적인 것이어서 그분들에게 다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사랑 많은 아버지도 온 영혼을 다해 아들을 도왔으나 고된 직장 환경 때문에 그 영적인 고통이 짓누르는 길고도 어두운 밤은 주로 이 청년과 그의 어머니 둘이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밤과 낮을, 몇 주, 몇 달, 몇 년을 함께 치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대부분은 청년의 것이었으나 때론 어머니도 겪어야 했던) 괴로움과, 또한 (대부분 어머니의 것이었으나 때론 청년도 겪어야 했던) 끝없는 두려움의 시간 동안, 어머니는 아들에게 간증하며('bear', 아름답고도 힘겨운 이 말이 다시 나오는군요)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교회와, 그리고 특히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녀는 아들에 대한 자신의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을 영속적인 사랑을 간증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존재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족이라는 두 요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영혼을 다해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울고, 또 울며 금식하면서, 비통한 마음을 토로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또 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오래 전에 아홉 달을 그랬던 것처럼,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아들을 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이 절망의 황량한 벌판을 헤어나도록 돕는 그 수고가 영원토록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친구들, 가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은 결의로 끈질기게 간구한 이 어머니는 아들이 다시 본향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자녀들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괴로워하는 모든 부모에게 주어지지는 않음을,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러했음을 압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겐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의 성적 성향은 누구나 추측할 수 있듯 기적처럼 갑자기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씩, 그의 마음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꺼이,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성전 추천서를 받았고 새벽 세미나리 교사 부름을 받아들였으며, 부름을 아주 훌륭하고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자발적인 요청과 교회의 큰 도움을 통해, 그는 주님을 위한 봉사를 마치고자 다시 선교 임지로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과 가족이 함께 문제를 극복하고 그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운, 가족들의 용기와 고결함과 결의에 저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큰 빚을 졌음을 알았지만, 자신이 가장 큰 빚을 진 분들은 바로 그의 인생에 메시야가 되어 준, 그를 품어 주고 안고 다니며 수고하여 도와주고 구조해 준 두 존재, 즉 그의 구속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굳건하고 늘 구원의 손길이 되며 정말로 성자와도 같은 자신의 어머니였음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히 3주 전 멕시코 멕시코시티 성전 재헌납 때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과 함께 그곳에 참석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리사 터틀 피퍼가 그 영감 어린 헌납 모임에 서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대로 서 있기가 다소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한 손으로는 장애가 심한 자신의 사랑하는 딸 도라를 지탱하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도라의 오른손을 잡고서, 제약에 묶여 있지만 영원히 귀한 이 하나님의 딸이 오직 자신과 하늘 천사들만 이해할 수 있는 신음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호산나"[12] 하고 외치며 하얀 손수건을 흔들 수 있게 하느라 애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곳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시며, 자녀의 인격 형성을 돕고,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브와 사라, 리브가, 라헬, 나사렛의 마리아, 그리고 하늘의 어머니,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데에서 여러분이 해 주시는 중요한 역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어머니들,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고난을 겪게 될 모든 분들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 속의 어머니들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화평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과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시온 산의 구원자들[13]이며, 여러분이 따르는 그분을 닮았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14]" 저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이보다 더 높은 경의를 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이사야 53:4.
2. 교리와 성약 76:41.
3. 교리와 성약 133:53; 또한 이사야 63:9 참조.
4. "애통하는 이스라엘", *찬송가*, 10장.
5. 제3니파이 27:14.
6. 요한복음 19:27.
7. 이사야 49:15 참조.
8. 모로나이서 7:45; 또한 고린도전서 13:4~7 참조.
9. 모로나이서 7:46; 또한 고린도전서 13:8 참조.
10. 제3니파이 22:10; 또한 이사야 54:10 참조.
11. 요한복음 17:4.
12. *History of the Church*, 2:427–28 참조.
13. 오바댜 1:21 참조.
14. 모로나이서 7:46; 또한 고린도전서 13:8 참조.

브래들리 디 포스터 장로
칠십인 정원회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가족은 영원하므로, 우리의 자녀가 길을 찾아가게 도와주기에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이 우리 자녀들의 체력과 시간을 앗아가려 들었지만, 오늘날의 세상은 그들의 정체성과 생각을 침해하려 합니다. 우리 자녀가 누구이고,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자 많은 유명 인사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가족을 세상의 모습으로 변모시키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해야 합니다. 매사가 그 결과에 좌우됩니다.

교회의 어린이들은 그들의 참된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노래를 부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날 세상에 보내 부모와 함께 살도록 가정을 주셨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우리에게 간청합니다. "길을 찾아가게 저를 도와주소서 … 나 비록 어려도 말씀해 주신 복음을 알게 해 주소서"[1]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지난 연차 대회에서, 지금 시작하여 앞으로 "의식적인 양육"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2] 지금은 고통받는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미리 아시고 경전을 통해 조언을 주셔서, 우리가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도울 방법을 알도록 해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몰몬경에서 구주께서는 니파이인에게 나타나 주위에 어린 아이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3] 그런 후 부모들에게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4]

'*보라*'라는 말은 영어로 *behold*, 즉

'바라보고 살피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부모들이 어린 자녀에게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부모들이 자녀의 신성한 잠재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길 원하셨던 걸까요?

우리가 지금의 자녀와 손자 손녀를 바라볼 때,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자녀가 교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구도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속해서 개종하도록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구주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지속적인 개종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큰 무리의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갈릴리 해변 근방에 모였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씨앗을 심는 이야기, 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5] 그분은 이를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6] 부모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듣는 것과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자녀가 복음을 단지 듣기만 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 마음에 있는 진리들을 없애도록 사탄에게 문을 열어 주는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도와 개종의 뿌리가 깊이 자리 잡게 한다면, 한낮의 열기 속에서 이생이 험난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무언가를 그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진리들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아마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진화한다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자녀는 다르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자녀에게 "꼭 망가진 레코드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구나."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아빠, 레코드가 뭐예요?"라고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시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이기에 앞서 실제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시온의 부모로서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가르치면서 기도로 인도를 구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 줄 것[입니다]."[7] 여러분이 배움의 과정을 진전시키면, "성신의 권능이 그것을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전[합니다]."[8]

헬렌 켈러의 이야기는 누군가가 이해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훌륭한 예입니다. 그녀는 맹인이자 청각 장애인이었기에 어둡고도 적막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때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헬렌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과 소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정오 무렵, 그녀는 헬렌을 바깥에 있는 물 펌프로 데리고 갔습니다. 헬렌의 한 손을 물이 나오는 곳에 대고 물을 끌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헬렌의 다른 한 손에 *W-A-T-E-R*(물)이라는 단어를 써 주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다시 썼습니다. *W-A-T-E-R*. 헬렌은 선생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 질 녘까지 헬렌은 30개의 단어를 배웠습니다. 몇 달이 채 못되어, 헬렌은 600개의 단어를 배웠으며, 점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계속 노력하여 학사 학위를 받았고, 보거나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9] 그것은 기적이었으며, 헬렌의 선생은 기적을 낳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에서 독신 성인 스테이크의 회장으로 봉사하던 중, 다른 훌륭한 교사가 맺은 또 하나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그 경험은 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느 특별한 화요일 저녁, 저는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희망하는 멕시코시티 출신의 파블로라는 청년을 접견했습니다. 저는 그의 간증과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에 관해 물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합당성에 관해 물었습니다. 대답은 정확했습니다. 실은 그 대답이 너무나 훌륭했기에, 저는 "이 형제는 내가 묻는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이군." 하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뜻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질문을 다시 하여 제가 뜻하는 바를 그가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정직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 청년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은 제가 "파블로 형제님, 형제님이 주 앞에 이처럼 정직하게 서도록 도와준 분이 누구죠?"라고 묻자, 그는 "제 아버지이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형제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군요."라고 제가 말하자, 파블로는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아홉 살 때, 아버지께서 저를 곁에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파블로, 나도 아홉 살이었던 적이 있단다.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닥칠 거야. 학교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을 보게 되고, 부적절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수도 있어. 아마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거다. 자, 이런 일이나 다른 어려운 어떤 일이 생기면 나에게 와서 이야기해 다오. 그러면 내가 그런 일을 헤쳐 나가도록 도와주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려 주마.'"

"그러면, 형제님이 열 살이었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외설물과 저속한 농담에 대해 경고하셨죠."

"열한 살 때는요?"

"중독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주의를 주셨고, 선택의지를 사용하는 문제를 상기시켜 주셨죠."

해마다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10] 가르쳐 아들이 단지 듣기만 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 아버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자녀는 우리가 그들을 가르칠 준비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자기가 배울 준비가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배운다는 사실을 파블로의 아버지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파블로의 선교사 추천서를 보내며 그가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파블로의 아버지가 훨씬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오는 길에, "파블로는 어떤 아버지가 될까?" 하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대답은 명백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의 아버지처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11]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를 여러 세대에 걸쳐 축복하시는 방식입니다.

파블로와의 경험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 저는 저의 네 딸이 모두 성장했고 또 당시 아홉 명의 손주들이 가까이 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애석했습니다. 그러고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파블로의 아버지가 파블로를 도왔던 것처럼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걸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동안, 영이 다음과 같은 심오한 진리를 속삭여 주었습니다. "이 중요한 과정을 시작하기에 너무 이르거나 늦은 때는 없느니라." 저는 곧바로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집에 일찍 도착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아내 쉐럴에게 자녀 모두에게 전화해서 꼭 해야 할 매우 중요한 말이 있으니 그들과 이야기해야겠다고 전해 달라 했습니다. 가족들은 너무 다급한 제 모습에 놀랐습니다.

우리는 먼저 큰딸과 사위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와 나도 너희 나이였던 적이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싶구나. 우리는 식구가 몇 안 되는 서른한 살 된 부부였지. 너희가 앞으로 겪을 만한 일들에 대해 이런 생각이 들더구나. 재정난이나 건강 문제로 고생할 수도 있겠고, 신앙에 위기가 닥칠 수도 있고, 그냥 삶이 힘겨울 때도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와서 말해 다오. 헤쳐 나가도록 도와주마. 자, 너희 생활에 매번 참견할 생각은 없다만, 우리는 언제나 너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얼마 전에 파블로라는 청년과 했던 접견에 대해 알려 주고 싶구나."

이야기를 들려준 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자녀이자 우리 손주가 이러한 중요한 진리들을 이해하도록 도울 기회를 너희가 놓치지 않았으면 싶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로서 제 가족이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도록 돕는 과정을 확립하는 데 주님이 바라시는 더욱 의미 있는 방법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이런 문구를 되새기곤 합니다.

오 시간이여, 오 시간이여, 그때로 돌이켜 다오,
아들딸 어렸던 그 시절로 단 하루만이라도 돌이켜 다오![12]

저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만, 이제 이것만은 압니다. 가족은 영원하므로, 우리의 자녀가 길을 찾아가게 도와주기에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독생자를 보내시어 지상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로써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있는 곳에 나도 있었나니, 이제 어떤 일이 닥칠지 알기에 헤쳐 나가도록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난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2. 러셀 엠 넬슨,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31쪽 참조.
3. 제3니파이 17:21 참조.
4. 제3니파이 17:23.
5. 마태복음 13:1~13 참조.
6. 마태복음 13:19; 강조체 추가.
7. 니파이후서 32:5.
8. 니파이후서 33:1.
9. "Anne Sullivan," biography.com/people/anne-sullivan-9498826; "Helen Keller," biography.com/people/helen-keller-9361967 참조.
10. 이사야 28:10.
11. 요한복음 5:19.
12. 엘리자베스 에이커스 앨런의 시,"Rock Me to Sleep," William Cullen Bryant, ed., *The Family Library of Poetry and Song*을 일부 수정함.

휴고 몬토야 장로
칠십인 정원회

시험받고 유혹받으나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받고 유혹을 받는 동안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의지를 행사하고 서로를 도울 기회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멋지고 완벽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존 테일러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선지자 조셉이 언젠가 십이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온갖 종류의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밖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시험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가슴 가장 깊숙한 곳의 마음과 소망을 시험하실 것입니다.'"[1]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이르면, 누구나 시련과 유혹에 부딪힙니다. 때로 이것은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지만, 성공적으로 넘어선다면, 우리에게 힘과 성장을 가져다줍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러한 짐들을 홀로 들지 않아도 됩니다. 앨마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하며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고자 하며"[2] 이 말은 우리가 서로를 도울 책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책임은 교회 부름이나 각종 임무, 친구 관계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부모, 배우자, 가족 구성원의 신성한 의무이기에, 또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기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도우며 짐을 가볍게 할 네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구주께서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라]"[3]고 하셨습니다. 한 예로, 우리는 상황이 허락하는 한 성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성전에 가는 것은 시간과 자원의 희생을 요구하며, 특히 긴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생은 처음의 '오 리'를 가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기, 가져가기, 가르치기"[4]라는 말의 의미를 알 때, 성전 의식을 위해 조상의 이름을 찾고 준비할 때, 색인 작업하는 것을 도울 때, 성전 봉사자로 봉사할 때,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하도록 도울 때, 비로소 우리는 나머지 '오 리'를 가는 것입니다.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제가 관리하던 지역의 한 스테이크는 성전 방문을 위한 대규모 당일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이 다니던 성전은 작았으며, 불행히도 12시간이 걸려 성전에 갔을 때는 하루 수용 정원이 초과돼 일부 회원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그 스테이크를 방문했고, 스테이크 회장님께 그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회원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방문한 한 형제님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 걱정 마세요. 저는 주님의 집에 있었고, 정원 벤치에 앉아 마음으로 의식들을 숙고했습니다. 나중에 안에 들어갈 기회가 오긴 했지만, 아내와 성전 인봉을 받으려고 성전을 처음 오신 다른 형제님에게 양보했습니다. 그 부부는 그날 두 세션에 들어갔지요. 주님께서 저를 아시고, 저를 축복하셨으니, 저와 주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웃으십시오. 이 작은 행동으로, 짐에 압도되거나 눌려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연차 대회 신권 모임 시간에 저는 새로 부름받은 총관리 역원 다섯 명 중 한 사람으로서 연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조 조직 회장단 자매님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긴장했고, 저의 새로운 부름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회중 찬송을 부를 때,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기분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건물 안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이 이쪽을 향해 서 있으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찬송가를 불렀는데, 또다시 누군가의 시선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십이사도들이 앉아 계신 줄로 눈을 돌려보니,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이 자리에서 완전히 몸을 돌려 저희 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회장님은 제게 활짝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 웃음은 어쩔 줄 몰라 하던 제 마음에 평화를 안겨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후에 다른 양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은 열두 제자를 부르고 성임하셨으며, 그 권세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들 사이에 서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새로 부름받아 성임된 그 열두 제자들도 자신의 새로운 부름에 압도되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예수께 기도할 때 예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더니, 이에 그 얼굴을 저들에게로 향하시고 미소하시니, 그의 얼굴 빛이 저들에게 비취매"[5] 지난 연차 대회에서 즉각적이고도 특별한 방법으로 제 짐을 가볍게 해 준 것은 단 한 번의 미소였습니다.

3.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푸십시오. 자신이 신권 소유자라면, 하나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받은 권능을 그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고통당하고 있거나 괴로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의 말을 전하십시오.

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 계획의 모퉁잇돌입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구속주께서 세상에 오신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내 보이신 크고도 놀라운 사랑"[6]에 대해 명상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면, 하늘 아버지의 더 많은 자녀들이 속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모든 것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범법과 질병과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을 짊어지셨습니다. 경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만물 아래로도 내렸던 것같이 높이 올랐고 그리하여 그는 만물을 이해하였다]"[7]고 가르칩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기나긴 외로움이든 대적의 유혹과 시험을 견뎌 내는 일이든 간에 선한 목자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8]

이 네 가지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 리'를 더 가십시오.

둘째: 웃으십시오. 여러분의 미소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셋째: 온정을 베푸십시오.

넷째: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십시오.

주님에 대한 제 간증을 전해 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 또한 살아 계십니다. 저는 주님이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 아버지의 계획을 지지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또한 저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살아 있는 선지자라는 것을 압니다. 몬슨 회장님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모든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시험받고 유혹을 받는 동안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서로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존 테일러,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31쪽.
2. 모사이야서 18:8.
3. 마태복음 5:41.
4. Quentin L. Cook, "Our Heavenly Father's Plan Is about Families"(RootsTech 2015 가족 역사 대회에서 전한 말씀, Feb. 14, 2015), lds.org/topics/family-history/fdd/plan-about-families-full 참조; 또한 lds.org/media-library/video/2015-07-01-find-take-teach 참조.
5. 제3니파이 19:25; 강조체 추가.
6. 교리와 성약 138:3.
7. 교리와 성약 88:6.
8. 마태복음 11:28.

번 피 스탠필 장로
칠십인 정원회

빛을 선택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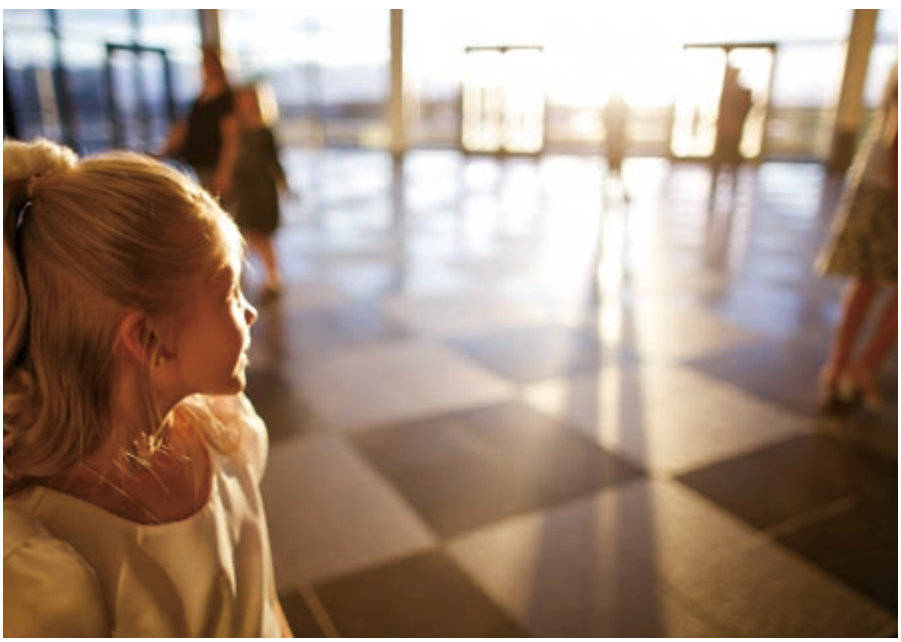
우리는 선지자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고, 성신의 속삭임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저는 몬태나 북서쪽에 있는 저희 집 주변의 훌륭한 자연 경관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몬태나와 아이다호 사이의 멋진 로키산맥을 가로질렀던 옛 철길을 활용해 만든 히아와타 길을 자전거로 여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친한 친구들과 함께 그 훌륭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리라 기대했습니다.

장장 24킬로미터에 달하는 장대한 여정에는 깊은 계곡을 잇는 철교와 바위투성이 산을 통과하는 길고 긴 터널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에 대비해서 자전거와 헬멧에 전조등을 장착했습니다.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은 다들 어두컴컴한 터널에 들어가면 아주 밝은 전조등이 필요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침내 태프트 터널의 바위로 된 거대한 입구에 도달했을 때, 그곳 관리인은 가장자리를 따라 깊게 패인 도랑과 울퉁불퉁하고 거친 벽, 빛 하나 없는 어둠과 같은 위험 요소들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성급히 터널로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단 몇 분 만에, 예상대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제 전조등은 밝기가 충분하지 못했는데, 그마저도 곧 어둠 속에서 위력을 잃었습니다. 순간 불안과 혼란스러움이 엄습했으며, 방향 감각마저 잃기 시작했습니다.

제 불안한 기분을 친구들과 가족에게 털어놓기엔 쑥스러웠습니다. 저는 경험 많은 사이클리스트이지만, 그 순간에는 마치 자전거를 처음 타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중되는 혼돈 속에서 자세를 바로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제가 느끼는 불편을 일행에게 고백한 후, 훨씬 더



밝은 전조등을 단 친구 옆에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 친구의 주변을 둥그렇게 밀착해서 달렸습니다. 서로의 불빛에 의지하고, 또 가까이 모인 모두의 전조등 빛이 합쳐지자, 어두운 터널 깊숙한 곳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시간들이 지난 후, 실낱 같은 빛 한 줄기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친구들의 불빛과, 점점 더 커져 가는 빛 줄기에 의지하며 저는 계속해서 힘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빛이 더 크고 환해질수록 서서히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터널이 아직 한참이나 남아 있었지만, 더는 일행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빛을 향해 자전거 페달을 더 힘차게 밟자 불안감도 가셨습니다. 아침의 장엄함과 따스함은 아직 제 앞에 있었지만, 저는 이미 고요함과 확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시험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전에 직면할 준비가 충분하다며 자신감이 넘칠 수도 있겠으나, 결국 준비가 부족했음을 깨닫곤 합니다. 또한 친구가 제게 어둠을 경고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적인 힘이 주는 강력한 빛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소리 높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마찬가지로, 신앙의 도전에 맞닥뜨리게 되면 당혹스럽고, 불편하고, 영적인 혼란도 느낄 것입니다. 대개 그런 감정이 얼마나 크고 강렬한가는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의심과 교만, 그리고 결국에는 배도가 빛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릴 것입니다.

터널에서 한 경험을 통해 저는 여러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심의 어둠이 얼마나 강렬한지에 상관없이 그것이 얼마 동안, 또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그분들의 도움을 구한다면 좌절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거센 파도가 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겪었던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차가운 어둠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끼자마자, 진퇴양난에 빠졌음을 알아채고 곧바로 도움을 구하기로 합니다. 구주의 권능이 그를 구하실 수 있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며, 그는 오직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1]라고 외쳤습니다.

구주께서 우리 삶에 뻗으시는 손길은 신뢰하는 친구나 지도자, 혹은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주는 도움으로서 오기도 합니다. 암흑 속에서 헤맬 때에는 우리를 사랑하며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빛에 잠시 의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왜 우리는 이 시대의 저 크고 넓은 건물에 속한 정체 모를 이들의 부정적인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간청은 무시할까요? 항상 존재해 왔던 회의주의자들은 향상시키기보다 무너뜨리기를, 고양시키기보다는 비웃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의 조롱하는 말들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면밀하게 의도적으로 왜곡한 전자 메시지를 통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삶에 파고들 수 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손에 우리의 영원한 복지가 좌우되게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진짜 의도를 숨기며, 나누어 줄 어떠한 빛도 없는 이들로부터 가르침을 구하는 것은 올바른 일일까요? 실제로 우리와 대면한다면 우리 삶에 한 치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이 익명의 개인들은, 감시를 피해 소셜 미디어를 교묘히 이용함으로써, 용납되어서는 안 될 공신력을 얻고 있습니다.

신성한 것들을 조롱하는 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속해 주는 구주의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2]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들은 우리가 신앙을 쌓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터널에서 그랬듯이, 의심이 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척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항상 누군가에게 힘을 주던 입장이었으나 지금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구주께서 베푸시는 평안과 빛은 자존심 때문에 잃어버리기엔 너무도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영감받은 교회 지도자와 부모님, 신뢰하는 친구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영적인 확신을 얻도록 언제든지 도울 것이며, 우리는 그 확신으로 신앙의 시험에 강인하게 맞서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자신에게 내재된

영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 반드시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언제까지고 타인의 빛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친구 옆에서 계속 페달을 밟으며 안전하게 무리 속에 있으면 언젠가 터널의 암흑이 걷히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한 것은 빛을 발견하여 스스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3]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약속, 즉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면 어둠에서 끌어올려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기억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적은 우리가 그러한 영의 영향력을 느껴 본 적이 없고, 그냥 노력을 관두는 게 더 편하다는 확신을 심어 주려 애쓸 것입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신앙을 의심하기 전에 여러분의 의혹을 먼저 의심해 보십시오."[4]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니는 와드의 한 청년은 최근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로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겠다 싶었던 것들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고결성입니다.

의심이나 질문에 봉착할 때면,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삶과 가슴에 스며들었던 영적 축복과 느낌을 기억하고,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친숙한 찬송가가 전해 주는 이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지난날이 입증해 주는 하나님 의심치 않나니."[5] 과거의 영적인 경험들을 무시하거나 가치를 깎아내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에 빛이 비칠 때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임한다면, 빛을 향한 우리의 탐구는 추진력을 얻을 것입니다. 현대의 경전에는 빛에 대한 정의와 함께 이를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주는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6] 저희가 빛을 향해 계속해서 페달을 밟았듯이, 우리가 계속해 나간다면 그분의 영향력은 우리 삶에서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터널 끝의 빛처럼 그분의 영향력은 자신감과 결의, 평안을 주며,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분께서 살아 계심을 아는 힘을 부여할 것입니다.

셋째, 빛이 절대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짙고 험하며 힘겨운 어둠은 없습니다. 최근에 닐 엘 앤더슨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악이 자라날수록, 의로운 이들을 위해 그에 대항하는 영적인 힘이 증가합니다. 세상이 영적인 안전 지대에서 벗어날수록, 주께서는 그분을 찾는 이들을 위한 길을 준비하시며, 더욱 큰 확신과 승인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여정에서 취해야 할 영적 방향성에 대한 더욱 확고한 자신감을 주실 것입니다. 성신의 은사는 마치 황혼이 짙어질수록 대조되어 더 밝아지는 빛과도 같습니다."[7]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향하는 변화나 변덕에 휩쓸려 가도록 홀로 내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의심을 넘어선 믿음을 선택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둠에 대항할 약속된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선지자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고, 성신의 속삭임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주의 빛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14:25~31 참조.
2. 요한복음 8:12 참조.
3. 교리와 성약 88:63 참조.
4.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와서 우리와 함께합시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23쪽.
5.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 *찬송가*, 6쪽.
6. 교리와 성약 50:24.
7. Neil L. Andersen, "A Compensatory Spiritual Power for the Righteous"(브리검 영 대학교 교육 주간에 전한 말씀, Aug. 18, 2015), speeches.byu.edu.

제임스 비 마르티노 장로
칠십인 정원회

주님께 의지하면 응답이 주어지리라

순종하고, 영을 느꼈던 순간을 상기하며, 신앙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십 대였을 때, 어느 날 저녁에 저희 부모님은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며 이를 알리셨습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선교사들과 만나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그 자리에 함께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깜짝 놀랄 소식을 들은 후, 저희 형제들도 선교사들에게서 복음을 배우기 시작했고, 동생들은 모두 기쁘게 회복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일기는 했지만,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기도해 보라는 과제는 받아들여 실천해 보았으나,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의아해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분명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모로나이의 약속이 틀림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복음의 참됨에 관해 기도할 때 응답하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의도"와 "진실한 마음"[1]을 품을 때에만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 주시고자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의문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답을 찾고 도움을 얻도록 이끌어 줄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계시의 영은 우리 마음의 의도와 상태에 따라 옵니다

저는 경전에서 찾을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예로, 레이맨과 레뮤엘은 니파이처럼 "훌륭하신 부모에게서 태어나" "부친의 모든 학문으로"[2]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친이 환상을 보는 사람이라며 불평했습니다. 레이맨과 레뮤엘의 시각에서 보면, 아버지의 선택은 비상식적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며,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3]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신앙을 쌓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선택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과 재산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광야를 여행하며 고초도 겪었습니다. 나중에는 배 만드는 일을 돕고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데에도 동의했습니다.

니파이 역시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행동으로 그들의 신앙이 커졌습니까? 니파이의 신앙은 굳건해졌지만, 레이맨과 레뮤엘은 더 분개하고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천사를 보고 그 목소리까지 들었으나 그 두 형제는 안타깝게도 의심을 그치지 않았습니다.[4]

필멸의 삶은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경험을 쌓고 시험받기 위해 이 지상에 왔습니다. 삶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자주 우리의 간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레이맨과 레뮤엘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버지가 어려운 일을 시키면 불평을 했습니다.[5] 놋쇠판을 얻으려는 시도에서 실패하자 바로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 태도는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린 할 만큼 했어."[6]

한때는 그들도 자신의 잘못을 슬퍼하며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7] 그들은 기도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전에는 그 후에 그들이 다시 불평하는 태도로 돌아가 더는 기도하려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니파이에게 가서 "[그들의] 아버지께서 …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노라."[8]고 말했습니다. 니파이가 "주께 물어보았[는지]"[9] 물었을 때 그들이 한 대답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묻지 않았노라. 이는 주께서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심이니라."[10]

지속적으로 순종하면 응답이 옵니다

니파이가 형들에게 한 이 대답은 기도에 대한 지속적인 응답을 받는 열쇠가 됩니다.

"당신들이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은 어찜이니이까? 당신들이 당신들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멸망하려 함은 어찜이니이까?

당신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시나이까? –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의 계명을 지키며 받게 되리라고 믿으며 신앙으로 내게 구할진대,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알려지리라."[11]

제가 아는 몇몇 귀환 선교사들은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몇 가지 영적인 습관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때를 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귀환 선교사들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일 너희가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자 느꼈다면, 내가 묻고자 하노니,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12] 만약 현재 그런 느낌이 없다면, 다시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니파이의 조언을 기억하면 됩니다. 순종하고, 영을 느꼈던 순간을 상기하며, 신앙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응답을 받고, 구주의 사랑과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비록 바라는 방식으로 오지 않거나 원하는 만큼 빨리 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레이맨과 레뮤엘을 모사이야의 아들들과 비교해 봅시다. 두 무리의 청년들 모두 의로운 가정에서 자라났으나 복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회개하라는 천사의 외침도 들었습니다.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겪었던 것은 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시련은 신앙을 강화합니다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선교 사업에서 경이로운 성공을 거뒀습니다. 수천 명이 주님의 길로 개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선교 사업을 막 시작하던 시기에 그들의 마음이 "낙심하여, 바야흐로 되돌아가려 하였을 때 …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신]" 일을 자주 잊습니다. 그들은 또한 주님께 "네 고난을 인내로써 견디라."[13] 라는 권고도 받았습니다.

경전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들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의심하고 투덜거리는 대신 신앙과 결심을 굳건히 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진리의 지식에 있어 강해져 있었나니, 이는 그들이 온전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부지런히 경전을 상고하였음이더라."[14] 우리 모두는 시련을 겪고 의문도 느끼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쇠막대를 계속하여 굳게 잡[아야만 합니다.]"[15]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 일러 주[시기]" [16]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경전 공부를 하루 일과의 일부로 삼아야 하며, 그렇게 하면 계시의 문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금식과 함께 하는 기도는 계시를 불러옵니다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그들은 많은 기도와 금식에 힘썼었고 그리하여 예언의 영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어, 가르칠 때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가르쳤[습니다.]"[17]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는 영의 속삭임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목적 의식을 가지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멀리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줍니다.]"[18] 기도와 금식을 함께하면, "[우리가] 부를 때 …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내가 여기 있다"[19]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순종과 경전 연구, 기도, 금식을 포함한 개인적인 복음 습관은 모사이야의 아들들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 습관이 부족한 것이 레이맨과 레뮤엘이 불평과 의심의 유혹에 취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의심이 자라나며 시련이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느낀다면,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복음으로부터 돌아섰거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변명하고 있다면,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생각에 평강을 말하[신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보다 무슨 더 큰 증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20] "나는 예전만큼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부디,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이제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이후 마침내 저는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던 선교사님이 침례받을 준비가 되었느냐며 물어보셨던 때가 생각납니다. 저는 아직도 알고 싶은 것이 몇 가지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교사였던 그분은 자신의 대답을 듣기 전에 먼저 제가 그분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몰몬경이 참된지, 그리고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알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의문들이 저의 신앙을 키워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응답들을 한 번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을 시험하기에 이르며",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하[기]" 시작했을 때, 몰몬경이 "[제게] 기쁨을 주기 시작"하고, "이해력을 밝혀 주[었으며]" 진실로 "[저의] 영혼을 크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저는 경전에서 말한 "가슴 속에서 부풀기 시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21] 그때가 바로 제가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제 삶을 헌신하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진실로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압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음을 압니다. 물론 아직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제 간증은 저를 구주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며 신앙을 강화해 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니파이와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신앙 안에서 행하여 응답을 받고 더욱 충실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를 레이맨과 레뮤엘이 의심하고 불평했던 것과 대조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끔은 보람된 일을 했을지라도, 신앙이 없는 행동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신앙과 그에 따른 행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모임에 참석하는 동안, 여러분이 마음속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또는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영감 어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 해답이 영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심어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그분께 의지하면,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로나이서 10:4.
2. 니파이전서 1:1.
3. 니파이전서 2:11~12 참조.
4. 니파이전서 4:3~4 참조.
5. 니파이전서 3:5 참조.
6. 니파이전서 3:14 참조.
7. 니파이전서 7:20~21 참조.
8. 니파이전서 15:7.
9. 니파이전서 15:8.
10. 니파이전서 15:9.
11. 니파이전서 15:10~11.
12. 앨마서 5:26.
13. 앨마서 26:27.
14. 앨마서 17:2.
15. 니파이전서 8:30.
16. 니파이후서 32:3.
17. 앨마서 17:3.
18. 이사야 58:6.
19. 이사야 58:9.
20. 교리와 성약 6:23.
21. 앨마서 32:27~28 참조.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강화되어

속죄로 말미암아 구주께서는 지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 내도록 도우실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 생활에서 죽음과 죄의 짐을 필연적으로 겪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필멸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이 두 문제를 상쇄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과 죄 외에도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다른 여러 문제에 봉착합니다. 이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가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I.

경전에서 속죄에 관한 대부분의 기사는 구주께서 죽음의 사슬을 끊고 우리 죄로 고난을 당하신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나 앨마는 몰몬경에 기록된 설교에서 이런 필수적인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앨마는 또한 경전을 통해 구주께서 당신 백성의 고통과 질병과 연약함도 몸소 겪으셨다는 확신을 분명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앨마는 구주의 속죄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에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앨마서 7:11; 또한 니파이후서 9:21 참조)

생각해 보십시오! 구주께서는 속죄하시면서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분께는 갚아야 할 빚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에게 알려진 모든 죄책감과 슬픔, 고통과 굴욕, 모든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고통 등을 누적해 그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1]

구주께서는 왜 지상에서 이런 "온갖" 어려움을 겪으셨을까요? 앨마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그가]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앨마서 7:12).

예컨대,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구주께서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히브리서 2:18)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도 그와 비슷한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주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모두 겪으셨기 때문에 연약한 자가 더욱 강해지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2]

우리 구주께서는 "육체를 따라" 지상 생활의 모든 어려움을 온전히 겪으셨기에 "육체를 따라" 어떻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도울지 [즉 어떻게 위안이나 도움을 줘야 하는지를]" 아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고난, 심적 고통, 유혹, 괴로움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속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 때문에 구주의 속죄로 그분이 우리를 돕는 권능, 즉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줄 권능이 그분에게 부여됩니다.

II.

앨마서 7장에 나오는 앨마의 가르침이 다른 어느 구절보다도 속죄의 이 필수적인 권능을 가장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그 가르침은 그 외에도 경전 곳곳에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역 초기에 당신께서는 "비탄에 잠긴 자의 마음을 치유하시려고"(누가복음 4:18, 한글 성경에는 이 말이 누락되어 있음—옮긴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분이 사람들의 "병(연약함)"(누가복음 5:15; 7:21)을 고치신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몰몬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든 고난당하는"(제3니파이 17:9) 이들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일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마태복음8:17)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야께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이사야 53:4)을 지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이사야 41:10).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 두려워 말고 낙담 말아라
너희 주 하나님 나 함께하리라
힘주고 도우어 높이 세우리라
전능한 손으로 널 받들겠노라[3]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지상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13).

그러므로 속죄로 말미암아 구주께서는 지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 내도록 도우실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주의 권능이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고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이나 인내심을 주시어 그 연약함을 견디도록 도와주실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경전과 경험을 통해 압니다.[4]

III.

구주께서 경험하고 겪으신 지상에서의 이런 고통과 고난과 연약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고통과 환난과 연약함을 한 번쯤은 겪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겪는 어려움 외에도, 지상 생활은 고난과 심적 고통, 그리고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으로

구주께서는 우리를 돕는 권능, 즉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도울 힘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힘 또는 인내심을 줌으로써 우리를 도우십니다.

인종 차별과 편견은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고통스러운 낙담을 안겨줍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앞에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울증이라는 연약함은 매우 고통스럽거나 반영구적인 장애를 안겨줍니다.

고통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외상이나 그 밖의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고통과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 개인적인 책임이나 가족 관계, 또는 직업 면에서 실패도 겪습니다.

우리가 참되다고 아는 것을 배우자나 자녀가 거부하고 의의 길에서 벗어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상적인 비유에 나오는, 방탕한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특히 심적으로 아주 큰 고통을 겪습니다.(누가복음 15:11~32 참조)

시편의 저자가 말한 대로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시편 34:19).

그래서 영어 찬송가에는 이 참된 확신이 담긴 다음과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고치치 못하는 고통은 세상에 없네."[5] 우리를 고치는 것은 구주와 그분의 속죄입니다.

또래들은 행복한 관계 속에서 활동에 참여하는데, 정작 자신은 고의로 배제되는 것같이 보일 때, 그 거절당하는 기분은 십대들에게 특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민족 또는 인종적 편견은 청소년과 성인에게 또 다른 거절의 고통을 안겨 줍니다. 인생에는 실직이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과 같은 다른 여러 어려움이 따릅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지상 생활의 일부로서 뒤따르는 연약함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도 고통을 받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안고 태어납니다. 많은 사람에게 우울증은 고통을 주거나 영속적인 장애가 됩니다. 다른 괴로운 고난으로는 독신으로 지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구주께서도 이런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속죄를 통해 이를 견딜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세적 또는 영적인 삶에 중독보다 더 큰 해를 끼치는 장애는 없습니다. 외설물 또는 약물 중독 같은 것들은 죄가 되는 행동에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행동에 대해 회개를 했더라도 중독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를 초래하는 이런 중독 역시 구주에게서 오는 굳건한 힘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수감된 사람이 겪는 심각한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온 한 편지에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힘이 다음과 같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주께서 이곳 복도를 거니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곳 형무소 담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6]

저는 시인이자 우리의 친구인 에머 루 테인의 간증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우리가 현재 찬송가로 부르는 노랫말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평안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세상의 모든 것 온전함 막고
분노나 악의로
마음 아플 때
어디서 내 영혼 찾을까

언제 어디서
고통이 자라
과연 어디로 뛰어가려나
어디서 내 번민 잠재우려나
그 누가 알 수 있나
오직 주님뿐[7]

IV.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도움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앨마는 구주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자기 백성*을 … 도울"(앨마서 7:11, 12; 강조체 추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에서 "자기 백성"은 누구일까요? 모든 필멸의 인간, 즉 속죄를 통해 부활의 실재를 누리게 될 모든 사람일까요? 아니면 의식과 성약을 통해 자격을 얻은 택함받은 종들일까요?

경전에서 *백성*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주가 "자기 백성"을 도울 것이라는 가르침에 언급된 그 '백성'의 의미는 암몬이 가르쳤던 다음 구절에 나오는 '백성'의 의미와 가장 잘 들어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땅에 있든지, 모든 백성을 생각하[시니라.]"(앨마서 26:37) 이는 또한 천사들이 아기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누가복음 2:10) 전했다고 이야기했을 때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주께서는 지상에서 속죄를 이루셨기에,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구주께서 그분 당신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야고보서 4:10). 우리가 구주를 믿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구주께서는 자신을 "만물 아래로 내렸[다고]"(교리와 성약88:6) 밝히셨습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이 가르치셨듯이 "자신을 '만물 아래로 내렸던' 그분은 인류가 겪어야 할 모든 고난을 완전하게 이해하십니다."[8] 우리는 그분이 자신을 만물 아래로 낮추셨기에 우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또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데 필요한 힘을 줄 가장 적절하고도 완전한 위치에 계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간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현대의 계시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내게 구하면 너희는 받게 될 것이요, 만일 너희가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예를 들면, 교리와 성약 6:5; 11:5; 또한 마태복음 7:7 참조)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하기에, 신앙으로 그분들을 찾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디모데전서4:10).

저는 이 모든 것이 참됨을 압니다. 구주의 속죄는 보편적인 부활을 통한 불멸을 보장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와 침례를 통해 죄에서 깨끗해질 기회를 줍니다. 구주의 속죄는 또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체험하신 그분께 우리를 치유해 달라고, 지상 생활의 짐을 짊어질 힘을 달라고 간구할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고뇌를 아시며,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다쳐 길가에 있는 것을 보시면 상처를 싸매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누가복음 10:34 참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있는 치유와 강화하는 권능은 간구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간증하며, 또 구주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언젠가는 지상의 이런 모든 짐이 사라지고 더는 고통이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요한계시록 21:4 참조) 우리 모두가 구주의 속죄에 들어 있는 희망과 힘을 깨닫기를, 즉 불멸에 대한 확신, 영생에 참여할 기회, 그리고 간구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지속적인 힘을 이해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보이드 케이 패커, "구주의 이타적이고 거룩한 희생", *리아호나*, 2015년 4월호, 38쪽.
2. 제임스 이 파우스트, "속죄: 우리의 가장 큰 희망,"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22쪽.
3. "굳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4. Jeffrey R. Holland, *Christ and the New Covenant: The Messianic Message of the Book of Mormon* (1997), 223–34;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필멸의 여정과 속죄" *리아호나*, 2012년 4월호, 12~19쪽; Bruce C. Hafen과 Marie K. Hafen, "'Fear Not, I Am with Thee': The Redeeming, Strengthening, and Perfecting Blessings of Christ's Atonement," *Religious Educator*, vol. 16, no. 1 (2015), 11–31, 특히 18–25; Tad R. Callister, *The Infinite Atonement* (2000), 206–10참조.
5. "Come, Ye Disconsolate," *Hymns*, no. 115.
6. 중부 유타 교정 시설의 헨리 지부를 감독하는 바비오 헤일즈 감독이 2014년에 받은 편지에서.
7. "내 평안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찬송가* 62장.
8. 닐 에이 맥스웰,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험을 미치사",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23쪽.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신앙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가 믿겠다고 결정할 때, 그리고 구하고 붙잡을 때 하늘에서 오는 은사입니다

구주께서는 주변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강한지, 혹은 약한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네 믿음이 크도다"[1]라며 흡족해하셨고, 또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2]라고 하시며 애석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3] 하고 물으셨고, 또 다른 이에게는 "[모든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4]라며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구주께서 내 신앙을 어떻게 보실까?" 하고 자문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에게도 여쭤 보고 싶습니다. "구주께서는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보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공중에 정처 없이 떠다니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연히 주어지거나 타고난 권리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경전에 나오듯이 "실상[이며] …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5]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빛을 발산하며, 우리는 그 빛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6]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가 믿겠다고 결정할 때[7], 그리고 구하고 붙잡을 때 하늘에서 오는 은사입니다. 신앙은 더 강해지지 않으면 더 약해지는 법입니다. 신앙은 이생뿐 아니라 휘장 너머의 진보에도 중요한, 힘의 원리입니다.[8]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9]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 브라질 청년의 신앙

한 달 전에 저는 브라질에서 아롤도 카바우칸치를 만났습니다. 그는 21세에 침례를 받아 가족 중에 첫 번째로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아롤도의 신앙은 밝게 타올랐고, 즉시 선교사 봉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어머니에게 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석 달 후,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에 가장 큰 걱정거리를 아롤도에게 토로하셨습니다. 이들에겐 도움을 줄 친척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동생과 두 여동생을 아롤도가 홀로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아롤도는 임종을 앞둔 어머니께 그렇게 하겠다며 엄숙하게 약속했습니다.

아롤도는 낮에는 은행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학에 다녔습니다. 침례 성약을 계속해서 지켰지만, 전임 선교사가 되겠다는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사명은 가족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아롤도는 성찬식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나무라며 말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10]라는 구절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선지자의 부름에 자신이 순종해야 한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장애물에 굴하지 않고 큰 신앙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아롤도는 브라질 화폐인 *크루제이로*를 할 수 있는 만큼 모두 저금했습니다. 그는 23세에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롤도는 남동생에게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 계좌에서 매달 얼마씩을 찾아야 하는지를 일러 주었습니다. 선교 사업과 동생들의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아롤도는 신앙으로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많은 축복 중 첫 번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카바우칸치 장로를 고용했던 은행이 약속했던 퇴직금의 두 배를 지급해 준 뜻밖의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 기적과 또 다른 기적들이 일어나 그의 선교 사업에, 그리고 그가 없는 동안 가족에게 필요한 소득을 충당해 주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카바우칸치 형제님은 브라질 헤시피 보아비아젱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시를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저는 구주의 사랑과 인도를 느꼈습니다. 제 신앙이 자랐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11] 아롤도의 신앙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온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깊은

두 자매와 남동생과 함께한 아롤도 카발칸테(왼쪽). 벽에는 어머니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기독교인이 많으며,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더 이상 중간에 서 있지 마십시오

하지만 형제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천사들을 통해 지상에 회복된 하나님의 권능인 하나님의 신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구별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는 중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사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기도, 순종, 정직, 순결한 생각, 행동, 이타심은 신앙을 키워 줍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신앙은 줄어들 것입니다. 구주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12]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며 즐거워하는 대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물러서지 말고 신앙을 지키십시오.

정직한 질문

정직한 질문을 하는 것은 신앙을 쌓는 일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지성과 감성을 모두 활용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13] 모든 답이 곧바로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다수 질문은 진지한 연구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답을 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을 통하는 것]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14] 예수께서는 우리를 돕고자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고, 그 보혜사를 "진리의 영"[15]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신앙은 절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제자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을 만큼은 안다."라고 인정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확신과 용기를 구합니다.[16]

신앙이 없거나 충실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얻은 답에 자극받아 끊임없이 의심에 빠져든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에 대한 신앙은 약해집니다.[17]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18]

예컨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의문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비판자들은 그에 대한 질문을 퍼부어 왔습니다. 거의 200년 전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한 사건이나 언급에 대해 21세기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며 거리낌 없이 질문을 던지는 신앙인들에게 제가 선의의 조언을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조셉 형제를 그만 놔둡시다! 훗날 언젠가는 지금의 인터넷 검색 엔진에 나오는 것을 모두 합한 것보다 백 배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지식일 것입니다.[19] 가난하게 태어나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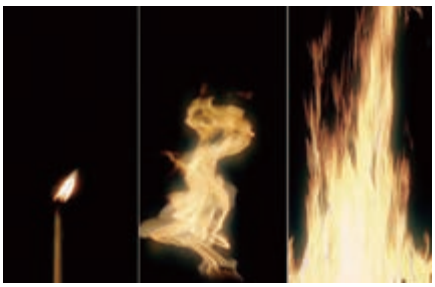
못한 조셉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숙고해 보십시오. 조셉은 90일이 채 못 되는 기간에 몰몬경을 번역했습니다.[20] 수만 명의 정직하고 헌신적인 남녀가 회복의 대업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조셉은 38세에 피로써 자신의 간증을 인봉했습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것을 정리하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키워 주는 선물

성경과 몰몬경, 이 두 책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확신을 심어 줍니다. 여기, 존 테일러 회장님이 1852년에 프랑스에서 성역을 시작하면서 출판했던 프랑스어 몰몬경 초판이 제 손에 있습니다. 지금은 몰몬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 세계 110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회복의 진실성에 대한 영적, 실체적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몰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셨습니까? 다시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커질 것입니다.[21]

우리의 신앙을 넓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인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분의 새로운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을 지지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라는 성스러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신 래스번드 장로님과 스티븐슨 장로님, 렌런드 장로님을 환영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 사도로, … 선지자로 … 삼으셨으니



시작하는 신앙의 불꽃이 작을지라도 올바른 선택은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자신감을 가지도록 해주고 신앙이 자라도록 돕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

… [속이고자 기다리는] 사람의 …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22]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인도가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첫 신앙의 불꽃이 작다 하더라도, 의로운 선택을 해 나간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지고, 신앙이 자라납니다. 지상 생활의 어려움이 엄습하고, 사악한 세력이 여러분의 신앙을 소멸시키겠다고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선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아들을 따를 때, 주님께서 더 큰 빛과 지식을 주시며, 여러분의 신앙은 굳건히 자리잡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 미래는 여러분의 신앙만큼 밝습니다."[23]

포터 오픈쇼, 제인 오픈쇼, 맥스 오픈쇼

우리 교회 청남들의 신앙은 놀랍습니다!

올해 6월 12일, 저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유타에 있는 한 와드의 감독님이 부인과 두 자녀와 함께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크 오픈쇼 감독님이 직접 조종해서 소형 비행장을 이륙한 비행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사고로 오픈쇼 감독님과 부인 에이미, 그리고 그들의 자녀인 태너와 엘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섯 살배기 아들 맥스는 비행기 좌석에서 비행기 밖으로 튕겨 나와 뼈만 부러진 채, 기적적으로 죽음의 화는 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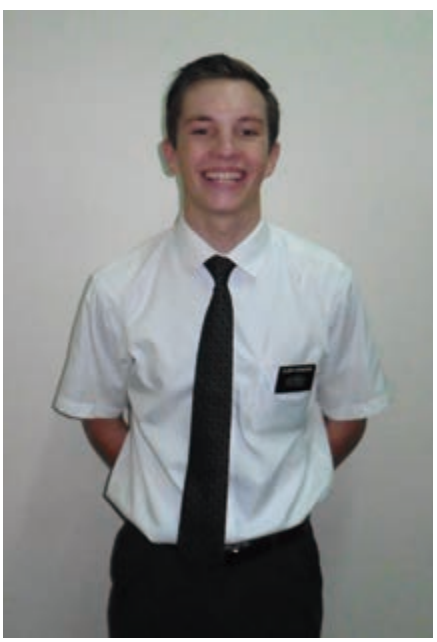
저는 두 분의 아들인 포터 오픈쇼 장로가 마샬 군도 마주로 선교부에서 봉사 중이고, 열일곱 살된 아들 제인은 교환 학생으로 독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섬에 있는 오픈쇼 장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픈쇼 장로는 부모님과 형제자매의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마음이 찢어졌지만, 곧바로 두 남동생에게로 걱정이 미쳤습니다.

오픈쇼 장로와 그의 동생 제인은 함께 고민한 끝에, 집 일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오픈쇼 장로 본인은 선교 사업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픈쇼 장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의 슬픔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타오르는 신앙의 불길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추호의 의심 없이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 시련 속에서도 힘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분명히 [저와] 동생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24]

저는 장례식에서 제인을 만났습니다. 저는 예배당에서 앞에 놓인 네 구의 관을 보고 있었고, 그때 이 17세 청남이 회중 앞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의 신앙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지친 영혼으로 제 아빠와 엄마, 태너와 엘리의 생애를 추모하고자 모였습니다.



포터 오픈쇼 장로는 마샬 아일랜드 마우로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울고, 함께 추모하고, 함께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

사고 소식을 들은 다음 날, 저는 가방에서 엄마가 쓰신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인, 네가 누구이고 또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렴. 우리는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너를 그리워할 거란다.'" 제인은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태너와 엘리, 아빠와 함께 … [제 형제들과]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분께서는 저를 여기에 보내셨고, 제 가족들은 제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도록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 우리가 아무리 외로움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25]

결과적으로 오픈쇼 장로와 그의 형인 제인(남동생 맥스와 함께 사진에 나옴)은 집 일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오픈쇼 장로는 선교 사업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셨을 것을 알았다.

소중한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태어나면서 시작되지도 않았고, 죽을 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을 강화하고,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구주의 칭찬을 듣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청결하고 순결하게 되어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15:28.
2. 마태복음 6:30.
3. 누가복음 8:25.
4. 마태복음 8:10.
5. 히브리서 11:1.
6. 앨마서 32:35 참조.
7. 엘 휘트니 클레이튼, "믿겠다고 결정하십시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36~39쪽 참조.
8. *Lectures on Faith*, (1985), 3 참조.
9. 에베소서 2:8 참조.
10. 사무엘상 15:22.
11. 카바우칸치와 나눈 개인적인 토론, 2015년 8월 29일, 브라질 사우바도르; 또한 2015년 8월 31일자 이메일. 어머니께 동생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한 아롤도 카발칸테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롤도는 여러 해 동안 동생들을 자신의 "아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선교 사업 기간에는 편지를 통해, 그리고 성탄절과 어머니의 날에 전화를 통해 동생들이 겪는 저마다의 어려움을 일일이 챙겼습니다. 아롤도는 선교 사업을 마친 후 남동생의 교육과 선교 사업을 위해 경제적 책임을 지려고 큰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결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32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애가 돈독한 가족입니다.
12. 누가복음 22:32.
13. 교리와 성약 8:2.
14. 고린도전서 2:11.
15. 요한복음 14:16~17.
16. 애덤 코터, "의심과 질문이 생길 때", *리아호나*, 2015년 3월호, 39~41쪽 참조.
17.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언젠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예수를 이해하기 위해 유다를 인터뷰하는 것처럼 오직 변절자의 눈을 통해 교회를 파헤치고자 고집합니다. 변절자들은 언제나 떠나온 곳에 대해서보다는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All Hell Is Moved"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Nov. 8, 1977], 3, speeches.byu.edu)
18. 고린도전서 2:14.
19. "저는 결코 제가 완전하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제가 가르친 계시에는 아무런 오류도 없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522쪽)
20. John W. Welch and Tim Rathbone, "The Translation of the Book of Mormon: Basic Historical Information" (Foundation for Ancient Research and Mormon Studies, 1986) 참조.
21. 후기 성도의 개종에서 핵심은 몰몬경에 대한 영적 간증입니다. 그것은 거듭하여 다시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간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영적 느낌은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한때 느꼈던 힘을 더는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들은 바 표적과 기사를 잊기 시작하며, 하늘로서 오는 … 기사에 점점 더 놀라지 않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그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그 생각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믿지 않기 시작하[고] … 그리스도의 교리가 어리석고 헛된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더라.]"(제3니파이 2:1~2)
22. 에베소서 4:11~14.
23. 토마스 에스 몬슨, "기뻐하라",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92쪽.
24. 포터 오픈쇼 장로에게서 받은 개인 이메일, 2015년 8월 23일.
25. 제인 오픈쇼 형제가 장례식에서 친지들에게 전한 말씀, 2015년 6월 22일.

랜들 케이 베네트 장로
칠십인 정원회

다음 한 걸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다음 걸음을 내디디라며 격려하고 계십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최근에 훌륭한 후기 성도들과 함께했던 모임에서 제 마음이 무척 애통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살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라는 질문에,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어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라는 질문에는 슬프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거의 모든 손이 내려갔습니다.

현재의 우리와, 우리가 되고자 하는 상태 사이의 차이를 인식할 때,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신앙과 희망[1]을 포기하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기]"[2]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다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죄 사함[3]을 받고 성결[4]하게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해내야 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5]가 있기에 우리는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만일 너희가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게 합당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리라"[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그것을 행사할 때 커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정에 도움이 될 세 가지 원리를 숙고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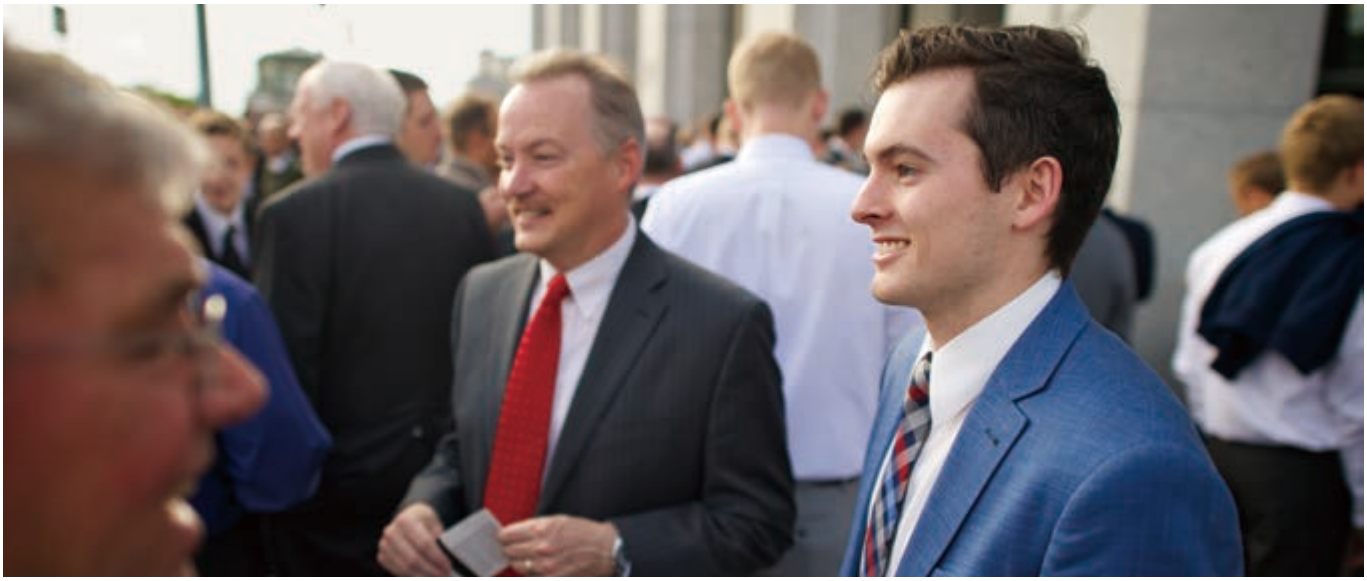
어린아이와 같이 됨

첫 번째 원리는 저희의 가장 어린 손자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기어 다니고 일어서는 법을 배운 후, 걷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번을 시도하며 이 아이는 넘어지고, 울고, "이제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냥 계속 기어 다닐 거야."라고 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아이의 사랑 많은 부모는 아이가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결코 걷지 못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팔을 활짝 벌리며 아이를 불렀고, 아이는 부모만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그 사랑 가득한 품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향해 극히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디딜 때, 사랑 많은 부모님께서는 언제든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그런 시도를 거듭하면서 발전하고 성공을 맛보리라는 것을 아십니다.

구주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7] 첫 번째 원리는,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때 했던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8]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과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만을 바라보며, 그분들을 향해 걸음을 떼고, 넘어지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 많은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기뻐하시며, 또한 넘어졌을 때에는 일어나 다시 도전하는 노력 하나하나를 기뻐하십니다.

신앙으로 행함

두 번째 원리는 간절히 영원한 동반자를 찾고자 했던 충실한 두 성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에 찬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러시아의 후기 성도인 유리 형제는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시간을 내어 성전을 향한 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기차에서 그는 환한 얼굴을 한 아름다운 여성을 보게 됐고, 그녀에게 복음을 나눠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던 그는 몰몬경을 펼쳐 읽으면서, 그녀가 한 번 쳐다봐 주기를 바랐습니다.

유리 형제는 마리야라는 이름의 그 여성이 후기 성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유리 형제가 교회 회원인 것을 모르는 마리야도 복음을 나누어야 한다는 속삭임에 따라 몰몬경을 읽으면서, 그가 이쪽을 한 번 쳐다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둘은 동시에 눈이 마주쳤고, 유리와 마리야는 상대방의 손에 몰몬경이 있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보로네시에 사는 유리 쿠테포프와 마리야 쿠테포프는 영원한 동반자로서 러시아 교회의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이 둘이 기꺼이 신앙으로 행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두 번째 원리, 즉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으로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걸음 내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실현되도록 해 주셨을 뿐 아니라, 약속된 축복을 그 이상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고자 *열망*하십니다. 사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서 십 분의 일만큼만 요구하시며, 그렇게 하면 하늘 문을 열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9]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기꺼이 행동하고 뒤이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특히 변화나 회개가 필요한 불편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필요한 힘을 축복받습니다.[10]

주님께서 우리를 그다음 걸음으로 안내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의 노력보다 더 많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모두 지키는 사람만이 아니라 기꺼이 "행하기를 구하는"[11]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힘을 받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는 여정을 표시하는 매주의 중요한 이정표가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찬식이라는 영원한 언약과 안식일 준수입니다. 지난 연차 대회에서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안식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주 안식일을 헌신적으로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12]

각 안식일에 우리는 "기꺼이 [그분]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13] 증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짐하면, 주님은 약속하신 죄 사함을 다시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14] 해 주십니다. 성신의 영향력은 우리를 향상시키고 강화하며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안식일마다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두 중요한 이정표를 통해 구주께로 마음을 돌릴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의 노력 이상으로 주십니다. 헌신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할 때, 우리는 땅의 충만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는 축복을 받습니다.[15]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역원 및 교회 본부 역원

제일회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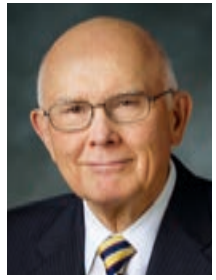
헨리 비 아이어링
제1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제2보좌

십이사도 정원회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렌런드

칠십인 회장단

엘 휘트니 클레이튼

도널드 엘 홀스트롬

리처드 제이 메인즈

크레이그 시 크리스턴슨

울리세스 소아레스

린 지 로빈스

게릿 더블유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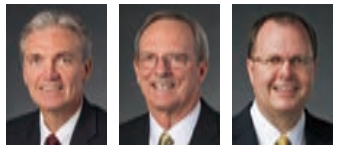
칠십인 총관리 역원

(알파벳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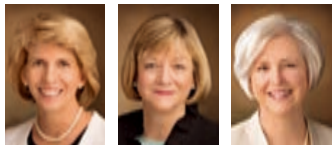
감리 감독단

교회 본부 역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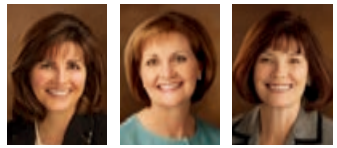
주일학교



청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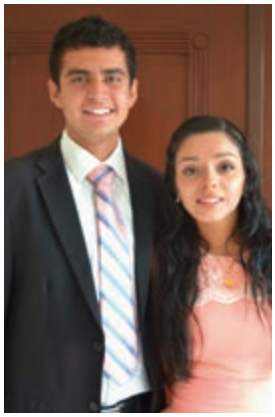
상호부조회



초등회

청남

시계 방향으로 왼쪽 위 부터: 노르웨이 드람맨; 칠레 아리카; 벨리제 벨리제 시티; 미국 조지아 아테네; 필리핀 카비테 카비테 시티;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우크라이나 키에프; 멕시코 듀랑고 베르메히요의 교회 회원들과 선교사들.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며, 주님의 집에서 우리는 자신을 위한,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구원 의식을 받는 축복을 누립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의식과 성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으로 들어가기 위한 신임장이 된[다]"[16]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언제나 합당하기를 바라며, 성전 추천서를 갖고 정기적으로 봉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극복함

세 번째 원리는 미루거나 회피하거나 포기하려는 육에 속한 사람의 습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17]

성약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며, 어떤 이들은 무수히 많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 중 일부는 스스로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느끼는 행동, 혹은 중독으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란 행동과 힘의 원리입니다.[18] 기꺼이 행하려할 때, 우리는 회개할 힘과 변화할 힘을 축복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실하게 앞으로 한 걸음 더 내딛지 않을 때에만 실패하게 됩니다. 충실하게 구주의 멍에를 멘다면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실패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으며, 우리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약속된 축복

신앙 가득한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늘의 도움이 임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주께 의지하며 그분을 따르고, 성신에게 귀를 기울일 때, 우리를 인도하는 손길이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19]이 있기에 우리는 힘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20] 주님이 우리를 위해 정하신 때를 믿을 때 지혜와 인내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있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따를 때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조된 이유는 "기쁨을 갖기 위함"[21]이고, 이 기쁨은 여러분이 합당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 돌아갔을 때, 그리고 그분들의 따뜻한 품에 안겼을 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증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들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다음 걸음을 내디디라며 격려하고 계십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그 한 걸음을 떼십시오.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로나이서 7:40~41 참조.
2. 니파이전서 10:21; 또한 모세서 6:57 참조.
3. 앨마서 5:21, 27; 교리와 성약 50:28 참조.
4. 모로나이서 10:32 참조.
5. 모사이야서 4:6:6~7; 앨마서 34:9; 모로나이서 7:41 참조.
6. 모로나이서 7:33.
7. 제3니파이 11:38 참조.
8. 모사이야서 3:19; 모로나이서 8:10 참조.
9. 말라기 3:10; 교리와 성약 41:1 참조.
10. 모로나이서 7:33 참조.
11. 교리와 성약 46:9.
12. 러셀 엠 넬슨,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29~132쪽 참조.
13. 모로나이서 4:3; 또한 교리와 성약 20:77 참조.
14. 교리와 성약 20:77.
15. 교리와 성약 59:9~10, 13, 15~16 참조.
16. 보이드 케이 패커, "성약", *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25쪽.
17. 모사이야서 3:19 참조.
18. *Lectures on Faith* (1985), 3 참조.
19. 모로나이서 7:33 참조.
20. 모로나이서 10:32 참조.
21. 니파이후서 2:25.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고,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행사하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상상도 못했던 광채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벨론과 다니엘

2,600년 전,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대국이었습니다. 한 고대 역사가는 바벨론을 둘러싼 성벽이 자그마치 높이 90미터에 폭이 25미터에 이를 정도였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위엄에 견줄 만한 도시는 아무 데도 없다."[1]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세상의 학문과 법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으며, 애굽의 힘을 꺾어 버렸습니다. 바벨론은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침공해 짓밟고 약탈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손쉽게 정복했고, 가장 뛰어나고 총명한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끌고 가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도 하였습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이란 소년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다니엘이 그 당시 12에서 17세 사이였으리라 추정합니다. 사랑하는 어린 아론 신권 소유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여러분 나이에 왕의 궁궐로 끌려가 세속적인 바벨론의 언어와 법과 종교와 과학을 배웠습니다.

고향에서 붙잡혀 가서 800킬로미터의 강제 행군 끝에 도착한 낯선 외국의 도시에서 적의 종교를 주입받는 사람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이 되십니까?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따르도록 가르침 받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경배했고, 선지자의 말씀을 공부했으며,

하나님이 인간과 교통하심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이자 생도의 신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옛 믿음을 버리고 바벨론의 믿음을 받아들이라는 압력이 매우 거세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말과 행동에서 자신의 신앙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인기 없는 진리를 수호할 때의 기분을 아실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쓰이는 영어 속어중에, 마치 불길에 던져지듯, 비난하는 사람들의 손에 던져져 화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flamed"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단지 대중의 조롱이라는 위험만 감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종교적 권위자들을 거스른 이들은 비유적으로, 또 문자 그대로, "불길에 내던져지는(flamed)"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경험은 이를 확연히 보여 줍니다.[2]

그런 상황에서 과연 다니엘이 믿는 자가 되기가 쉬웠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부터 믿는 마음이 쉽게 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은 마치 하늘의 은사처럼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니엘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간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니엘이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신의 의문과 두려움을 신앙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님께서 이해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다렸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은 다니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자신의 신앙으로 위협받고 조롱받긴 했지만, 다니엘은 경험을 통해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들에 계속 충실했습니다.

다니엘은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고, 그 꿈 때문에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는 학자들과 자문관들을 불러 모아

꿈 내용을 설명하며 풀이를 해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왕께서 요구하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라고 호소했지만, 이는 도리어 느부갓네살 왕의 화만 돋우었습니다. 그는 모든 지혜자와 박수와 술객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라 명했고, 다니엘과 이스라엘에서 온 다른 어린 학생들까지도 죽임을 당할 형국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록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청했고, 자신의 충실한 동반자들과 함께 *그들의* 신앙과 도덕적 힘의 근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삶의 이 중대한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늘의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3]

자신이 믿는 이상한 종교 때문에 괴롭힘과 박해를 받아 온 피정복국 출신의 소년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가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밝히고 그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했기에, 그 결과로 다니엘은 그날 이후 왕의 신뢰를 받는 자문관이 되었으며, 그의 지혜는 바벨론 전역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믿고, 신앙대로 살았던 한 소년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선지자가 되었고, 또한 의로운 통치자가 되었습니다.[4]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을 소유한 모든 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충실합니까?

우리의 종교 생활에서 언행이 일치합니까? 아니면 일요일에만 그렇습니까?

매일 하는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난 당하는 자"[5]를 돕습니까?

옳은 것을 말로만 합니까? 아니면 행동으로도 열심히 실천합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거룩한 진리를 배웁니다. 이웃을 돕고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돕도록 신권 권세를 받습니다. 또한 영적인 힘이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충만한 진리와 땅과 하늘에서 인봉할 신권 열쇠도 있습니다. 성스러운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도 주어졌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것들을 가벼이 여기지 맙시다. 이 축복과 특권에는 커다란 책임과 의무가 뒤따릅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이행합시다.

바벨론의 고대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찬란함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세속적인 면과 사악함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라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원리를 하루하루 실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압력에 미동하지 않고, 유행이나 거짓 선지자들에 휩쓸리지 않으며, 사악한 자의 조롱을 괘념하지 않고, 악한 자의 유혹에 저항하며, 자신의 태만을 극복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냥 바벨론 식대로 따랐더라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신 제약을 가하는 행동 강령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왕이 주는 산해진미를 먹고 육에 속한 사람의 세상적인 즐거움을 탐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롱을 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더 쉬운 길을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왕이 꿈을 해석하라 요구했던 그날까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더라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마찬가지로 빛과 지혜의 참된 근원과 다니엘의 관계는 단절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시험을 통과했지만, 우리는 아직 시험 중에 있습니다.

믿으려는 용기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우리가 실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 애쓰며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또한 의심하고 회의적이며 냉소적인 사람들은 지적이고 똑똑한 것이고, 하나님과 그분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 어리숙하고 눈이 멀고 세뇌당한 것이라며 교활하게 우리를 꾀어 냅니다. 사탄은 영적인 은사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것은 멋진 일이라며 부추길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머리로 *아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간단한 사실을 모두에게 이해시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경험은 때로 너무나 성스러워서 이 세상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실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영적인 만찬을 마련하셨고,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진귀한 음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냉소자들은 이런 영적인 은사를 누리는 대신, 멀리 떨어져 회의와 의심과 불신의 컵을 들이키며 방관하고 자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영적 지식의 찬란한 태양이 지혜로써 우리의 생각을 넓혀 주고 기쁨으로 영혼을 채워 줄 터인데, 그 누가 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이 가진 한낱 촛불 같은 이해력의 빛에 만족하며 인생을 살아가려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신앙과 믿음과 관련된 대화에서 "나도 당신처럼 믿을 수 있다면 좋겠군요."라는 말을 종종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사탄의 또 다른 속임수가 들어 있습니다. 누구는 믿음을 얻을 수 있지만 다른 누구는 그렇지 않다는 속임수 말입니다. 믿음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저 먼저 믿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6]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시며,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약간의 과학적 호기심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아야 하며, "아주 작은 신앙"[7]을 행사해 보아야 합니다. 또, 조금은 겸손해져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여는 것도 필요합니다. 말씀의 완전한 의미를 알기 위해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들 중 가장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 인내할 줄 알아야 하고, 주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믿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마치 밝은 조명의 플러그를 뽑고서는 조명 기구더러 왜 빛나지 않냐고 탓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저는 자신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한 한 아론 신권 소유자에 대해 듣고 깜짝 놀랐고,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게 나타나신다면 믿겠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제 앞길을 비춰 줄 저 자신의 이해력과 지성에 의지하며 진리를 찾겠습니다."

이 청남의 마음은 알 길이 없으나, 저는 그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얼마나 쉽게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거부해 버렸습니까! 이 청남은 조명의 플러그를 뽑고서는 '빛은 없다'라는 자신의 '똑똑한' 판단에 자족하는 듯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이런 태도가 상당히 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됨을 증명하는 일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형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냉소적 태도는 전혀 고상하거나 멋진 것이 아닙니다. 회의적 태도를 취하기는 쉽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충실한 삶을 살려면, 도덕적인 힘과 헌신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가사의한 의문이나 근심이 생길 때 신앙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이, 그저 마음에 의심부터 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멋집니다.

사회가 신앙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거부해 온 역사가 깁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아주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육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과 땅에는 [교과서와 과학 학술지와 세상의 철학에서]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8] 있습니다. 우주는 놀랍고도 심오한 경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오직 영적인 눈으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약속

믿고,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행사하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상상도 못했던 광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믿음과 신앙이 더 강해지며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9]

형제 여러분! 갈릴리의 붐비는 거리에서 안절부절못하는 한 아버지에게 하셨듯이, 구주께서는 우리가 가장 힘든 시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10]

우리는 믿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빛이 밝아 오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할 것입니다.[11]

화평을 찾게 될 것입니다.[12]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13]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은사로 우리는 신앙에 참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14] 처럼 영혼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참되고 영속적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15]

그렇기에,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저의 사랑하는 친구이자 형제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용기를 내어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다니엘처럼 되십시오.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각자가 새로워진 힘과 용기와 소망을 찾아,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Herodotus, *The History of Herodotus, trans. George Rawlinson*, 4 vols. (1875), 1:244.
2.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다.(다니엘 3장 참조)
3. 다니엘 2:19.
4. 다니엘 2장 참조.
5. 교리와 성약 52:40.
6. 사도행전 10:34~35 참조.
7. 앨마서 32:27.
8. William Shakespeare, *Hamlet*, act 1, scene 5, lines 167–68.
9. 교리와 성약 50:24 참조.
10. 마가복음 5:36.
11. 모로나이서 10:3~5 참조.
12. 이사야 26:3 참조.
13. 요한복음 6:35 참조.
14. 요한복음 4:14 참조.
15. 니파이후서 2:25 참조.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여러분은 이 대업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신권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님,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님, 데일 지 렌런드 장로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기도와 신앙으로 그분들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훌륭한 역량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 이분들도 부름에 대한 확신, 즉 주님께서 이 사업에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다시금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연륜 있는 대제사가 새로운 부름을 받을 때 그렇듯이, 새로 성임된 집사에게도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을 볼 때, 그런 확신은 더욱 커집니다. 자기 몫을 다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노력에 그분의 권능을 더하시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부름은 인간의 판단력과 개인의 역량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부름에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며, 그분께서는 그러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 성임받은 집사도 그것이 참으로 그러함을 배우게 될 것이며, 그는 몇 년에 걸쳐 계속해서 배워 나갈 것입니다.

제 손자 중 한 아이가 오늘 저녁 처음으로 신권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아이는 6일 전에 집사로 성임되었습니다. 제 손자는 자기 생애 첫 번째 신권 의무로 다음 주 일요일 성찬 전달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손자가 그 순간을 잘 이해하기를 기도합니다.

제 손자는 주님을 위한 자신의 일이 성찬식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찬을 전달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는 사람들이 단순히 빵과 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약을

지키며, 영생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 집사를 통해 성찬을 전달받는 사람에게 분명 어떤 영적인 경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일전에 한 요양원에서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한 집사가 허리를 굽혀 백발이 성성한 자매님께 성찬을 전달했고, 자매님은 성찬 빵을 보물처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빵을 취한 자매님이 손을 뻗어 집사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큰 소리로, "고맙구나!" 하며 웃음 짓던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집사는 단지 자신의 신권 의무를 수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주님은 그 집사가 행한 일을 배가하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집사의 봉사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분명 주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매님은 집사가 성찬을 가져다준 덕분에 영이 자신과 함께하리라고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요양원에서 자매님은 혼자가 아니었고, 겸손히 봉사하던 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론 신권을 지닌 어린 교사는 가정 복음 교육을 갈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인지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이제는 장성한 제 자녀들은 저희 집을 방문했던 한 어린 가정 복음 교사의 단순한 간증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영이 그의 말을 저와 저희 가족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 교사는 그날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교사가 제사로 부름받을 때, 주님은 그 청남의 노력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가령, 어쩌면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나이 어린 누군가에게 첫 번째 침례를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침례 기도와 침례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 봐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종인 그 제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에게서 침례를 받은 그 사람은 영생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그리고 그에 더하여 주님께서는 더 큰 부분을 맡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한 소년에게 침례를 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아이가 눈물 어린 얼굴로 제 귀에 "전 깨끗해요, 전 깨끗해요."라고 속삭였을 때도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신권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수년 전에 한 스테이크 대회에서 만난 장로 정원회 회장에게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 대회에서는 멜기세덱 신권을 받는 40여 명이 호명되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님은 몸을 숙여 제게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저 형제들은 모두 저활동 수련 장로들이었습니다." 놀란 저는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들을 활동화시켰느냐고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예배당 맨 뒤에 앉은 한 청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있군요. 대부분의 형제들은 저 장로 정원회 회장 덕분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부츠를 신고 두 다리를 포개어 앞으로 쭉 뻗은 채 평상복 차림으로 끝줄에 앉아 있는 젊은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모임이 끝나면 그 청년을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그런 일을 했다니 놀랍다고 치하하며,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잘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는 전혀 그 일을 자기 공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의 저활동 형제들과 다 아는 사이예요. 대부분이 픽업트럭을 몰죠. 저도 트럭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세차하는 곳에 가서 저도 세차를 해요. 그러다 보면 친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의 삶에 뭔가 잘못된 것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요. 문제는 항상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듣기만 하고 잘못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럼 친구들은 '내 삶이 뭔가 잘못되었어. 지금보다는 더 *나아져야 해*.' 하고 말해요. 그때 저는 무엇이 빠져 있고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죠. 때때로 제 말을 귀담아 듣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 오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렇게 겸손했던 이유를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은 작은 부분을 했고 주님께서 나머지를 채우셨음을 알았습니다. 문제를 겪는 저활동 형제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들에게 분명 더 나은 것이 있으리라는 느낌과 그것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주신 것도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주님의 종인 그 청년은, 자신이 작은 부분을 행하면, 주님께서 그 형제들이 본향으로 향하는 길을 따르게 하시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을 느끼게 해 주시리라 믿었을 뿐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제 몫을 다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자신을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부르셨음을 알았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이 젊은 장로 정원회 회장처럼 눈에 띄게 놀라운 성공을 거두지는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 일에서 제 몫을 하리라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당신이 권세를 부여한 종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제 증조부이신 헨리 아이어링의 선교사 봉사에서도, 주님의 종이 주시는 부름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 증조부는 1855년 3월 11일,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곧이어 에라스터스 스노우가 증조부를 제사 직분에 성임했고, 10월 6일에는 세인트루이스 스테이크 회장이었던 존 에이치 하트가 증조부에게 체로키 부족에게 가서 선교 사업을 하라는 부름을 주었습니다.[1] 증조부는 10월 11일에 장로로 성임받았고, 10월 24일에 말을 타고 체로키 선교부로 가셨습니다. 그때 증조부는 스무 살이었고, 개종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신권 소유자 중 자신이 자격이 부족하거나 덜 준비되었다고 느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제 증조부인 헨리 아이어링이었을 것입니다. 떠날 용기를 준 것은 오직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한 종들을 통해 자신을 부르셨다는, 마음속 믿음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에게 용기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신권 부름을 받건, 견뎌 낼 용기를 얻는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어링 장로는 3년간 힘겹게 봉사했고, 선교부 회장님이 돌아가시자, 1858년 10월 6일에 열린 모임에서 새로운 선교부 회장으로 지명되어 지지받았습니다. 그분은 깜짝 놀랐고, 마치 새로운 집사가 느낄 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 책임 있는 직분에 부름을 받다니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약점이 많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임을 알고 있지만, 형제님들의 뜻에 따라 기쁘게 그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2]

이제 선교부 회장이 된 아이어링 회장은 1859년에 체로키, 크릭, 촉토 부족이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노력을 도구로 삼아 "많은 새로운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두 지부를 조직했으나 "교회를 부지런히 찾고 지지하는 자들은 극히 드물다."[3]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년 후, 헨리는 자신이 봉사하는 곳의 정치 지도자들이 더 이상 후기 성도 선교사들의 선교 사업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숙고하던 중에 그분은 선임 선교부 회장이 1859년까지 선교 사업을 연장하라고 지시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4]

그해 10월, 증조부는 브리검 영 회장님에게 인도를 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증조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교회 회장단으로부터 아무 말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기도로 간구했고 선교 사업을 더 연장해야 할지, 아니면 시온으로 돌아가야 할지에 관해 주님의 생각과 뜻을 밝혀 주시기를 여쭈었다.

기도의 응답으로 나는 이런 꿈을 꾸었다. 꿈에서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한 나는 곧장 [브리검] 영 회장님의 집무실로 찾아가 그분을 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영 회장님! 제 마음대로 선교부를 떠나 여기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돌아가 선교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자 [꿈에서 영 회장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거기에 충분히 계셨으니 괜찮습니다.'"

증조부의 일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문자 그대로 실현된 꿈을 꾼 적이 있었던 나는 이번에도 이 꿈이 유타로 가라는 뜻이라고 믿을 만한 신앙이 있었다. 그래서 곧바로 유타로 갈 채비를 시작했다."

증조부는 대부분의 여정을 걸어서 1860년 8월 29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했고, 이틀 뒤에 브리검 영 회장님의 집무실로 갔습니다.[5]

증조부는 그 경험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 회장님을 찾아뵈었다. 그분은 아주 친절하게 맞아 주셨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영 회장님! 허락도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기꺼이 돌아가 선교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영 회장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괜찮습니다. … 형제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증조부는 자신의 기쁨을 "이로써 내 꿈이 말 그대로 실현되었다."[6]라고 표현했습니다.

증조부의 기쁨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일하셨으며 자신을 돌봐 주셨다는 확신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주님의 종은 주님의 뜻을 알도록 영감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점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헨리 아이어링은, 저 또한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 즉, 선지자는 신권의 회장으로서 주님께 영감을 받아 주님의 종들을 보살피고 염려하며, 또 그 종들을 부른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어떤 신권 부름에서 봉사하든, 때때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잘 모르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뜻을 알고자 기도할 수 있으며, 그분이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행하겠다는 진솔한 소망이 있을 때, 응답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느낌을 통해, 당신이 여러분을 아심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여러분의 봉사를 고마워하시며,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이 그토록 듣기 원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7]라는 말을 들을 만큼 여러분이 합당해지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

모든 신권 소유자들이 신앙으로 나아가, 각자 맡은 영혼을 모두 구조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의 노력에 권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감화되어 슬픔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모든 신권 소유자들이 신권의 부름을 수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을 사랑하고 염려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봉사하고 있다는 특별한 간증을 전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봉사하도록 부르셨을 때,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능력을 아시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셨음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일로 봉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때, 그분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우리의 노력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권의 회장인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충실한 신권 소유자들의 모범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는 여러분이 제 몫을 하고 계신 것에 고마워하십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살피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Minutes of the Conference," *St. Louis Luminary*, Oct. 13, 1855, 187 참조
2. Henry Eyring letter to Brigham Young, Oct. 7, 1858, Brigham Young Office Files,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3. Henry Eyring report to Church Historian's Office, Aug. 1860, Missionary Reports,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4. Henry Eyring letter to Brigham Young, Oct. 9, 1859, Brigham Young Office Files,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참조.
5. President's Office Journals, Aug. 31, 1860, vol. D, 137, Brigham Young Office Files,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참조
6. Henry Eyring reminiscences, 1896, typescript, 27–28,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7. 마태복음 25:23.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계명을 지키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과 다시 함께하게 되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들은 말씀들에서 우리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드릴 이 말씀에서 저 역시 인도를 받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전할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우리의 행복에 장애물이 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침을 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따르기만 한다면, 종종 험난하기도 한 이 필멸의 여정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것입니다. 친숙한 이 찬송가의 가사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안전과 평화 있네."[1]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등등의 말씀을 주셨습니다.[2] 우리는 계명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충만해지며, 덜 복잡해진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당면 과제나 문제를 더 쉽게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를 선택할 자유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기에,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리는 결정은 그 원대한 목표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만 합니다. 한데, 우리는 대적 또한 우리가

실패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것을 압니다.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우리의 의로운 소망을 저지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우리 역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단단히 결심하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중대하면서도 지속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3]

삶에서 유혹을 받지 않는 순간은 없지만, 청남 여러분은 특히 유혹에 취약한 연령대에 있습니다. 십 대 시절은 자주 불안정하며,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에 휩싸이고, 친구 관계에서 자기 자리를 찾고자 애쓰고, 잘 어울리려고 노력할 때입니다. 친구로 함께하고 싶은 이들에게서 인정받고 싶은 나머지 표준을 낮추거나 대중의 행동을 따르라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해지십시오. 영원한 축복을 앗아가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내리는 결정은 영원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4] 우리는 설득력 있는 소리, 속이는 소리, 비하하는 소리, 궤변 섞인 소리, 혼란을 일으키는 소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소리들은 *시끄러운* 소리라 칭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런 소리의 음량은 줄이고, 그 대신 여러분을 안전으로 인도해 줄 고요하고 작은 음성의 영향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은 후, 권세를 지닌 분이 여러분의 머리에 양손을 얹고 여러분을 교회 회원으로 확인하면서 "성신을 받으라"[5]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증거하는 그 특별한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영혼을 여십시오. 선지자 이사야가 약속했듯, "말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6] 하는 것이 들려올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그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줄, 이 위안과 인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의 역병이라 생각되는 것들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계명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에는 자유방임이라는 역병, 외설물이라는 역병, 마약이라는 역병, 부도덕이라는 역병, 낙태라는 역병 등이 있습니다. 경전에는 대적이 "이 모든 것의 창시자"[7]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모든 거짓의 아비[이며] … 사람들을 속이며 눈멀게"[8] 한다는 것을 압니다.

간청하건대, 이곳 지상 생활의 행복과 다가올 세상에서 누릴 영생을 빼앗는 것은 무엇이든 피하십시오. 그냥 내버려 둔다면, 대적은 그러한 속임수와 거짓말을 동원해 여러분을 미끄러운 파멸의 내리막길로 이끌어 멸망에 빠트릴 것입니다. 그 파멸의 비탈길에 들어서면, 멈출 방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적의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간교하게 말합니다. 이번 한 번은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하잖아. 고리타분하게 굴지 마. 세상은 변했어.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대적은 우리를 알고, 또 우리가 무시하기 힘들어하는 유혹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말과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선과 품위를 허물며, 인간이 만든 세상의 철학으로 그것을 대체하려는 은밀한 영향력과 날로 커져 가는 압력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실하고 참되게 남으려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계명을 만든 것이 인간이라면, 이를 취향이나 법률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 변경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일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계명을 무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명에 불순종하거나 이를 어길 때 오는 결과를 변경할 수 없듯이, 계명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할 때에야 비로소 이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사야 3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한 화평과 평안은 오직 의로움을 통해 올 수 있습니다.

죄와 관련해서, 우리는 조금도 해이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일에 "조금만" 발을 들여놓는 것은 괜찮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철의 손아귀로 우리를 움켜질 것이고, 이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극심한 고통이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약이나 알코올,

외설물, 부도덕에서 생길 수 있는 중독은 실질적인 것이며, 힘겨운 고투와 큰 도움 없이는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인생 여정에서 발을 헛디뎠다면, 제가 보장하건대, 돌아올 길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회개라 불립니다. 어려운 길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 있는 일이 그것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결단을 내려, 온전히 회개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지금 시작하시도록 촉구합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이사야가 말한 안전과 평안, 화평을 더 빨리 경험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남편과 함께 안전의 길에서 벗어나 계명을 어기고, 그 과정에서 가족마저 거의 파멸로 이르게 했던 한 여성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각자 중독이라는 자욱한 안개를 꿰뚫어 보고는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했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겼는지를 깨닫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 과정이 더디게 느껴지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은 신권 지도자의 도움과 가족 및 충실한 친구들의 도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자매님이 회개에 따르는 치유하는 힘에 대해 간증한 내용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되어 죄에 속박된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화평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완벽한 복음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그리고 저를 위한 그분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 암흑이 드리웠던 곳에 지금은 빛이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이 있던 자리에는 기쁨과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가능해진 회개로만 올 수 있는 변화로 한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된 선물을 여러분과 제게 주시고자 우리의 구주께서는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길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나, 그 약속은 참됩니다.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9]

"[내가] 다시는 [이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10]

우리는 평생에 걸쳐 계속해서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숙고함으로써 강한 간증을 키워야만 합니다. 복음과 구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간증이 굳건히 뿌리내릴 때, 그 간증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특별한 목적을 위해 오늘날 이 시기에 지상에 보내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아들임을 간증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곳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고 다른 이에게 봉사하도록 하나님의 신권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그 신권을 지니기에 합당하게 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형제 여러분, 부디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에 대한 보상으로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계명을 지키라", *찬송가*, 191장.
2. 출애굽기 20:1~17; 마태복음 22:39 참조.
3. 베드로전서 5:8 참조.
4. 고린도전서 14:10.
5.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20.3.10 참조.
6. 이사야 30:21.
7. 니파이후서 26:22.
8. 모세서 4:4.
9. 이사야 1:18.
10. 예레미야 31:34.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본이 되고 빛이 되십시오

구주의 모범을 따른다면, 다른 사람의 삶에 빛이 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 4월에 모인 이래로 사랑하는 세 분의 사도,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 엘 톰 페리 장로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을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남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본보기와 영감 어린 가르침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 사도가 되신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님,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님, 데일 지 렌런드 장로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분들은 주님의 사업에 헌신해 오셨고, 부름받은 이 중요한 자리를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들입니다.

최근에 경전을 읽으며 깊이 생각하는 동안, 저는 두 가지 성구가 특히 마음에 닿았습니다. 모두 우리 귀에 익은 성구입니다. 첫 번째는 산상수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1] 두 번째 성구는 첫 번째 성구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것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마음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2]

저는 첫 번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이 두 번째 성구가 상당 부분 설명해 준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마음과] 믿음과 정절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믿는 자의 본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빛이 다른 이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빛을 지니고 지상에 왔습니다. 구주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이 보여 주신 삶과 가르침대로 생활할 때, 그 빛은 우리 안에서 타올라 다른 이들의 길을 비춰 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의 여섯 가지 속성, 곧 우리 빛을 비추게 하는 속성을 열거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두 속성을 하나로 묶어 말씀드리자면, 바로 말과 행실에서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기운을 북돋우며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또는 해가 되거나 품위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는 가는 곳마다 저속한 말들이 넘쳐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듯합니다. 거룩하신 분의 이름을 생각 없이 함부로 내뱉는 것을 너무도 쉽게 듣습니다. 상스럽고 음탕한 말은 텔레비전과 영화, 책과 음악의 주된 요소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모욕적인 언사와 홧김에 내뱉는 말들이 오고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에게 사랑과 존중으로 말하고, 늘 깨끗한 말을 사용하며, 상처를 주거나 남을 화나게 하는 말이나 언급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내내 관용과 친절로 말씀하신 구주의 모범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언급한 두 번째 속성인 자애는

멕시코 듀랑고 베르메히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3]으로 정의됩니다. 저는 우리의 영향력이 미칠 만한 곳에는 분명 외롭거나 아프거나 낙담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돕고 기운을 북돋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구주는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연약한 이들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셨으며, 눈 먼 자를 보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은 성역 기간 내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우리가 구주의 모범을 따를 때,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이들의 삶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마음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제게 이 말씀은 삶에서 친절과 감사, 용서와 선의를 보이도록 힘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자질은 주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마음을 품게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런 마음을 지닌 수많은 사람과 함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과 함께 있을 때, 그분들과 함께하고 싶고, 또 그분들의 모범을 따르고 싶은 특별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순수하고 사랑이 깃든 마음에서 나오는 빛을 사람들은 잘 알아본다는 것을 보여 주는 저의 오래전 경험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루살렘 센터를 지을 토지 임차 계약을 마무리하고자 예루살렘에서 담당 관리들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필요한 허가를 받기 위해 교회는 센터에 머무는 우리 회원이 전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야 했습니다. 계약을 마친 후, 우리 교회와 회원들을 잘 아는 한 이스라엘 관리는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존중하리라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참석할 학생들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서 발하는 빛은 어찌 하시렵니까?"[4] 그 특별한 빛이 언제나 우리 안에서 반짝이기를,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인식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본이 된다는 말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는 믿음이 있으며, 또 그 믿음을 키운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시대의 혼란, 양심의 갈등 및 일상의 소란 가운데에서도 변치 않는 신앙은 우리 인생의 닻이 됩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신앙과 의심이 동시에 같이 있을 수는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신앙을 얻고 지키려면 반드시 경전을 읽고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대적과 그 추종자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빈틈, 즉 우리가 불충실해질 계기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찾으라. 항상 기도하라. 또 믿으라. 그리하면 … 너희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리라."[5]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절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몸과 마음과 영이 깨끗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과, 따라서 우리 몸을 숭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신을 고양하는 고상한 생각으로 차 있어야 하며,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성신을 변치 않는 동반자로 삼으려면, 합당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청결함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며 구주의 다음 약속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6]

말과 행실과 사랑과 [마음과] 믿음과 정절에서 본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자격을 얻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원리와 지침에서 세상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일반 대중과는 구별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숙한 복장을 하고 있어서 눈에 잘 띄고, 저속한 언어를 쓰지 않고, 몸에 해로운 물질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달라 보일 것입니다. 부적절한 농담과 품위를 떨어트리는 언어를 삼가기에, 우리는 다를 것입니다. 부도덕하고 품격을 낮추며, 가정과 삶에서 영을 멀어지게 하는 대중 매체로 마음을 채우지 않기로 결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 보일 것입니다. 도덕성과 관련된 선택, 즉 복음 원리와 표준에 맞는 선택을 하기에, 우리는 단연코 눈에 띌 것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곳에서 우리를 구별시키는 이러한 것들은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 세상을 밝힐 빛과 영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특이한 사람으로 군중 가운데 홀로 서서 자기 믿음을 고수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남들이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시편에는 위안을 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7]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둔다면, 확신에서 나온 용기가 두려움을 밀어낼 것입니다.

누구의 인생도 완벽하지 못하며,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너무도 엄청나서 우리의 빛을 희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의 길을 다시 밝힐 빛을 되찾고 빛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빛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래전에 읽었던 시의 감명 깊은 구절을 읊어 드리겠습니다.

밤중에 만난 낯선 이의
등잔은 꺼져 있었다
나는 멈춰 내 등잔으로
그의 등잔을 밝혀 주었고

얼마 후 찾아온 큰 폭풍우는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바람은 그쳤으나
나에겐 꺼져 버린 등잔만이!

그 낯선 이가 내게로 돌아왔다
여전히 환히 타오르는 등잔을 들고서!
그는 소중한 불꽃으로
내 등잔에 불을 붙였다![8]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우리는 주변에 날마다 빛을 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구주의 모범을 따른다면, 집안 식구든 친구든 직장 동료이든, 아니면 단순히 아는 사람이든, 또는 처음 보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타인의 삶에 빛이 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딸임을 모든 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구주의 사랑과 가르침을 되새기고, 자신의 빛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추기 위해, 그분의 면전을 떠나 한동안 이 지상에 살도록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을 다 한다면, 이 지상 생활이 끝난 후, 그분께 돌아가 영원히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9] 구주의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를 안심하게 합니까! 구주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 구주요 구속주이며, 아버지께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보기요 힘이십니다. 또한 "어둠에 비치는 빛"[10]이십니다. 제 말을 듣는 모든 분이 그분을 따르기로 다짐하여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5:16.
2. 디모데전서 4:12.
3. 모로나이서 7:47
4. 제임스 이 파우스트, "그들의 눈에서 발하는 빛",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20쪽 참조.
5. 교리와 성약 90:24.
6. 마태복음 5:8.
7. 시편 27:1.
8. Lon Woodrum, "Lamps," *The Lighted Pathway*, Oct. 1940, 17.
9. 요한복음 8:12.
10. 교리와 성약 6:21.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 간증은 여러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 확립되었고, 이를 통해 저는 우리 각자에 대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제 작은 간증을 나누도록 해 주신 제일회장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후기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찬송가의 가사로 지금의 제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주 내리신 큰 은혜에 나 당황하네
주 거룩한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
나와 같이 오만한 영혼을 살리려
주 하나님 넓으신 사랑을 베푸사
속죄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었네 …
주님의 업적은 훌륭하셔라![1]

며칠 전에 저는 제일회장단과 만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으로부터 이 부름을 받는 커다란 특권을 누렸습니다. 몬슨 회장님께서 "이 부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느낀 선지자의 힘과 사랑을 여러분 모두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께서 부드럽게 전해 주신 그 말씀의 중요성과 중대성을 생각하면 뼛속까지 떨리고 압도됩니다. 몬슨 회장님, 아이어링 회장님, 우흐트도르프 회장님, 저는 회장님들을 사랑하며, 제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해 주님과 회장님들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과 엘 톰 페리 장로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이 형제님들로부터 개인적으로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분들을 대신하기에는 제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그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함께 주님의 성역을 베푸는 일을 이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을 생각할 때, 저는 제일 먼저 헌신적인 제 소중한, 영원한 동반자 멜라니가 떠오릅니다. 오랫동안 제 아내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은 제자가 되도록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듯 저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내와 저희의 다섯 자녀들과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24명의 손주들은 사랑과 지원으로 저를 지지해 줍니다. 제 소중한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옛 니파이와 같이, 저는 훌륭하신 부모님을 통해 복음 안에서 태어났고, 그분들도 여섯 세대에 걸친 훌륭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선조 중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영국과 덴마크 출신이었습니다. 이 초기 개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모든 것을 바쳤고, 후손들이 따를 유산을 남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여러 세대를 거친 후기 성도 가족이 있음에 저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의로운 목표임을 압니다.

이 새로운 부름을 받기까지 제가 준비되는 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교회 지도자분들, 가족, 교사, 평생의 멘토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스턴 스테이트 선교부에서 전임선교사로 봉사했을 때 함께했던 이들과, 뉴욕 주 뉴욕 북 선교부에서 저와 함께 봉사했던 제 사랑하는 선교사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 인생에 영향을 주시고 오늘의 제가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칠십인 정원회에서 형제님들과 함께 봉사했던 시간들 또한 제겐 정말 소중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저는 사랑 넘치는 형제애를 느끼며 교회의 가장 훌륭한 정원회 중 한 곳에서 봉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종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정원회에 속하게 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 저는 회장님과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 한 분 한 분을 마음 깊이 사랑합니다.

아내와 저는 여러 임무를 통해 전 세계의 회원들과 선교부를 방문하는 축복을 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후기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저희의 신앙을 키워 주었고, 여러분의 간증이 저희의 간증에 더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간단한 메시지 하나를 전할 수 있다면,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혹은 누구라도, 어떤 선택을 내리든, 어떤 죄를 짓든, 어떤 실수를 저지르든 여러분이나 다른 이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분께서 사악한 행동을 용인하시거나 눈감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설득하고 봉사하고 구조할 때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이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인종과 계급, 상황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저는 언제 간증을 갖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때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경전과 복음 이야기를 읽으며 천사와 같은 어머니 슬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배우기 시작한 이래로 저는 그분들을 사랑해 왔습니다. 어렸을 때 생겼던 그 믿음은 이제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과 증거로서 성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 간증은 여러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 확립되었고, 이를 통해 저는 우리 각자에 대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주의 속죄에 감사드립니다. 앨마가 바랐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나팔로 외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3] 저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회복의 선지자이며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압니다. 또한 저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자 선지자임을 압니다.

선지자를 따르는 가운데, 저는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길, 그리하여 우리가 참으로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그 사랑에 대한 산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업적은 훌륭하셔라"라고 노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 111장.
2. 요한복음 13:34.
3. 앨마서 29:1 참조.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담백하고 귀중한 진리

우리가 고통하는 때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에 대한 관대한 보상으로서 우리를 때가 찬 시대에 살게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과 엘 톰 페리 장로님과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수십 년 동안이나 단상 바로 뒤에 앉으셔서 연차 대회 모임에서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추억으로 가슴이 시립니다. 저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세 분 모두 뚜렷하게 개성이 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증거와 간증에서는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라는 사실에서 힘을 얻으며, 그분을 지지합니다. 그분이 50년 이상을 사도로서 충실하고도 순종적인 봉사를 이어 오신 것은 저에게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9시가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감리 감독단이 연차 대회 때문에 이곳에 온 아시아 지역 회장단과 모임을 시작하려 할 때, 저는 몬슨 회장님과 그분의 보좌들과 접견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제가 그분의 사무실 근처에 있는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회장님이 저에게 긴장을 풀라며 친절히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면, 제가 아마 굉장히 경직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회장님은 제 나이를 언급하시면서 제가 꽤 젊어 보이며, 심지어 제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인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몬슨 회장님은 주님의 뜻에 따라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서 저를 부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이 부름을 받아들이겠느냐고 물으셨고, 소스라치게 놀란 저는 경망스럽게 '헉' 하는 소리를 내며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통 제가 부족하다는 느낌밖에 없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북받치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도 전에, 몬슨 회장님은 자신이 수십 년 전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께 사도 부름을 받았을 때, 본인 또한 부족하다고 느꼈다는 걸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침착하게 "스티븐슨 감독님, 주님께서는 그분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합당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실 것입니다."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런 위로의 말씀은 화평의 근원이,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폭풍 속에서 느끼는 고요함의 원천이, 그리고 접견 후 며칠 간 이어진 고뇌의 시간 속에서 따스함의 원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성전과 역사적인 태버내클의 평화로운 광경이 보이는 템플 스퀘어의 고즈넉한 한쪽 구석에 앉아 있던 제 사랑스러운 동반자 리사에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똑같이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이해하고 정리해 나가면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닻이 되어 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아내 리사에 대한 저의 깊은 사랑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제 삶의 햇빛이며 하나님의 훌륭한 딸입니다. 아내의 삶은 이타적인 봉사와 모든 이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점철됩니다. 저는 우리의 이 영원한 결합의 축복에 합당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제 네 아들 중 세 아이가 이곳에 와 있는데, 그 아이들도 제 여섯 손주들의 어머니인 자신들의 아름다운 아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저의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넷째 아들은 선교 사업 중인데, 특별히 허락을 받아 선교부 회장님 부부와 함께 대만의 선교 본부에서 선교사 통금 시간을 넘긴 지금 이 시간까지 잠들지 않고 이 대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 모두를 사랑하며, 그들이 구주와 복음을 사랑한다는 사실 또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포함한 제 가족 모두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아버지는 제게 간증을 심어 주신 분이며,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그 간증은 제 안에 뿌리내렸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의 형제자매, 그리고 그들의 충실한 배우자들, 그리고 리사의 가족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가족, 친구, 선교사, 지도자와 교사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칠십인,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누리는 축복을 받아 왔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제 사랑과 존경을 전하며,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합당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리 감독단은 마치 천국과도 같은 화합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제럴드 코세 감독님과 딘 엠 데이비스 감독님과, 또 여러 직원분들과 함께 일했던 하루하루가 많이 그리울 것입니다.

저는 교리와 성약 첫 편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음의 충만함이 연약한 자들과 단순한 자들에 의하여 [땅]끝까지 그리고 왕들과 통치자들 앞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니라."[1] 이 말씀에 앞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잘 드러나는 한 가지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땅의 주민들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였고, 그에게 명하였으며"[2]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여호와께서는[3] 이미 예견하신 재앙을 상쇄하고자 하늘과 새로운 경륜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고통하는 때"[4]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제게는 이것이 우리가 고통하는 때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에 대한 관대한 보상으로서 우리를 때가 찬 시대에 살게 하셨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번 주에 제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던 중에, 저는 저를 꾸짖으면서도 위안을 주는 분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복음의 담백하고 귀중한 진리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회원들과 비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수백 번도 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 함께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는 진지한 기도를 통해 그분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 아버지의 계획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5]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지상에 보내시어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이 담백하고 귀중한 진리에 대한 제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23.
2. 교리와 성약 1:17.
3. 아브라함서 2:8 참조.
4. 디모데후서 3:1.
5.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 (2004), 31쪽.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하려면 부모의 눈,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저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여성인 제 아내 루스와, 정말 사랑하는 우리 딸 애슐리에게 지지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 경륜의 시대 초기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됨을 보여 주는 충분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연약한 자들과 단순한 자들에 의하여 세상 끝까지 … 선포되게 하려 함이니라."[1] 저는 그 연약하고 단순한 자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 전에 제가 미 동부에서 와드 감독으로 부름받았을 때, 저와 나이 차이는 조금밖에 안 나지만 지혜는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제 형님이 전화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형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널 부르신 까닭은 네가 했던 일 때문이 아니란 걸 알아야 해. 네 경우에는 아마도 네가 했던 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걸 거야. 주님께서는 너를 통해 하셔야 할 일이 있으셔서 널 부르신 것이고, 그 일은 네가 그분의 방법대로 행할 때만 성취될 거야." 저는 형님이 제게 해 준 이 지혜로운 말이 지금 훨씬 더 잘 들어맞는다는 것을 압니다.

컨퍼런스 센터에 위치한 교회 회장들의 흉상

선교사가 그 부름이 자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분의 사업,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 관한 것임을 깨달을 때, 뭔가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사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름은 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분의 사업,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임무를 부여받거나 어떤 부름을 맡았든 간에 훌륭히 봉사하려면, 우리가 대하는 모든 이들이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음]"[2]을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전에 심부전 치료 및 심장 이식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심장병 전문의였기 때문에, 제가 맡은 환자 대다수가 중증 환자였습니다. 아내는 사람들이 제 환자가 된 것부터가 그들에게 안 좋은 징조였다며 농담 삼아 말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이 나빠질 때 감정의 거리를 두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슬픔과 실망감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1986년에 채드라는 젊은이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그는 10년 반 동안 잘 견뎠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정상인처럼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선교 사업을 했고, 일을 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더할 나위 없이 헌신적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을 마감하기 전 몇 년간은 굉장히 힘들었고 자주 병원을 드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심장이 멎고 혈류가 중단된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 왔습니다. 동료들과 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 그의 혈류를 재활시키려고 애썼습니다만, 결국 채드는 소생할 수 없음이 자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소용없는 노력을 멈추었고, 제가 그의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슬프고 실망스러웠지만 저는 의사로서의 태도를 유지했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채드는 보살핌을 잘 받았어. 이식을 안 받았더라면 얼마 살지 못했겠지만 이식을 받아서 꽤 오래 살았잖아.' 그러나 응급실에 들어와 들것에 누운 죽은 아들을 바라보는 그의 부모님을 보자 감정적 거리 조절이 곧바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그 부모님의 눈으로 채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아들에게 걸었던 큰 희망과 기대, 아들이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았으면 했던 소망을 보았습니다. 이를 깨닫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역할이 뒤바뀌어 채드의 부모님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친절한 행동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하려면 부모의 눈,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압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한 영혼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자녀에게 느끼시는 사랑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주의 사랑과 염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로하라는 성약의 의무를 절대 온전히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3] 이 확장된 관점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열고 타인의 실망, 두려움, 가슴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수년 전에 응급실에서 저를 위로해 주었던 채드의 부모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돕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그토록 자주 권유하셨던 구조하는 일을 해내려면, 우리에게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알고 느낄 수 있는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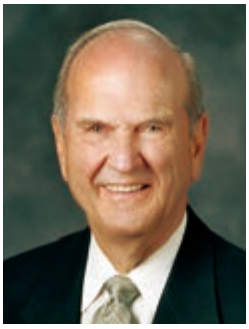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5]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이 사랑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몰몬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6]

제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7] 저는 그분을 사랑하며 흠모합니다. 저는 그분이 실제로 살아 계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자 메시야이심을 증거합니다. 저는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자비와 동정심과 사랑에 대한 증인입니다. 2000년도에 "예수님[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며] …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십니다."[8]라고 선언한 사도들의 간증에 제 간증을 더합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1820년에 뉴욕 주 북부의 한 숲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즉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함께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오늘날 지상에 존재하는 신권 열쇠는 구원과 승영의 의식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23.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1995년 9월 23일에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본부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말씀의 일부로 낭독함.
3. 모사이야서 18:8~10 참조.
4. 토마스 에스 몬슨, "구조대에게,"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57~60쪽; "구조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 *리아호나*, 2013년 10월호, 4~5쪽 참조. 몬슨 회장은 2015년 9월 30일에 총관리 역원들에게 전한 메시지에서 이 개념을 재차 언급했으며, 2009년 4월 연차 대회 때 총관리 역원 및 지역 칠십인 훈련 모임에서 말했던 자신의 메시지를 재강조하는 것임을 참석자들에게 상기시켰다.
5. 모로나이서 7:47.
6. 모로나이서 7:48.
7. 교리와 성약 18:27~28 참조. "그 열둘은 나의 제자가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름을 받들 것이니라. 또 그 열둘은 마음의 뜻을 다하여 나의 이름을 받들기를 원할 자들이니라. 그리고 만일 그들이 마음의 뜻을 다하여 나의 이름을 받들기 원하면, 그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느니라."
8.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3쪽. 여기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내 사인을 이 문서에 추가했다. 이는 내 간증이 그 사도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간증임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러셀 엠 넬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자매님들께 드리는 간청

우리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개종, 여러분의 확신, 여러분의 지도력과 지혜,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래스번드 장로님, 스티븐슨 장로님, 렌런드 장로님, 여러분의 형제인 우리는 십이사도 정원회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에게 주시는 계시에 대해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6개월 전에 연차 대회에서 만났을 때만 해도 온 교회가 마음 아파할 이런 변화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엘 톰 페리 장로님은 주님의 계획에서 결혼과 가족이 차지하는, 대체할 수 없는 역할에 관해 힘 있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에 우리는 그분이 머지 않아 암으로 우리 곁을 떠나시리라는 것을 알고서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지만, 주님의 사업에서 "용감한 병사"처럼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지난 4월, 몹시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그분은 숨이 다할 때까지 간증을 전하겠다는 결의에 차 계셨습니다. 그러다 페리 장로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34일 후에 패커 회장님도 휘장의 저편으로 가셨습니다.

지난 연차 대회에서 우리는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을 뵐 수 없었으나 그분이 이전의 여러 대회에서 전해 준 구주에 관한 힘찬 간증을 되새겼습니다. 스코트 장로님은 겨우 12일 전에 본향의 부름을 받고 사랑하는 아내 지닌과 다시 하나가 되셨습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이 사도들의 마지막 날들을 함께 보냈고, 패커 회장님과 스코트 장로님의 임종 직전에는 그분들의 직계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세 친구가, 이 위대한 주님의 종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그리워하는 제 마음을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이어진 이 일들을 반추하는 동안 제 뇌리를 떠나지 않은 것은 뒤에 남겨진 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의 침대 곁에 계시던 도나 스미스 패커 자매님과 바버라 데이턴 페리 자매님의 평온한 모습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두 분은 사랑과 진리와 순수한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곁에서 남편의 임종을 지키신 패커 자매님은 모든 지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발하고 계셨습니다.[1] 자매님은 거의 70년을 함께한 사랑하는 동반자가 곧 떠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신앙으로 가득한 여성의 평온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브리검시티 성전 헌납식에서 찍은 이 사진에서도 그렇듯, 자매님은 천사와 같은 모습이셨습니다.

저는 페리 자매님에게서도 그와 같은 사랑과 신앙을 보았습니다. 남편과 주님에

대한 자매님의 지극한 헌신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이 굳건한 자매님들은 남편과 보낸 마지막 시간을 통해,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약을 지키는 여성들에게 늘 나타나는 힘과 용기를 보여 주십니다.[2] 이런 여성들은 아내와 어머니, 할머니로서, 자매와 이모 및 고모로서, 교회의 교사와 지도자로서, 그리고 특히 신앙의 본보기이자 헌신적인 수호자로서 가족뿐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3]

아담과 이브의 시대 이래로 모든 복음의 경륜의 시대마다 늘 그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륜의 시대에 사는 여성은 다른 시대의 여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는 다른 경륜의 시대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4] 이런 차이에는 특권과 책임이 따릅니다.

36년 전인 1979년, 스펜서 더블유 킴볼 회장님은 성약을 지키는 여성들이 앞으로 주님의 교회에 미칠 영향에 관해 다음과 같은 심오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교회의 주요한 성장의 많은 부분은 세상의 훌륭한 여성 중 많은 사람이 교회로 이끌리게 되기 때문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교회의 여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의로움과 명료함을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교회의 여성들이 좋은 면에서 세상 여성들 사이에서 두드러지며 달라 보이는 정도에 따라 일어날 것입니다."[5]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킴볼 회장님이 예견하신 그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킴볼 회장님이 미리 보신 그 여성들이란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덕성과 빛, 용기와 성품, 신앙과 의로운 생활은 세상의 훌륭한 여성들을 그들의 가족과 함께 교회로 이끌 것이며, 그 수는 전례 없이 클 것입니다![6]

여러분의 형제인 우리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개종, 여러분의 확신, 여러분의 지도력과 지혜,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는 여성,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말할 수 있는 여성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온전하지 않으며 온전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7]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조직적인 여성과 조직할 능력을 갖고 있는 여성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지시하고 관리할 집행 능력이 있는 여성, 가르칠 능력과 언변이 있는 여성을 필요로 합니다. …

우리는 또 세상의 풍조를 간파하고, 인기는 있지만 얄팍하거나 위험한 것을 감지하는 분별의 은사를 갖고 있는 여성을 필요로 합니다."[8]

오늘 저는, 신앙으로 어떻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지를 아는 여성, 죄로 병든 세상에서 도덕과 가족을 용감하게 지키는 여성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덧붙이겠습니다. 우리는 승영에 이르는 성약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여성,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법을 아는 여성, 성전 엔다우먼트가 주는 힘과 평안을 아는 여성, 자녀와 가정을 지키고 강화하고자 하늘의 힘을 청할 줄 아는 여성, 두려움 없이 가르치는 여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평생 그런 여성들을 통해 축복을 받아 왔습니다. 먼저 간 제 아내 댄첼도 그런 여성 중 하나였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면에 아내가 미친, 인생을 바꿔 준 그 영향력에 언제까지나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중에는 제가 심장 절개 수술법을 처음 개발한 일도 포함됩니다.

58년 전, 저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위독한 어린 소녀를 수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오빠도 앞서 비슷한 병으로 사망한 터였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간곡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결과를 낙관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소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음에도 아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몇 년 후,

바바라 페리 자매와 엘 톰 페리 장로

그 부모님은 기형 심장을 갖고 태어난, 당시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다른 딸을 제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분들 부탁에 못 이겨 저는 다시 수술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역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가족에게 일어난, 이 가슴 저미는 세 번째 죽음 앞에 저는 말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비탄에 잠겨 집으로 돌아왔고, 거실 바닥에 엎드려 밤새 울었습니다. 다시는 심장 수술을 않겠노라고 거듭 외치는 동안 아내는 곁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다섯 시쯤에 저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다 우셨어요? 그럼 이제 옷 입고 다시 병원으로 가세요. 가서 공부하세요! 더 많이 배우셔야 해요. 당신이 지금 그만두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고통스럽게 배워야 할 테니까요."

아, 아내의 그런 예지력과 투지와 사랑만큼 제게 필요한 것이 또 있었을까요!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과 도나 에스 패커 자매

저는 일터로 다시 돌아가 더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내의 영감 어린 격려가 없었더라면 저는 심장 절개 수술 연구를 중단했을 것이며, 1972년에 스펜서 더블유 킴볼 회장님의 생명을 구한 그 수술을 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9]

자매 여러분, 영의 인도에 따라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할 때 여러분이 미치는 영향력의 넓이와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까? 어떤 훌륭한 스테이크 회장님은 어려운 문제를 논의했던 스테이크 평의회 모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느 시점에 그분은 스테이크 초등회 회장이 아직 발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 자매님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네, 말씀드릴 게 있어요."라고 하시더니 한 가지 생각을 나누어 모임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님은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말씀하는 동안, 영은 저에게 우리가 평의회에서 구하는 계시가 그녀의 음성을 통해 전해졌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자매님들의 부름이 무엇이고,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여러분이 받는 느낌, 통찰,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영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와드와 스테이크 평의회에서 자매님들의 더 적극적인 발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다스리는 일에 남편과 협력할 때 "*이바지하는 완전한 동반자*"[10]로서 목소리를 내는 기혼 자매님들이 필요합니다. 기혼이든 미혼이든, 자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독특한 능력과 특별한 직관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이 지닌 독특한 영향력을 흉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의 절정이 여성의 창조였다는 것을 압니다.[11] 우리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교회와 교회의 교리, 그리고 우리의 생활 방식에 대한 공격은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확고히 이해하며 그 이해를 활용해 죄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 세대를 가르치고 키워 내는 데 힘을 보탤 여성들이 필요합니다.[12] 모든 형태의 속임수를 감지할 줄 아는 여성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권능을 지니는 법을 알며, 확신과 사랑을 품고 자기 믿음을 표현하는 여성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머니 이브처럼 용기와 예지력이 있는 여성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영생에서 여러분 자신의 개종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타락해 가는 세상에서 점점 더 눈에 띄는 것은 사랑하는 제 아내 웬디 같은 여성, 즉 진정으로 개종하고 성약을 지키는 여성들의 의로운 삶입니다. 그런 여성은 *가장 행복한* 삶의 방식으로 두드러지고 남달라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자매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가정에서,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마땅히 여러분의 것인, 또 여러분이 해야 하는 역할을 다하십시오. 부디 킴볼 회장님의 예언을 성취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성신이 여러분의 영향력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확대해 주리라는 것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구속하고 속죄하며 성결하게 하는 그분의 권능이 실재함을 증거합니다. 그분의 사도 중 한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하며, 우리가 이 성스러운 일에 손잡고 동참할 때, 여러분께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함께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로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그레고리 에이 슈바이처 장로
칠십인

맑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세상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복음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지난여름에 아내와 저는, 딸 내외가 소속 스테이크에서 주최하는 개척자의 길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어린 두 손자를 돌보았습니다. 제 딸은 아들들이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피아노 연습을 꼭 하기를 바랐습니다. 아이들이 저희와 지내는 며칠 동안 연습하는 걸 더 쉽게 잊어버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열세 살 된 손자 앤드류가 연습하는 것을 옆에 앉아 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혈기 왕성한 앤드류는 야외 활동을 좋아해서 사냥이나 낚시로는 얼마든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피아노를 연습하면서도, 얼굴에는 가까운 강으로 낚시를 가고 싶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친숙한 노래 하나를 연주하는 걸 들어 보니, 그 아이는 건반을 하나같이 일일이 힘껏 눌러 가며 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음표를 같은 세기와 박자로 연주했기 때문에 선율이 분명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멜로디 음은 조금 더 힘을 줘 누르고, 반주하는 음은 조금 힘을 빼고 누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는 그저 놀라운 기계에 불과한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피아노는 그 아이의 목소리이자 감정의 연장선이 될 수 있으며, 놀라운 소통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여러 단어를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것처럼, 피아노 연주자가 여러 음표를 연주할 때에도 선율이 부드럽게 흘러야 합니다.

그 아이가 연습을 반복하는 동안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냥 뚱땅거리기만 하던 소리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점점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하자 앤드류의 얼굴에는

주

1. 빌립보서 4:7 참조.
2. 여기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생을 졸업할 때 그들을 위해 슬퍼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흘리는 눈물도 포함된다.(교리와 성약 42:45 참조)
3. 리브가가 이삭과 아들 야곱에게 미친 영향이 기록된, 창세기 27:46; 28:1~4 참조.
4. Joseph Fielding Smith, *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66), 4:166 참조. 이전의 모든 경륜의 시대는 세상의 일부 좁은 지역에만 한정되었고, 배도로 종결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경륜의 시대는 장소나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 경륜의 시대는 세상을 채우고, 주님의 재림의 때로 이어질 것이다.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킴볼* (2006), 222~223쪽.
6. 내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교회 회원은 60만 명이 채 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회원 수는 1,500만 명이 넘는다.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7.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부여하셨으므로 여러분은 권세로써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스미스 회장은 또한 상호부조회는 "수많은 일을 행할 권능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성스러운 권세로 행해집니다."("Relief Society—An Aid to the Priesthood," *Relief Society Magazine*, Jan. 1959, 4, 5쪽)라고 말씀했다. 이 말씀은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의 연차 대회 말씀인 "신권의 열쇠와 권세",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51쪽에도 인용되어 있다.
8. 보이드 케이 패커, "상호부조회", *성도의 벗*, 1979년 4월호, 10쪽; 또한 M. Russell Ballard, *Counseling with Our Councils: Learning to Minister Together in the Church and in the Family* (1997), 93 참조.
9. Spencer J. Condie, *Russell M. Nelson: Father, Surgeon, Apostle* (2003), 146, 153~156 참조. 주: 킴볼 회장님은 1964년에 나를 스테이크 회장으로 성별하시며 대동맥 판막 수술법을 개발하는 제 선구적인 노력으로 사망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축복을 주셨다. 당시 우리는 내가 8년 후에 기능이 불완전한 킴볼 회장님의 대동맥 판막 교체를 비롯한 수술을 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10. "결혼을 협동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완전한* 협동으로서의 결혼을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후기 성도 여성들이 영원한 책임에서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인* 협력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바지하는 완전한* 협력자가 되십시오."(스펜서 더블유 킴볼, "여성의 특권과 책임", *성도의 벗*, 1979년 4월호, 152쪽)
11. "창조의 신권 아치에서 종석인 여성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목적과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러셀 엠 넬슨, "이브로부터 배우는 교훈," *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94쪽) "이브는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물, 즉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놀라운 일의 원대한 최종 부분이 되었습니다."(고든 비 힝클리, "우리의 삶에서의 여성",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83쪽)
12. 러셀 엠 넬슨, "성약의 자녀",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33쪽 참조.

보조개와 함께 배시시 웃음이 번졌습니다. 음악이 전하는 메시지도 분명해졌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날 세상에 보내"[1] 제가 차이가 느껴지냐고 묻자 그 아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이제 느껴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소통을 악기에 비유하여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혹 피리나 거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2]

이 세상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복음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필요한 시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나팔 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확실히 우리의 가장 훌륭한 모범이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옳은 것을 수호하는 용기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세상에 빛이 되는 생활을 할 것을 명심하라고 권유하신 그분의 말씀은 수세기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에 그 시대의 권력자나 통치자들이 반론을 제기했을 때에도 두려움 없이 그에 대항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혼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말과 행동에서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에 순종하셨습니다.

저는 또한 베드로의 모범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세상 사람들에게 용기와 명료함으로 맞섰습니다. 그날, 여러 지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초기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여, 이를 비방했습니다. 영의 속삭임을 들은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3]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관한 경전상의 예언을 인용한 후,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간증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4]

많은 이들이 그의 말씀을 들었고 영을 느꼈으며, 3,000명의 영혼이 초기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보일 때라도, 기꺼이 간증하려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교리와 그분의 교회를 수호하고 그에 대해 강력히 증거하겠다고 결심할 때, 우리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영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가실 것이며 "[우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계실] 것이요, [그분]의 영은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천사들은 [우리]를 둘러 있어 [우리]를 받쳐 [줄 것입니다.]"[5]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교리가 현재의 세상 통념과 맞지 않을 때에도 그에 대해 변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6]라고 담대하게 선언한, 또 한 명의 용감한 제자였습니다. 참된 제자들은 주님을 대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굴하지 않고 그 일을 합니다. 참된 제자들은 사람의 마음에 인상을 심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영감을 주고자 열망합니다.

때로 그리스도를 수호하는 일은 간단하지도, 수월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바울이 아그립바 왕 앞에 불려 나와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 보라는 요청을 받았던 상황도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선포했으며, 위협을 가하던 왕도 그 때문에 자신이 "거의" 기독교인이 될 뻔했다고 시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대답을 보면, 자신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란 그의 열망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그립바 왕에게 자신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거의" 기독교인이 되기보다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것이 자신의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7]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수년간 몰몬경에 나오는 리하이의 꿈 이야기를 연구하면서,[8] 저는 항상 크고 넓은 건물을 아주 반항적인 사람들만이 있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건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쇠막대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는 충실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로 들어가 조롱하는 이들과 합류하기로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비판과 메시지에 대항하여 담대히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이 세상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 건물이 점점 커져 가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들이 크고 넓은 건물의 복도를 헤매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그 문화의 일부가 되어 버린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유혹과 그 메시지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함께 비웃고 맞장구를 치는 사람이 됩니다.

오랫동안 저는 조롱하는 무리가 충실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오늘날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어조와 접근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자주 교회 역사의 어떤 일면을 공격하거나, 선지자 혹은 다른 지도자를 날카롭게 비판함으로써 단순한 복음 메시지를 몰아내려 합니다. 또한 그들은 지구가 창조될 때부터 주어진 교리의 정수와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주님 교회의 회원으로서 절대 쇠막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에서 맑은 나팔 소리가 퍼져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 단순한 메시지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후기에 살아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 회복되었으며, 몰몬경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행복의 길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조직하고 밝히셨던 기본적인 가족 단위를 통해 옵니다. 이 메시지의 친숙한 멜로디는 많은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세에서 이미 그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후기 성도로서 일어나 간증해야 할 때입니다. 복음의 선율이 세상의 소음 위로 드러나야 할 때입니다. 이 세상의 구주이자 구속주께서 주신 메시지에 제 간증을 덧붙이겠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님의 복음은 회복되었으며, 우리는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고 그분의 길을 걸음으로써 이생에서 행복과 평화의 축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난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2. 고린도전서 14:7~8.
3. 사도행전 2:14.
4. 사도행전 2:36.
5. 교리와 성약 84:88.
6. 로마서 1:16.
7. 사도행전 26:26~30 참조.
8. 니파이전서 8장 참조.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저희가 항상 그를 기억함을

저는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그분의 삶을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초등회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지금 내 곁에 계시면 묻고 싶은
갈릴리 바다 걸어가신
재미난 일을 들려 줘요[1]

저는 자녀와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통을 시작하는 것이 가정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가정에 특별한 영을 가져올 수 있고, 가족들에게 구주의 모범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그분의 삶을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구주의 죄 없는 삶이 그려진 경전 구절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분께서 겪으신 일들이 담긴 성구를 읽은 뒤에는, 저를 가르치고 영적으로 강화해 주는 그 성스러운 순간들을 눈을 감고 마음속에 그려 보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을 말입니다.

-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자, 맹인이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던]"[2] 때.
-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주님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나을 수 있으리라 믿으며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분께서 여인을 치유해 주셨던 일.[3]
-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4]
-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경전을 이해시키셨을 때.[5]
- 주님께서 미대륙 백성들에 나타나시어,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온 땅의 하나님이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음"[6]을 알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나아와 당신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고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라고 하셨을 때.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부모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초등회 프로그램과 여러 기회를 통해 교회의 어린이들을 지켜보며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쳐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 자녀들을 가르칠 때 구주의 모범이 저와 사랑하는 아내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 자녀들이 저의 손주들에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볼 때면 참 기쁩니다. 그럴 때면, 제가 좋아하는 요한 3서 1장 4절의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손주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매주 일요일 구주를 기리며 성찬을 취하는 것에 관해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지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공부함으로써 안식일과 성찬식을 훨씬 더 즐길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신앙과 간증을 다지는 것은 물론 가족을 보호할 전통을 세우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지난 연차 대회에서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를 다시 공부하며 안식일에 관해 생각하던 중, 저는 성찬을 취하는 축복과 특권이 있음에 깊이 감사해했습니다. 성찬식은 저에게 매우 엄숙하고 성스러우며 영적인 시간입니다.

저는 성찬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숙고하면서, 빵과 물에 관한 축복을 주의 깊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성찬 기도와 성찬 의식에 관한 부분을 읽고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과 생각에 그와 관련된 사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명상 중에 저는 그 무교절의 첫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예수께서는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할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7]

저는 제자들이 장을 보고, 정성을 다해 그 특별한 날 그분과 함께할 식탁을 차리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 보았습니다. 그분과, 그분이 사랑하시는 열두 제자들까지 모두 열세 사람을 위한 식탁을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8]라고 하시며 제자들과 음식을 드시는 그리스도를 떠올리자 눈물이 나왔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9]라고 묻는 슬픔에 잠긴 제자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다가 같은 질문을 하자, 주님은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도다"[10]

저는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가르치신, 그리고 빵을 떼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11]라고 축복하신 그 손길을 마음속에 그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한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12]

제 마음속에 제자들이 하나씩 떠올랐고, 자신들이 더없이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염려가 가득 어린 그 눈망울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 곁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겪으실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찔린 듯 아팠고 말할 수 없이 슬펐습니다.

제 영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벅찬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회개하고 슬퍼하며,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흘리실 피를 제가 조금이라도 멈추게 하거나, 피하게 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 후, 저는 매주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며 취하는 성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빵과 물에 대한 축복문을 한 단어 한 단어 되새겨 보았습니다. 특히 빵을 축복할 때 쓰는 "항상 그를 기억하고"라는 말과 물을 축복할 때 쓰는 "저희가 항상 그를 기억함을"[13]이란 말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항상 그를 기억한다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숙고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 이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인, 구주의 전세에서의 삶을 기억하는 것.[14]
- 구주가 유대의 베들레헴에 있는 말구유에서 겸손하게 태어나셨음을 기억하는 것.[15]
- 구주께서 열두 살 소년 시절에 성전에서 선생들을 가르치고 설교하셨음을 기억하는 것.[16]
- 지상에서 성역을 베풀 준비를 하시고자 그분이 홀로 광야로 가셨을 때를 기억하는 것.[17]
- 구주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을 때를 기억하는 것.[18]
- 제자들과 함께하신 최후의 만찬에서

구주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를 기억하는 것.[19]

- 구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어 우리의 죄와 고통, 절망, 아픔을 위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으셨음을 기억하는 것.[20]
-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엄청난 고난과 극심한 고통을 겪으신 뒤, 구주께서 친구라 부르던 제자 중 하나가 그분께 입을 맞추고 그분을 배신했을 때를 기억하는 것.[21]
- 그분이 재판을 받고자 빌라도와 헤롯 앞에 끌려가셨을 때를 기억하는 것.[22]
- 구주께서 굴욕과 괴로움을 당하고 침을 맞고 살갗이 찢길 만큼 채찍질 당하셨을 때를 기억하는 것.[23]
- 구주의 머리에 잔인하게 면류관이 씌워졌을 때를 기억하는 것.[24]
- 구주께서 골고다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육체적, 영적인 고통을 겪으셨음을 기억하는 것.[25]
-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구주께서 자애가득한 마음으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바라보시며 하늘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26]라고 애원하셨을 때를 기억하는 것.
- 자신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이룬 것을 아시고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께 맡기셨을 때를 기억하는 것.[27]
- 우리가 부활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는 선택에 따라 영원히 그분 곁에 살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주는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28]

나아가, 성찬 기도문과 그 아주 특별하고 의미 깊은 말들을 숙고하고, 성찬이 축복되는 동안, 우리가 항상 그분을 기억하면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받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를 일깨우는 성찬 기도문을 깊이 명상하는 것.[29]

저는 주님께서 당신이 정한 기한에 따라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전도서 3장 1절과 6절을 공부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성찬식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우리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르치시는 시간이며, 우리가 그에 관한 계시를 받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 지식을 구하고 얻기 위해 "문을 두드리[면] [우리]에게 열[리는]"[30] 시간이며,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이 지식을 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 지식을 얻을 것이며, 그것이 한량없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안식일과 성찬, 그리고 그 의미를 사랑합니다. 저는 제 영혼을 다해 구주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어린이 노래책*, 36쪽.
2. 요한복음 9:7.
3. 누가복음 8:43~48 참조.
4. 마가복음 6:45~52 참조.
5. 누가복음 24:13~35 참조.
6. 제3니파이 11:14.
7. 마태복음 26:18.
8. 마태복음 26:21.
9. 마태복음 26:22.
10. 마태복음 26:25.
11. 마태복음 26:26.
12. 마태복음 26:27~28.
13. 교리와 성약 20:77, 79.
14. 요한복음 1:1~3 참조.
15. 누가복음 2:1~7 참조.
16. 누가복음 2:41~52 참조.
17. 마태복음 4:1~11; 마가복음 1:12~13; 누가복음 4:1~13 참조.
18. 마태복음 17:1~9 참조.
19. 마태복음 26:26~28; 누가복음 22:14~20 참조.
20. 누가복음 22:39~46 참조.
21. 누가복음 22:47~48 참조.
22. 누가복음 23:1~12 참조.
23. 마태복음 27:26; 누가복음 22:63~65 참조.
24. 마태복음 27:29 참조.
25. 요한복음 19:16~18 참조.
26. 누가복음 23:34.
27. 누가복음 23:46 참조.
28. 누가복음 24:5~8 참조.
29. 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30. 마태복음 7:7.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우리의 동반자인 성신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우리는 이따금이 아니라 항상 영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열린 이 연차 대회에서, 오늘 여러분과 안식일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우리가 들은 말씀과 노래가 참되다고 증거하는 영, 즉 성신을 느꼈습니다.

오늘 제 목적은, 침례 후에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는 은사를 누리겠다는 여러분의 소망과 결심을 키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인을 받을 때, "성신을 받으라."[1]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우리는 이따금이 아니라 항상 영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일처럼 말입니다. 성찬 기도문에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떡을 취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고 다음과 같이 영광스러운 약속이 뒤따릅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교리와 성약 20:77, 강조체 추가)

항상 영과 함께한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성신의 인도와 지시를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악을 행할 유혹을 물리치라는 성신의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성찬식에서 주님을 예배하겠다는 소망을 강화하도록 주님의 종들이 노력했던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성찬을 취하면, 성신은 훨씬 자주, 또 강하게 닥쳐오는 유혹으로부터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성신과 함께하면, 선한 것은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유혹은 덜 흥미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영과 함께하는 데 필요한 적합한 자격을 갖추겠다고 결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신은 악에 맞서 우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거짓에서 참을 분별해 낼 힘을 주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로만 입증됩니다. 인간의 이성과 신체적인 감각을 사용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가장 현명한 사람조차도 교묘한 속임수 속에서 진리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상흔을 만져 봄으로써 구주의 부활에 대한 물리적 증거를 원했던 사도 도마에게, 더 안전한 증거는 계시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요한복음 20:29)

성신은 본향에 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알려 주는 진리를 증명해 줍니다. 우리는 숲 속으로 가서 어린 조셉 스미스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을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물리적 증거나 논리적 주장으로도, 살아 있는 선지자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현재 지니고 행사하시는 신권 열쇠를 부여하기 위해 약속된 대로 엘리야가 왔었다는 것을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증은 성신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옵니다. 언제라도 온갖 거짓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으므로, 한순간이라도 의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진리의 영이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력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셨던 조지 큐 캐넌은 계속하여 영과 함께하고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길을 추구한다면 진리에 관한 "지식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의심이나 어둠 속에 있지 않을" 것이고, "우리 신앙은 강하고, [우리의] 기쁨은 충만할"[2]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저 또한 그렇게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성신을 동반하며 꾸준히 도움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부활하신 구주께서 실재하시다는 성신의 증거는 우리에게 희망과 위안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생생한 그런 간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많은 이유로, 끊임없이 성신을 동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란다 해도 그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우리는 모두 일상생활에서 영을 거스를 법한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쉬지 않고 덕으로 생각을 장식한다면 성신이 늘 우리와 동반자로서 함께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21:45 참조)

영을 동반하는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높은 표준을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같이 격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성신의 영향력을 느낀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영감의 순간을 앨마가 설명한 신앙의 씨앗으로 간주해 볼 수 있습니다.(앨마서 32:28 참조) 씨앗을 하나하나 심으십시오. 속삭임대로 행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영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십일조를 내야 한다면 십일조를 내시고, 슬픔에 잠긴 친구를 방문해야겠다고 느꼈다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어떤 속삭임이건 그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기꺼이 순종할 마음을 보인다면, 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을 더 많은 영감으로 알려 주실 것입니다.

순종한다면, 더욱 자주, 그리고 더 가까이 지속적으로 영의 느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옳은 것을 선택할 힘이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그분을 위해 행하라는 느낌이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자신의 욕망에서 온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이 구주와 그분의 살아 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말한 것에 일치할 때, 여러분은 확신하며 순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할 영을 보내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히나 안식일을 지키기 쉽지 않은 여건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영적인 느낌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보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 아버지께서는 업무 차 호주에 가셔서 그런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일요일에 홀로 있게 되자 성찬을 취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후기 성도들의 모임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어 그냥 걷기

시작하셨는데, 교차로에 이를 때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기도로 여쭈셨습니다. 한 시간가량 그렇게 걷다가 멈춰 서서 다시 기도드릴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길로 돌아 내려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얼마 후, 근처 아파트 건물 1층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서 안을 들여다보니, 흰 천이 덮인 탁자 위에 성찬기가 놓여 있고, 그 곁에 몇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아버지께는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찬 기도문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아셨습니다.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교리와 성약 20:77)

이것은 제 아버지가 기도하여 영의 인도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했던 때 중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그렇게 하셨으며,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영성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느껴지는 대로 주님을 위해 소소한 일들을 계속하셨을 뿐입니다.

후기 성도들이 모인 그룹에서 말씀을 요청해 올 때면 아버지는 늘 요청대로 하셨습니다. 몇 명이 모이든, 자신이 얼마나 피곤하든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영이 권할 때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과 선지자에 대해 간증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교회에서 받으셨던 가장 높은 부름은 유타 보네빌 스테이크의 고등 평의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스테이크 농장에서 잡초를 뽑으셨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신은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의 동반자로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저는 아버지와 함께 병실에 서 있었습니다. 침상에는 당시 41세셨던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이나 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에서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꼭 움켜쥐었던 손가락이 느슨해졌고, 팔은 편안히 옆으로 내려뜨려졌습니다.

십수 년을 겪어 온 암의 고통이 끝나 가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차례 짧게 숨을 들이쉬시더니 마지막으로 가쁜 숨을 내쉬고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선 채 어머니가 다시 숨을 내쉬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소녀가 본향으로 돌아갔구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래전에, 성신께서 아버지에게 제 어머니가 어떤 존재이고,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사람이 되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죽음의 힘을 꺾으신 구주에 대해, 아내와 가족과 함께한 성전 인봉의 본질에 대해 저의 아버지께 수없이 증거해 주었습니다.

영은 오래전에, 어머니가 덕과 신앙으로 하늘의 본향에 돌아가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셨으며, 그곳에서 훌륭한 약속의 자녀로 기억될 것이며, 본향에서 명예롭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아버지께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께 그것은 희망 이상이었습니다. 성신은 실제로 그것을 아버지 앞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혹자는 하늘의 본향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과 마음속 상상은 그저 달콤한 감상에

지나지 않으며, 그런 것들은 상실의 순간을 겪는 남편의 흐릿한 판단일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영원한 진리를 아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물질계를 다루는 진리를 탐구하는 데 평생을 바친 과학자셨습니다. 그분은 세계 각지의 동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과학이라는 도구를 잘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화학 분야에서 이룬 대부분의 업적은 마음의 눈으로 분자의 움직임을 보시고, 그 직감을 실험실에서 확인함으로써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을 따르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사람과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은사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병원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가져갈 어머니의 유품을 챙겨, 차로 가는 길에 만난 모든 간호사와 의사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짜증이 난 나머지, 우리끼리 슬퍼할 수 있도록 그만 병원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에야 저는 아버지께서 오직 성신만이 보여 줄 수 있는 것들을 보셨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람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전문 의료인으로만 여겼을 테지만, 아버지는 구주를 대신하여 그들이 어머니를 돌보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성신의 영향력은 그대로 아버지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버지는 양해를 구하시더니 가까운 침실로 가셨습니다.

몇 분 후, 다시 거실로 나오신 아버지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영의 세계에서 홀로 있게 될까 봐 걱정했단다. 군중 속에서 길을 잃은 기분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러고는 밝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기도를 했어. 너희 어머니는 괜찮을 거야. 그곳에서 할머니가 어머니를 맞으셨단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도착한 며느리를 맞고 반겨 주겠다는 일념으로 자그마한 몸으로 종종걸음치며 서둘러 군중을 헤집고 나아가는 할머니의 모습을 그려 보면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위안을 구하고, 또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어릴 적부터 언제나 신앙으로 기도해 온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위안과 지시를 주기 위해 마음에 오는 응답을 받는 데 익숙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습관과 더불어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아셨던 덕에, 아버지는 영의 익숙한 속삭임을 인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끼셨듯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영을 동반함으로써, 위안과 인도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변화도 경험하셨습니다.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주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4:7 참조)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구주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계명은 이것이라, 너희 땅의 모든 끝이여,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성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 없이 서도록 하라."(제3니파이 27:20)

주님은 그러한 계명을 주시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영 – 참으로 공의롭게 행하도록, 겸손히 걷도록, 의롭게 판단하도록 인도하는 그 영을 신뢰하라. 이것이 나의 영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네게 나의 영을 나누어 주리니, 그것은 네 마음을 밝혀주며 네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 주리라."(교리와 성약 11:12~13)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이끄신다는 것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에게 신권의 모든 열쇠가 있으며, 성신을 통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와 겸손한 회원들을 인도하고 지탱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들로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한 이 훌륭한 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음을 간증합니다. 저는 그들을 부르도록 영이 몬슨 회장님을 인도했음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들의 말씀과 간증을 들으실 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을 성신이 확증해 줄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지하고 사랑하며,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봉사할 때 지지해 주실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20.3.10.
2. George Q. Cannon, "Minutes of a Conference", *Millennial Star*, May 2, 1863, 275~276 참조.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교회가 필요한 이유

잠시 멈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시고자, 본인의 교회를, 즉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쓰기로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평생 저에게 연차 대회는 즐거운 영적 행사였고, 교회는 주님을 알아 가는 장소였습니다. 자신을 종교적, 혹은 영적인 사람으로 여기면서도 교회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교회라는 조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분들이 계심을 저는 압니다. 그분들에게 종교 활동은 오로지 개인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우리 영성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잠시 멈추어, 주님께서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1] 자신과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시고자, 본인의 교회를, 즉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쓰기로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담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침례와 같은 필수적인 구원 의식들이 가족 기반의 신권 반차로써 집행되었습니다.[2] 그리고 단순히 가족이 확대되는 것 이상으로 사회가 복잡해지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와 사자들과 교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모세 시대에 장로와 제사, 판사들을 포함하는, 더 공식적인 구조가 갖춰졌다는 기록을 읽습니다. 몰몬경의 역사에서도, 앨마가 제사와 교사들이 있는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 후 절정의 시기에, 예수께서는 동시에 여러 나라와 다양한 백성들 사이에 복음이 정립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업을 조직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조직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신 곳입니다.]"[3] 그리고 여기에 칠십인, 장로, 감독, 제사, 교사, 집사와 같은 직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서반구에도 이와 유사하게 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에서 조직하신 교회가 배도하고 분열한 후에,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다시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고대부터 변함없이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고 구원 의식들을 집행하는 것, 다시 말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4] 이제 이 회복된 교회를 매개로 생전에 구주의 은혜에 거의, 혹은 완전히 무지했던 죽은 자들조차도 구속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주님의 목적을 달성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계속하여 은혜에 은혜를 받[아] 드디어는 [당신이 주실 모든 것의] 충만함을 받[기를]"[5] 바라십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기분, 또는 영적인 기분을 느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회개하고, 물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고,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6] 사람은 이런 일을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교회를 두신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협착하고 좁은 길"[7]에서 성도들이 서로 돕는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8]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창시자이시요 완성자"[9]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받드는 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10] 우리는 고대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의 복리에 관하여 서로 말하기 위하여"[11],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기"[12] 위하여 자주 함께 모였다고 배웁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13] 제자로서 온전해지고자 신앙으로 결속하여 서로 가르치고 고양합니다.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자 서로 힘써 돕습니다. 그날이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 여호와의

말씀이니라"[14]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성한 교리를 배우고, 또한 그뿐 아니라 교리를 적용하는 경험을 합니다. 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상의 삶에서 서로 봉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며,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또 특이한 행동으로 서로를 시험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사랑 안에서 함께 생활"[15]하기를 배우며, 개념 있는 품행과 고상한 언어를 익히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들을 몸소 실천해야 합니다.

이 종교는 내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섬기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눈이자 손이며, 머리이자 발이고, 또한 다른 여러 신체 부위입니다. 그리고 사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한 법입니다.]"[16] 우리는 이러한 부름이 필요하며, 봉사를 해야 합니다.

저희 와드의 한 형제님은 교회 활동을 지지하지 않고 반대하는 부모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성찬식 모임에서 그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스키장에 갈 수 있는 시간에 교회에 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갑니다. 저는 이 여행길에서 견실한 청소년들과 순수한 어린이들에게서, 그리고 다른 성인들에게서 보고 배우며 영감을 얻습니다. 저는 그런 관계를 맺으며 강해지고, 복음을 실천하는 기쁨으로 신이 납니다."

인도 뭄바이

한편, 교회의 와드와 지부는 매주 휴식과 재생을 위한 모임을 마련합니다. 바로, 세상을 떠나 안식일을 보낼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17], 성찬에 수반되는 영적 치유를 경험하며,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리라는[18] 약속을 새롭게 받는 날입니다.

당장은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될 때 오는 가장 큰 축복의 하나는 죄와 오류에 대해 책망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에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전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신에 감동되[어] 제때에 날카롭게 꾸짖을"[19]사람이 없다면, 변화하여 더욱 온전히 구주를 따를 용기를 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회개는 개인적인 문제지만,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한 그 과정을 곁에서 돕는 것은 교회의 일입니다.[20]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다룰 때에는 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교회로 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으로 개종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입니다.[21] 백성들이 "*주께로 돌이켜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하였[다]"[22]라는 몰몬경의 말씀은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둘째, 처음에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했으며, 오늘날에도 가정과 교회는 별개의 조직으로서 서로 봉사하고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서로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교회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절대 부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신권 의식을 집행하는 이유는 가족들이 영생을 얻을 자격을 갖추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구주께서 교회, 즉 당신의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개인이나 소집단은 할 수 없는 필요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은 교회가 빈곤을 다루는 데에서 잘 나타납니다. 물론, 개인들과 가족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부족에 따라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23] 그러나 교회에서 함께 일할 때,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볼 능력이 배가되어 더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많은 이들의 소망인 자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24] 더 나아가, 교회와 교회의 상호부조회, 신권 정원회들은 자연재해와 전쟁, 박해로 고통받는 여러 지역의 많은 사람에게 구호의 손길을 내밀 역량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의 역량이 아니라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구주의 명은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25] 사도의 열쇠들도, 체계도, 기술 자원도, 자금도 없었을 것이고, 이 사업을 진척시키는 데 필요한, 수십만에 수십만을 더해 가는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도 없을 것입니다.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나라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 오리라."[26]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는 주님의 집인 성전을 짓고 운영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는 필수적인 의식과 성약이 집행됩니다. 조셉 스미스의 말에 따르면, 어떤 시대에서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는 목적은 "주님께 집을 건축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그 집의 의식과 그분의 왕국의 영광을 밝히시고,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실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실천할 때, 반드시 그러한 목적으로 지어진 장소나 집에서 집행해야 하는 특정한 의식과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27]

모든 길이 천국으로 통한다거나 구원받기 위한 요건은 따로 없다고 믿는 분들은, 복음을 선포할 필요도, 산 자와 죽은 자를 구원하는 일에서의 의식과 성약의 필요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멸만이 아니라 영생을 이야기하며, 이를 위해 복음의 길과 복음의 성약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주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즉 살아 있는 자녀들과 죽은 자녀들 모두에게 불멸과 영생을 주시고자 교회를 필요로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 가장 특별한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결국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1830년대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들어 기뻐하라. 이는 너희에게 왕국,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열쇠가 주어졌음이니라."[28] 이 열쇠의 권세 안에서, 교회의 신권 역원들은 구주의 교리를 순수하게 지키고 그분의 구원 의식을 온전하게 보존합니다.[29] 그들은 이

의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며, 이들의 자격과 합당성을 판단하고, 의식을 집행합니다.

왕국의 열쇠를 가진 주님의 종들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으며, 다시 한 번 권위로써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각에서는 그들만의 진리를 정의하고 싶어 하여 이 교회를 배척합니다. 사실, 주님이 계시하셔서 우리가 "사물의 [참]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30]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축복인데도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하고 출판하며, 이렇게 해서 정경이 만들어집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31] 알리며,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32]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에 나오는 후기의 왕국, 즉 "손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나와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돌[33]은 바로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 년 동안 그분이 친히 통치하실 때를 대비하여 시온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34]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날이 이르기 전에는 교회가 정치적인 개념의 왕국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 교회는 지상에 있는 주님 권세의 근원, 주님의 성스러운 성약의 집행자, 주님의 성전을 지키는 청지기, 주님의 진리의 수호자와 전파자, 흩어진 이스라엘의 집합 장소, 그리고 "진노가 온 땅에, 섞인 것이 없이 쏟아져 내릴 때 폭풍우를 피하고 진노를 피할 방어진[이며] 피난처"[35]로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 말씀을 선지자의 간청과 기도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를 불러 그의 왕국이 땅 위에 나아가게 하며, 그 주민이 이를 영접하고, 후일을 대비하게 하라. 그 날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광채를 입고 하늘에 내려와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을 맞이하리라.

그런즉 하나님의 왕국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이 임하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당신께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원수들이 정복당하게 하시옵소서. 무릇 존귀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무궁토록 당신의 것이옵니다."[36]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세서 1:39.
2. "복음은 태초부터 전파되기 시작하였나니, 하나님의 면전에서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신의 은사로 말미암아 선포되었느니라. 그리고 이같이 모든 일들이 아담에게 거룩한 의식으로써 확인되었고"(모세서 5:58~59; 또한 모세서 6:22~23 참조)
3. 에베소서 2:20.
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과 승영을 가져다주는 그분의 사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직하셨다. … 교회는 개인과 가족이 승영할 자격을 얻게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성하게 재정된 책임에 역점을 둔다. 이러한 책임에는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도록 돕고, 선교 사업을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을 집합시키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성전을 건축하고 대리 의식을 행하여 죽은 자의 구원이 가능하게 하는 일이 포함된다."(*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2.2)
5. 교리와 성약 93:13.
6. 니파이후서 31:17~20 참조.
7. 니파이후서 31:18.
8. 에베소서 4:11~13.
9. 모로나이서 6:4.
10. 제3니파이 27:5~7 참조.
11. 모로나이서 6:5.
12. 제4니파이 1:12.
13. 에베소서 4:13.
14. 예레미야 31:34; 또한 히브리서 8:11 참조.
15. 교리와 성약 42:45.
16. 고린도전서 12:22.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했다. "지체는 [즉, 우리의 수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고린도전서 12:20, 26; 또한 모사이야서 18:9 참조)
17. 이사야 58:14.
18. 교리와 성약 20:77, 79; 59:9~12 참조.
19. 교리와 성약 121:43.
20. 제3니파이 18:21~23, 30~32 참조.
21. 도널드 엘 홀스트롬, "주님의 교회를 통해 그분의 복음으로 개종하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13~15쪽 참조.
22. 제3니파이 28:23; 강조체 추가.
23. 모사이야서 18:29.
24. 한 예로, "주님의 창고"라는 용어를 들 수 있다. "주님의 창고는 가난한 사람에게 식품과 의복을 배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건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에는 감독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돕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교회 회원들이 제공하는 시간과 재능, 동정심, 물질, 재정 수단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주님의 창고는 각 와드에 존재한다."(*지침서 제2권*, 6.1.3)
25. 마태복음 28:19~20; 교리와 성약 112:28~29 참조.
26. 조셉 스미스—마태 1:31.
2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16쪽.
28. 교리와 성약 42:69; 또한 교리와 성약 90:3 참조.
29. 신앙개조 제5조 참조.
30. 교리와 성약 93:24.
31. 다니엘 2:28.
32. 다니엘 2:44.
33. 다니엘 2:45; 또한 35절 참조.
34. 요한복음 18:36; 강조체 추가.
35. 교리와 성약 115:6.
36. 교리와 성약 65:5~6.

데븐 지 듀란트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

나의 마음이 이를 끊임없이 깊이 생각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생각하겠다고 결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직업으로 말하자면 투자자입니다. 신앙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1] 저는 일을 할 때에는 효과적인 재정 원리를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구주와 더욱 닮아 가도록 저를 이끌어 주는 영적 원리를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권유는 축복을 가져다줍니다

제가 인생에서 얻은 개인적인 보상의 상당수는 누군가 제게 어려운 일을 권유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두 가지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권유는 재정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 권유는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가지 권유 모두, 받아들인 후 보상을 얻기까지 훈련된 노력을 오랫동안 쏟아야 합니다.

첫 번째 권유

첫 번째 권유는 단순합니다. 매주 돈을 저축하십시오. 액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또한, 성실히 저축한 결과 다른 이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줄 기회도 생길 것입니다. 6개월, 1년, 10년, 또는 그 이상 동안 매주 돈을 저축할 때 빚어질 긍정적인 결과를 상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꾸준히 조금씩 공을 들이면 커다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2]

두 번째 권유

두 번째 권유는 첫 번째 권유와는 상당히 다르며,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매주 경전 한 구절을 "ponderize"[3], 즉 "마음에 새겨" 보라는 것입니다. ponderize라는 단어는 사전에는 없는 말이지만, 저는 이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저는 그것을 깊은 명상 80퍼센트에다가 암기 20퍼센트를 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기는 간단한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매주 성구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이 매일 보는 곳에 두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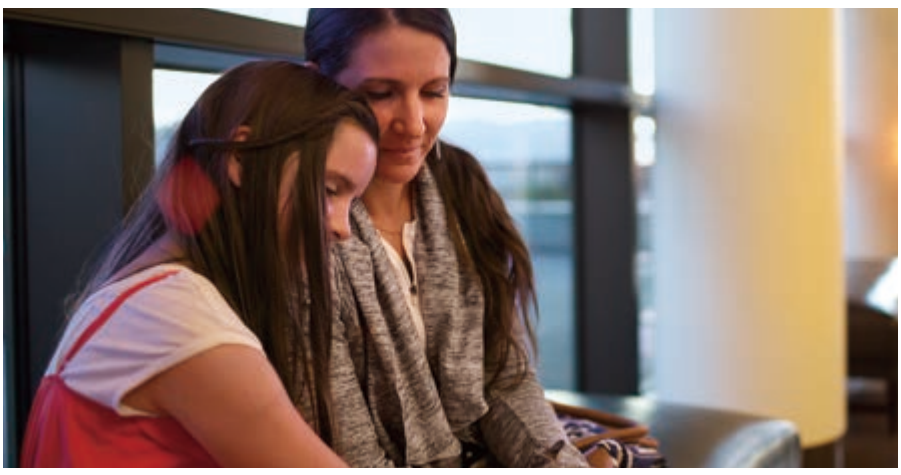
둘째, 그 성구를 매일 여러 차례 읽고 생각하며, 그 말씀에 담긴 뜻과 핵심 문구를 한 주 동안 깊이 생각하십시오.

6개월, 1년, 10년, 또는 그 이상 매주 그렇게 하여 얻게 될 행복한 결과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여러분은 영성이 고조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더 뜻깊은 방식으로 가르치고 고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주 성구를 마음에 새기기로 결심하면, 스노클링만 하다가 스쿠버다이빙을 해 보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느낄 법한 기분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결정으로, 복음 원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새로운 영적 관점이 생겨 여러분의 삶이 축복받을 것입니다.

선택한 성구를 매주 곰곰이 생각한다면,



경전의 단어와 문구가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질 것입니다.[4] 달리 말해, 쉽고 자연스럽게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새기기의 주된 목표는 여러분의 생각이 머물, 더 높은 공간, 곧 여러분이 주님의 영과 가까이 머물 공간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쌓아 두라."[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새기기란,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한 단순하고 유익한 방법입니다.

저는 니파이가 마음에 새기기의 달인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경전을 기뻐하며, 나의 마음이 이를 *[끊임없이]* 깊이 생각하며, 나의 자녀들의 배움과 유익을 위하여 이를 기록함이라."[6] 니파이는 경전을 깊이 생각하고 기록할 때 자녀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자 *끊임없이* 애쓴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유익을 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새긴 성구

최근에 저는 앨마서 5장 16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날에, 너희 복 받은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이는 보라, 지상에서 너희의 행위가 의의 행위였음이니라 라고, 너희에게 이르시는 주의 음성을 너희가 듣는 것을 스스로 상상할 수 있느냐?"

한 주가 끝나갈 무렵, 제 머릿속에는 이런 내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상상해 보라. "내게로 오라, 이는 보라, … 너희의 행위가 의의 행위였음이니라."

느끼셨겠지만, 성구 전체를 다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성구의 핵심 요소와 그 출처를 거듭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제 생각이 머물 더 높은 곳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 내내 제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는 구주를 마음속에 그려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감동을 느꼈고, 또한 "의의 행위"를 하도록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볼]"[7]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강하게 맞서야 합니다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하지?" 하고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악이 만연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답하겠습니다. 그저 현재를 수긍하며 가는 곳마다 추악한 말만 듣고 악한 모습만 보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강하게 맞서야 합니다. 마음이 고상한 생각과 장면으로 가득 차고, "항상 [주님을] 기억"[8]할 때, 더럽고 불결한 것들이 발붙일 자리는 없어집니다.

몰몬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라]'[9]고 권유하십니다. 개인 및 가족 경전 공부에 마음에 새기기를 더하되, 대체물로 삼지는 마십시오. 마음에 새기기는 여러분이 현재 드시는 영적 음식에 효과가 오래가는 새 비타민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나한텐 너무 어려운 일이야."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단념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은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축복을 받을 것을 아시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어려운 일을 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10]

제 이웃의 한 청년은 간단한, 마음에 새기기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주간 성구를 휴대전화 바탕 화면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선택한 성구를 형제 자매, 자녀, 친구와 나누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아내 줄리와 저는 서로 도움을 줍니다. 저희는 일요일마다 성구를 골라서 아내는 냉장고에, 저는 차에 붙여 두고, 한 주 동안 그 성구들에 대한 생각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자녀들과 토론하기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니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더 편안하게 저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주 식구들과 친구들, 선교사들이 각자 고른 성구를 나누고, 때에 따라, 관련된 생각이나 간증도 덧붙이는 온라인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룹의 일원이 되면 지속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고교생인 제 딸과 딸의 친구들은 소셜 미디어와 문자 메시지로 서로 성구를 공유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룹에 타종교 사람들도 초대하십시오. 그들도 자기 생각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아내와 저는 지금껏 3년 이상 매주 한 성구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처음 목표는 20년이었습니다. 아내는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당신이 20년 동안 매주 성구를 마음에 새기자고 했을 때, 한 달이나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이제는 그런 의심이 들지 않아요. 매주 냉장고에 성구를 붙이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영이 고양된다니, 믿기지 않아요."

여섯 주 동안 마음에 새기기를 한 미국 텍사스의 한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증이 강해졌고 … 하나님 아버지가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이 참 좋아요."

한 십 대 친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에 새기기]는 정말 즐거웠어요. 진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한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4년 6월부터 매주 성구 마음에 새기기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죠. … 이런 성구들은 필요한 때에 의지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주 마음에 새기기를 하면서 더 풍성한 영을 느낍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 [제] 생각을 장식하[려고]"[11] 노력한 결과, 경전을 사랑하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니파이가 전한, 다음 권고와 최고의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12]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한다]"라는 맥락에서 마음에 새기기란, 마치 맛있는 음식을 입에 넣은 다음 그 맛을 최대한 음미하고자 매우 천천히 씹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떤 성구를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남은 한 달, 한 해, 혹은 더 오랫동안 매주 한 성구를 마음에 새겨 보시겠습니까? 아내와 저는 텍사스 댈러스의 모든 용맹스런 선교사들에게 저희와 더불어 20년 동안 마음에 새기기를 하자고 권유했습니다. 17년만 있으면 결승선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생각을 드높이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도록 새로운 목표를 세울 것입니다.

"어떤 성구를 마음에 새기셨나요?"라는 말로 저희에게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여러분도 성구를 나눌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함께 성구를 나누면 서로가 고양될 것입니다.

다음 몇 달, 몇 년, 혹은 더 오랫동안 매주 새로운 성구를 마음과 생각에 새긴다면 여러분과 가족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보기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시절에 경전에 대한 사랑을 키우셨을 것입니다. 열두 살 나이에 성전에서 현명한 선생들과 의미 있는 토론을 하려면, 어린 시절에 경전을 읽고 깊이 생각해야 하셨을 것입니다.[13] 그분은 서른 살에 자신의 사명을 이행하기 시작하셨으며,[14] 어린 시절과 성역 기간 내내 경전을 인용하셨습니다.[15] 예수께서 성역을 준비하시며 경전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데 적어도 20년을 보내셨다고 말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장차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축복하는 기회가 주어질 때를 위해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하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신앙을 행사하고 실천하십시오

이제 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주 돈을 저축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행사하고 자신을 단련하며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이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생각하겠다고 결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신앙을 행사하고 자신을 단련하며 실천하십시오.

"*돈을 저축하라*"라는 첫 번째 권유와 달리,

"*영혼을 구하라*"라는 두 번째 권유에 따르는 모든 유익은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되며, 세상의 좀과 동록이 그 유익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16]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다음과 같은 분명한 권고와 약속을 주셨습니다. "경전을 주의 깊고 신중하게 연구하십시오. 경전을 상고하고 그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경전은 계시이며, 경전을 읽으면 여러분은 계시를 더 받을 것입니다."[17]

결론

약속하건대, 매주 경전 한 구절을 마음과 생각에 새긴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영의 목적과 보호,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본 바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하라"[18]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활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제3니파이 5:13 참조.
2. 앨마서 37:6; 교리와 성약 64:33 참조.
3. 스페인어로는 "meditizar"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 말은 "*meditar*"(명상하다)와 "*memorizar*"(기억하다)의 합성어이다.
4. 고린도후서 3:3 참조.
5. 교리와 성약 84:85; 강조체 추가.
6. 니파이후서 4:15; 또한 신명기 6:7; 니파이후서 4:16 참조.
7. 교리와 성약 6:36.
8. 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9. 제3니파이 17:3; 또한 모로나이서 10:3 참조.
10. 마태복음 16:25; 니파이전서 2:20; 교리와 성약 14:7 참조.
11. 교리와 성약 121:45; 강조체 추가.
12. 니파이후서 31:20; 강조체 추가.
13. 누가복음 2:42, 46~47 참조.
14. 누가복음 3:23 참조.
15. 마태복음 4:3~4 참조; 또한 마태복음 21:13 참조. 다른 여러 성구에서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 등의 문구와 함께 경전과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사용되었다.
16. 마태복음 6:19~20 참조.
17.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경전의 축복",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35쪽.
18. 니파이후서 31:12; 또한 제3니파이 27:21 참조.

폰 지 키치 장로
칠십인 정원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되고 행복하도다

주님께서는 방책을 두르셔서 악과 파괴적인 영향력을 막아 낼 안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십니다.

저는 얼마 전 호주를 방문했을 때 파도타기 명소로 잘 알려진 아름다운 호스슈 베이를 찾았습니다. 해안을 따라 걸을 때 저는 집채만 한 파도가 만 바로 바깥쪽에서 우렁찬 소리를 내며 부서지고, 작은 파도들이 해안으로 밀려오는 장관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걸음을 조금 더 옮기다가 저는 미국인 서퍼들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가 몹시 언짢은 듯, 바다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자, 그들은 큰 파도가 부서지는 만 바깥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저기

방책이 보이죠?" 좀 더 자세히 보니, 크고 매혹적인 파도들이 부서지는 바로 그곳에 만 입구 전체를 가로질러 쳐 있는 방책이 보였습니다. 방책은 질긴 그물망처럼 보였으며, 물 위에 떠 있는 부표로 지지되고 있었습니다. 서퍼들은 방책이 바다 밑까지 내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런 큰 파도를 타기 위해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여행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작 만 안으로 부서져 들어오는 작은 파도만 탈 수 있다니요. 저 방책 때문에 큰 파도는 타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대체 저곳에 왜 방책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우리 여행을 망쳐 버렸어요."

미국인 서퍼들의 커져 가는 원성을 들으면서, 저는 근처에 있는 다른 서퍼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그분은 현지 주민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분은 방책에 대한 불평이 심해지자 무척 답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일어나서 미국인 서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쌍안경을 꺼내 서퍼 중 한 사람에게 주면서 방책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며 쌍안경으로 방책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쌍안경이 저에게 건네졌을 때, 확대된 광경 속에는 이제까지 보지 못한 등지느러미가 보였습니다. 방책 너머, 암초 부근에서 먹이를 먹는 큰 상어 떼의 등지느러미였습니다.

서퍼들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그 나이가 지긋한 서퍼는 쌍안경을 돌려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분이 가면서 남긴 말을 저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방책을 너무 탓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잡혀 먹히지 않도록 지켜 주는 유일한 것이니까요."

아름다운 해변에 서 있던 우리의 관점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경직되고 거추장스럽게 보였던 방책이, 정말 큰 파도를 타는 재미와 짜릿함을 앗아간다고 여겼던 방책이 이제 전혀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수면 아래에 도사리는 위험을 새롭게 이해하자 방책은 이제 보호와 안전, 평화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을 걸어가며 각자의 꿈을 추구하는 동안, 하나님의 계명과 표준은 마치 방책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미있고 신 나 보이며 다른 많은 사람이 따르는 길을 가로막는, 경직되고 앞뒤가 막힌 것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기에,]"[1] 그러한 제한된 시각으로는 표면 아래 감춰진 큰 위험을 종종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이해[하시는]"[2]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어느 곳에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런 위험을 피하도록 당신의 계명과 사랑에 찬 인도를 통해 하늘의 지시를 내려 주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영적인 포식자와 죄의 쩍 벌린 입으로부터 보호되는 인생의 항로를 정할 수 있습니다.[3]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놓으신 길을 따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매일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앙을 나타내 보입니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명령, 또는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시는 특정한 길이 주어지는 이유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신앙과 사랑을 나타내 보입니다. 방책 바로 밖에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포식자들이 들끓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방책 안에 있는 길을 따라가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이 건너편에 있는, 가슴 설레고 조바심 나게 하는 파도뿐이라면, 방책 안에 있는 우리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럴 때 신앙을 행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보인다면, 우리는 성장하고, 가장 좋은 것을 얻습니다.

신약전서에서 아나니아 역시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권한을 가졌던 사울을 찾아 축복하라고 하셨을 때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고,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4]

주님을 신뢰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길을 따른다면, 우리는 더욱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되어 간다는 것", 다시 말해 마음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통과 의례를 치르듯 몸짓만을 따라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에서 요구되는 계명이나 의식이나 성약들은 하늘의 어느 예금 계좌에 적립해야 할 예금 목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 주는 하나의 계획입니다."[5]

따라서 참된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루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께 바쳐 파도가 잔잔할 때나 흉흉할 때나 우리의 진로를 그분께서 정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분의 뜻에 맡기면, 화평과 행복이 커집니다. 베냐민 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일"에서 "복되고 행복[할]"[6]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주위의 세속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계명은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승영에 이르기 위해 이생에서 이 악물고 헤쳐 나가야 하는 가혹한 물속 미궁 같은 방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두르신 방책은,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리는 악과 파괴적인 영향력을 막아 낼 안전한 피난처를 마련해 줍니다. 주님의 계명은 사랑과 염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계명은 다음 세상에서 기쁨과 승영을 누리게 해 주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이생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7] 주님의 계명은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을 나타내며, 더욱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고 진실한 모든 것에서 가장 훌륭한 모범이십니다. 영원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순종의 행위는 아들이 자신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잔을 옮기실 수 있으신지, 즉 자기에게 정해진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도 되는지 지극히 겸손하게 여쭈시며,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겟세마네와 골고다를 통해 난 그 길에서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고뇌와 괴로움을 참아 내셨으며, 아버지의 영이 거두어지자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3일째 되던 날, 빈 무덤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의 귀와 가슴에 울려 퍼진, "*그가 … 살아나셨느니라*"[8]는 외침으로 그 길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 외침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그분의 속죄에 중심을 둔,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위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버지의 뜻에 삼킨 바 되도록 함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기쁨, 그리고 영생을 얻을 가능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고 안전하며 축복받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이를 위해 그분은 당신께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길을 계획하셨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를 보호하는 방책을 세우셨습니다. 그 길을 따르고자 최선을 다한다면, 참된 안전과 행복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이 바라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고린도전서 13:12.
2. 교리와 성약 88:6.
3. 보이드 케이 패커, "영적인 악어", *성도의 벗*, 1976년 8월호, 30~32쪽 참조.
4. 사도행전 9:10~18 참조.
5.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 "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과제",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0쪽.
6. 모사이야서 2:41.
7. 니파이후서 2:25 참조.
8. 마태복음 28:6; 마가복음 16:6 참조.

캐롤 엠 스티븐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제장녀 젠이 셋째 딸을 낳고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저는 도움을 주고자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젠의 맏딸이 등교한 후, 우리는 젠에게 가장 필요한 건 휴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젠의 둘째 딸인 클로이를 제 집으로 데려와 젠과 클로이의 새로운 여동생이 조용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클로이를 카 시트에 앉혀 안전벨트를 채우고, 저도 안전벨트를 한 뒤, 저는 차고 진입로를 따라 차를 뺐습니다. 하지만 도로에 들어서기도 전에, 클로이가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서 제 어깨 너머로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내린 후에 다시 클로이를 자리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채웠습니다.

차는 다시 출발했지만, 얼마 못 가서 클로이는 자리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했는데, 이번엔 제가 돌아와 안전벨트를 채 매기도 전에 클로이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길가에 정차해서 운전석에 앉아 세 살짜리와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는데, 클로이가 절 이기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쥐어짜며 갖은 방법을 동원하면서, 카시트에 앉아 안전벨트를 하고 있는 게 좋다는 걸 이해시키려 했지만, 클로이는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하고 있으면'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클로이,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하고 있으면, 할머니 집에 가자마자 찰흙놀이를 할 수 있단다."

아무런 대꾸도 없었습니다.

"클로이,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하고 있으면, 할머니 집에 가서 빵을 만들 수 있단다."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클로이,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하고 있으면, 가게에 들러 간식을 사 갈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이나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있으면' 접근법은 고집쟁이 클로이가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에 앉아 있도록 설득하기엔 부족했습니다.

길에서 하루를 보낼 수도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 저는 법을 준수하고 싶었고, 클로이가 서 있는 채로 운전을 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기도했을 때 영이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라."

저는 고개를 돌려 클로이가 볼 수 있게 제 안전벨트를 앞으로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클로이, 할머니는 이 안전벨트가 할머니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고가 나도, 할머니는 안전할 거란다. 하지만 넌 그렇지 않으니 안전할 수 없겠지?

그리고 할머니는 클로이가 다치면 정말 슬플 것 같아."

클로이는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초조하게 손녀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그 작은 머릿속에서 굴러가는 생각의 바퀴가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클로이는 눈을 크게 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전벨트를 하라는 건 절 사랑해서 그러신 거죠?"

이 소중한 어린 소녀에게 제 사랑을 표현했을 때, 차 안에는 영이 가득했습니다. 그 느낌을 계속 음미하고 싶었지만, 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클로이를 카 시트에 앉힌 후 물었습니다. "클로이, 카 시트에 계속 앉아 있어 줄래?" 손녀는 과자 가게에 갈 때까지, 또 가게에서 집에 갈 때까지도 계속 안전벨트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제 말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집에서 빵을 구울 수 있었고, 찰흙도 가지고 놀 수 있었습니다!

그날 다시 그 길을 운전해 돌아가는데, 성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1] 우리에게는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카 시트에서 안전벨트를 잘 매고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 클로이는 그저 제한으로만 보이는 그것들을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클로이는 안전벨트가 자유를 제한한다고 느꼈습니다.

클로이처럼, 우리는 계명을 제한으로 보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자유를 제한하고, 선택의지를 앗아가고, 성장을 막는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큰 이해를 구하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게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길가에 정차해 있는 것과 같은 순간에, 여러분이 따르기만 한다면 "신앙과 순종의 길"[2]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원리를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늘 부모님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에 대한 그분들의 사랑은 계명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계명은 "지상 생활의 경험"[3]을 할 때 가르침과 인도, 그리고 보호해 주는 필수적인 지침들입니다.

전세에서 우리는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4]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그분의 영원한 율법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5]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필멸의 존재에 동반되는 모든 실수, 상반되는 것들, 그리고 배움 속에서, 설사 우리가 자신의 영원한 잠재력을 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께 되돌아오길 바라시기 때문에"[6]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속죄는 "구원의 계획에서 핵심을 차지합니다."[7]

둘째,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순종과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9]

매주 일요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속죄의 상징을 취하면서 구주의 순수한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성찬식 시간에 저는 빵과 물을 전달하기 위해 뻗는 손과 팔을 바라봅니다. 저는

팔을 뻗어 성찬을 취할 때, 주님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성약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10]할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셋째, 영의 속삭임을 신뢰하십시오. 클로이와 했던 경험에서 영이 제게 경전구절을 속삭인 것이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5절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다음의 중요한 구절이 이어집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11]

확인받은 모든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은 성신을 동반할 권리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 경전 공부, 순종은 영의 속삭임을 듣고 느끼는 우리의 능력을 크게 강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의심과 혼란으로 차 있을 때,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이 필멸의 여정에 따르는 위험을 경고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 성신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기억하도록 돕고 위로하며 "소망과 완전한 사랑으로"[12] 채워 주실 것입니다.

넷째, 살아 있는 선지자의 권고를 신뢰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율법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의 말은 …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13]

최근에 살아 있는 선지자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14] 금식의 법에 따라 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 권고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커지고,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되어, 당신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됩니다.[15]

주님의 선지자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안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과 제일회장단의 보좌들,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부르셨습니다. 커져 가는 두려움과, 주의를 흩트리는 것들, 역경과 분노의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분들을 바라봄으로써, 자애로 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듣고, 반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자애를 품고 응답합니다.

클로이와의 경험 후, 저는 계명과 사랑에 대해 언급한 경전 구절을 찾아보았고 여러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절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성신의 속삭임을 신뢰하고, 살아 있는 선지자의 권고를 신뢰한다면, 길가에서 벗어나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안전하게, 또한 기쁨을 느끼며 본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요한복음 14:15.
2. 닐 엘 앤더슨, "여러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4쪽.
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4.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참조.
5. 교리와 성약 130:20.
6. Russell M. Nelson, in R. Scott Lloyd, "God Wants His Children to Return to Him, Elder Nelson Teaches," *Church News* section of LDS.org, Jan. 28, 2014.
7. 러셀 엠 넬슨, "성전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리아호나* 2010년 10월호, 49쪽.
8. 요한복음 15:10.
9. 마태복음 22:37~39.
10. 교리와 성약 20:77,79 참조.
11. 요한복음 14:16~17.
12. 모로나이서 8:26.
13. 교리와 성약 1:38.
14. 출애굽기 20:8.
15.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6.1.2 참조.

앨런 디 헤이니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가 누구를 의뢰하여 왔는지 기억하며

아버지와 다시 함께 살겠다는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달렸습니다.

제가 아홉 살 때, 키가 150센티미터 정도 되시는, 자그맣고 백발이 성성하신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몇 주를 함께 지내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두 형과 함께 집 건너편 땅에 구덩이를 파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남자아이들은 가끔 구덩이를 팝니다. 흙으로 몸은 좀 더러워졌지만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덩이 파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지켜보던 동네 형들도 몇 명 합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땅은 팔수록 더 단단했기에 정원용 호스로 구덩이 바닥에 물을 뿌리면서 흙을 파기 좋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면서 온갖 군데에 진흙이 다 묻었지만, 어쨌든 구덩이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형들 중 하나가 구덩이를 수영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래서 우리는 구덩이에 물을 채웠습니다. 가장 어린 데다 형들과 섞이고 싶었던 저는 형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물에 들어가 헤엄도 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벽하게 더러워졌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진흙투성이가 되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날이 추워지기 시작했고, 저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마주친 외할머니는 저를 들여보내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집 안이 흙투성이가 되어 할머니가 방금 청소해 놓으신 집이 엉망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여느 아홉 살짜리라도 그랬을 테지만, 저도 역시 뒷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생각보다 빠르셨습니다. 화를 내고 발을 구르면서 집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떼를 썼지만,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진흙을 뒤집어쓴 채 흠뻑 젖기까지 해서 추웠고, 어린 마음에 이러다가 뒷마당에서 죽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떻게 해야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며 외할머니께 여쭤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 보았을 때, 저는 뒷마당에 서 있고, 할머니는 제게 호스로 물을 뿌려대고 계셨습니다. 영겁의 시간과도 같았던 순간이 지나고, 할머니는 이제야 깨끗해졌다며 저를 집안으로 들여 보내 주셨습니다. 집안은 따뜻했고, 저는 보송보송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나온 이 생생한 비유를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 그러므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함과 끝까지 충실함으로 인하여 나의 피로 그 옷을 빤 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1]

외할머니가 뿌려대시는 물을 맞으며 집 밖에 서 있을 때 저는 언짢고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라는 진흙 구덩이에 남는 것을 선택하거나, 그 때문에 더러워진 몸을 씻지 않는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함께할 기회를 잃는다면, 그것은 영원한 비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면전으로 돌아가 거기 머물기 위해 거쳐야 할 일과 관련하여 스스로를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영의 아들딸로서 천국 회의에 참석했습니다.[2] 모두가 귀를 기울였고, 아무도 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회의에서 한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우리의 선택의지를 존중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직접 경험하며 배울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분은 우리가 죄를 범할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죄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고, 따라서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외할머니께서 청소해 두었던 저희 집보다도 훨씬 더 깨끗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3] 것이 당신의 목적이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나 더럽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구주의 역할을 그 계획에 넣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주의 필요성을 알리셨을 때 우리는 모두 돌아서서, 영으로는 장자요, 당시에도 아버지와 같은 수준에 이르러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4] 그분이어야만 하고, 다른 모두는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으며, 또 그분이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육신과 영으로 모두 고난을 겪으셨고, 고통으로 떠셨으며,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으셨고, 이 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아버지께 간청하셨습니다.[5] 그러나 결국 그분은 그 잔을 취하셨습니다.[6] 무슨 이유에서 그러셨던 것일까요? 그분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자신]의 준비를"[7] 마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성약을 지키고 싶었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대가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그분이 겪으신 것과 같은 고통을 겪지 말라고 간곡히 말씀하실 뿐입니다.[8]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되라고 권유하십니다.

물론, 죄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효력 면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고,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니파이가 말했듯이, 우리를 "그처럼 쉽게 괴롭히는"[9] 죄 때문에 부끄럽다거나 당황스러워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꿨다 해도 괜찮습니다.[10]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신 이유가 "그가 …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 어떻게 도울지 아시[기 위해서]"[11]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낮추신 이유는[12] 이 지상에 오셔서 "만물 아래로도"[13]

자신을 낮춰 "이제껏 어떤 사람보다도 더 강력한 반박을"[14] 겪기 위해서였으며,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아버지 앞에 우리를 대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자요 아무 죄도 범하지 아니한 자가 겪은 고난과 죽음을 보시옵소서. … 그러하온즉 아버지여, 나의 이름을 믿는 이 나의 형제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내게 나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15]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며, 이로써 우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한 번 더 해 보겠다고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16]

우리가 회개하고자 겸손히 구주를 찾는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절대 우리를 희망 없는 존재로 여기지도 않으시고, "이런, 또 너구나"라고도 하지 않으시며, 죄를 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하지 못하시어 우리를 거부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슬픔과 부끄러움, 죄의 필연적인 결과인 낙담 등 모든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회개는 실재하며, 효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어낸 경험도, "과도하게 흥분된 생각의"[17] 산물도 아닙니다. 회개에는 짐을 들어 올려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 마음을 큰 변화로 이끌어,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어지]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18]하는 마음을 품게 합니다. 회개는 쉽지 않아야 합니다. 영원한 중요성을 갖는 것들은 좀처럼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값집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교회의 칠십인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속죄는 자국이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속죄가 고치면 고쳐집니다. … 속죄는 치유할 뿐이며, 치유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19]

그렇듯, 아버지와 다시 함께 살겠다는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달렸습니다. 즉, 공의의 요구와 정 반대편에 서서, 자기 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겠다며 불필요한 선택을 한 하나님의 일부 아들딸들의 죄까지, 온 인류의 죄를 모두 합한 무게를 기꺼이 스스로 짊어지기로 하신, 죄 없는 분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인 우리는 구주의 속죄에서 큰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약을 맺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끝까지 견디면 우리도 구주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고[20] 그분처럼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21]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하며 참된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22]라는 구주의 권유를, 절망스러울 만큼 요원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가능한 것으로 바꿉니다.

경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 따라 …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23]고 가르칩니다. 그날 우리는 자신의 더러움 때문에 큰 무리 속에 숨거나 타인을 가리키며 변명하는 따위의 일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경전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죄를 위해 고난을 겪으시고 아버지께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최종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주는 축복 중 자주 간과되는 것 중 하나는 "아버지께서 …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24]는 점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실망스러울 때, 그리고 여러분이 파놓은 영적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때, "[우리와] 공의의 사이에" 서 계시고, "사람의 자녀들에 대한 긍휼로 충만[하시며]", 우리의 죄악과 범법을 친히 짊어지셨고,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신]"[25]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십시오. 즉, 스스로 의심이 드는 순간에 니파이가 그랬듯이, "[여러분이] 의뢰하여 왔던"[26]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회개하면,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27]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제3니파이 27:19.
2. 모세서 4:1~4; 아브라함서 3:22~2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09쪽 참조.
3. 모세서 1:39.
4. *Lectures on Faith*(1985), 59, 60 참조.
5. 마가복음 14:36 참조.
6. 교리와 성약 19:19 참조.
7. 교리와 성약 19:19.
8. 교리와 성약 19:16, 20 참조.
9. 니파이후서 4:18.
10. 창세기 25:29~33 참조.
11. 앨마서 7:11, 12.
12. 니파이전서 11:16, 26 참조.
13. 교리와 성약 88:6; 또한 교리와 성약 122:8 참조.
14. *Lectures on Faith*, 59.
15. 교리와 성약 45:4~5.
16. 이사야 44:21 참조.
17. 앨마서 30:16.
18. 모사이야서 5:2.
19. Boyd K. Packer, general conference training meeting. Apr. 7, 2015.
20. 로마서 8:17 참조.
21. 교리와 성약 84:38 참조.
22. 마태복음 5:48.
23. 니파이후서 9:15.
24. 요한복음 5:22.
25. 모사이야서 15:9.
26. 니파이후서 4:19.
27. 니파이후서 31:20.

킴 비 클라크 장로
칠십인 정원회

보는 눈과 듣는 귀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눈과 귀를 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성신이 축복해 줄 것입니다.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은 엄청난 치유의 기적들을 행하셨고, 큰 권세와 권능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1]

그러나 그 무리 중 일부는 예수님의 병 고침을 보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또 일부는 한동안은 그분을 따르다가도 이내 이탈해 나갔습니다.[2]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 앞에 계셨지만, 그들은 그분이 진정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눈이 멀었고, 예수님을 등졌습니다. 그들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왔으되 내 백성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3]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도다]"[4]

그렇지만 충실한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은 주님을 중심에 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주의를 흩트리는 세속적인 것들로 힘겨워하고, 주님께서 가르친 내용을 혼동하고, 심지어 두려움에 떨면서도,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따랐습니다.

그들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5]

겟세마네와 갈보리의 고난을 직전에 두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6]

예수님은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순절이 시작될 무렵, 제자들은 불과 성신의 침례를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7]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 순종을 통해 성신이 그들의 동반자가 되고, 마음을 변화시켰으며, 진리에 대한 변치 않는 증거로 축복받았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이런 은사와 축복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면서도, 그들은 영의 은사로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받았습니다. 또 성신의 권능으로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했고, 특히 자신들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에 관한 실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8] 성신은 그들의 이해력을 밝혀 주었고,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9] 그들은 굳건했고 순종적이었습니다.[10] 담대하고 힘 있게 복음을 전파했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습니다.[11]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절정의 시대에 살던 충실한 사람들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며,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휘장 양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열어 주는 것과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베풀어지는 시대에 우리 또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또한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 신권 권능, 영의 은사, 그리고 최상의 축복인 구원의 의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위험한 시대입니다. 거대한 악과 유혹의 시대, 혼란과 소란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매우 위험한 시대에 지상에 있는 주님의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영혼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구조하고[12] 용기를 내어 진리를 옹호하고[13]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을 촉구하십니다.[14] 현재 각자의 영성이나 신앙, 또는 순종의 수준이 어떻든, 우리 앞에 놓인 일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영적인 빛과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구주를 더 분명하게 보는 눈과 마음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더욱 새겨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리,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15] 우리 삶에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옵니다. 우리가 완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선해야 하며, 더 향상되어야 합니다. 단순 명료한 복음 진리대로 살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해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행동하고, 계명을 지키고, 언제나 그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 성신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순종은 영을 우리 마음에 불러옵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기도하고, 경전을 탐구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킵니다. 예배당에서 성찬을 취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성스러운 약속을 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는 휘장 저편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대신해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합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임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짐을 들어 주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고 권유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성신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신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며, 성신이 우리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눈과 귀를 열면, 성신은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그분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여 확신과 증거를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모든 형제 자매를 점차 사랑과 연민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경전과 영의 속삭임, 그리고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에서 구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16] 하나님의 권능이 선지자와,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의 모든 지도자에게 머물고 있음을 목격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임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17] 구주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과 주위의 세상을 보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마음"[18]을 품게 될 것입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생기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삶은 힘들고, 혼란스러우며,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빛이 성신의 동반을 통해 혼란과 고통, 어둠을 물리치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급작스럽게 오든, 고요히 흘러 들어오든 간에, 이 영광스러운 영적인 힘은 회개하는 상한 영혼을 치유할 사랑과 위안을 주며,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쫓아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으로 낙담을 몰아냅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영의 증거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짐은 참으로 "[우리 구속주]의 기쁨 속에 삼키운 바"[19]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 부모님은 보는 눈과 듣는 귀의 중요성과 힘을 잘 보여 주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1982년에 그분들은 필리핀 다바오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부름장을 열어 임지를 확인하시고는 아버지께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안 돼요! 얼른 전화해서 필리핀에 갈 수 없다고 하세요. 당신에게 천식이 있다는 걸 그분들도 아시잖아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천식을 앓아 오셨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몹시 걱정하셨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아버지를 새벽 2시 반에 깨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그 소리 들었어요?"

"아니, 아무 소리 못 들었소."

"오늘 밤에 같은 목소리가 하는 말을 세 번이나 들었어요. '왜 걱정하느냐? 그가 천식이 있는 것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를 돌보고, 너를 돌볼 것이니라. 필리핀에서 봉사할 준비를 하여라.'"

부모님은 필리핀에서 봉사하시며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성신은 그분들의 동반자가 되어 주셨고, 축복과 보호가 뒤따랐습니다. 아버지는 천식에서 비롯한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선교부 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셨고, 어머니와 함께 민다나오 섬에 와드와 스테이크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수백 명의 선교사와 수천 명의 충실한 후기 성도를 훈련하셨습니다. 두 분은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축복받으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 간증을 전합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 구주이며 구속주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삶에 받아들이고 복음의 분명하고도 단순한 진리대로 생활한다면, 성신과 함께하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귀한 은사인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4:24~25.
2. 요한복음 6:66 참조.
3. 제3니파이 9:16.
4. 사도행전 28:27; 또한 마태복음 13:15 참조.
5. 마태복음 13:16.
6. 요한복음 14:12.
7. 사도행전 2:1~4 참조.
8. 예컨대, 사도행전 10:9~15 참조.
9. 이노스서 1:3 참조.
10. 사도행전 2:42 참조.
11. 사도행전 4:8~12 참조.
12. 토마스 에스 몬슨,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감,"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참조.
13. 토마스 에스 몬슨, "강하고 담대하라",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참조.
14. Thomas S. Monson, "Faith in the Work of Salvation," *Worldwide Leadership Training Meeting*, June 2013, lds.org/broadcasts 참조.
15. *받다*(receive)라는 단어는 이 문맥에서 중요한 몇 가지 의미를 띤다. 마음 또는 감각을 통해 완전히 이해함, 들어오도록 허락함, 참되다고 받아들임, 믿음, 환영함.(*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1th ed. [2003], "receive", 참조)
16. 교리와 성약 18:34~36; 68:3~4.
17. 해롤드 비 리 회장은 이 증거(witness)가 구주께 돌이키는 데 필수라고 가르쳤다("Be Loyal to the Royal within You"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Sept. 11, 1973], 4, speeches.byu.edu 참조)
18. 고린도전서 2:16.
19. 앨마서 27:17; 또한 앨마서 31:38 참조.

고이치 아오야기 장로
칠십인 정원회 명예 회원

너의 길을 계속 가라

여러분이 어떤 시련을 겪든지 하나님을 우선시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모든 일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2011년 3월 11일, 일본 고베 선교부를 방문하기 위해 도쿄 시나가와 기차역 플랫폼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오후 2시 46분 무렵, 별안간 진도 9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심한 흔들림 때문에 서 있기가 힘들어 계단 난간을 꼭 붙잡았습니다. 주변 천정에서는 조명등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전역이 공황 상태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다친 데가 없었고, 네 시간 뒤에는 가족들도 다 무사하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달아 무시무시하고 충격적인 장면이 지나갔습니다. 센다이 선교부 지역에 휘몰아친 대규모 쓰나미는 지나는 곳마다 차와 주택, 공장, 밭 등 모든 것을 휩쓸어 갔습니다. 저는 그 비극적인 장면들에 아연실색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 사랑하는 이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도움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중에야 교회의 모든 선교사 및 회원들이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들이 가족과 집, 가재도구를 잃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20,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지역 사회가 무너졌으며, 많은 사람이 보금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재난은 세상의 여러 지역을 파괴하고 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 이런 재난과 전쟁,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혹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하며 의문을 느끼기도 합니다.

복음으로 개종하고 오랫동안, 저는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라는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이 구원의 계획의 일부라는 말은 이해했지만, 실제로는 이 질문에 적절히 답할 만큼 충분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인생에서 아주 큰 시련을 경험하게 된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서른 살이었고, 업무 차 나고야 선교부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모임을 마친 후, 선교부 회장님은 선교사들이 저를 공항으로 바래다 주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게 이어진 언덕을 내려와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뒤편에서 대형 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내려왔습니다. 트럭은 우리가 탄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우리는 20여미터까지 차체가 밀려났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트럭에 운전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차 후미는 원래의 절반 크기로 찌그러졌습니다. 다행히 두 장로와 저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제 목과 어깨에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극심한 두통도 생겼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매일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제발 이 고통을 낫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지만, 이런 증상은 거의 1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당시 제 마음속에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왜 제가 이렇게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의문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대로 치유되지는 못했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충실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 시련에 관한 의문들이 풀리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새로 생긴 몇몇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고 이 새로운 시련에 대처하는 법을 몰랐던 탓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응답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즉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뢰하는 교회 지도자 한 분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이야기 중에 따뜻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오야기 형제님, 형제님이 이 지상에 있는 목적은 시련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생의 시련을 모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는 부활할 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아주 강한 주님의 영이 느껴졌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온 교리였지만, 그때만큼 이해의 눈이 크게 열렸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제가 기도로 주님께 구하던 응답임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을 명확히 이해했고, 또 이 중요한 원리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서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1]

그 원리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 지구의 원대한 목적을 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우리가 이 지상에 머무는 동안 시련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경험을 주십니다.

또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이 모든 일이 네게 경험이 되고 네 유익이 될 줄 알라. …

그러므로, *너의 길을 계속 가라*. … 이는 하나님이 영원무궁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2]

질병과 죽음 같은 이 지상의 시련은 구원의 계획의 일부이며, 불가피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길을 계속 가[야 하며]" 신앙으로써 시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련을 견디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지상에서 직면하는 시련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구속주로 보내셨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시고[3], 우리 죄와 불완전함을 위해 속죄하시며, 우리가 불멸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시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지 보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잘 견디는지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계명을 기억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4]

"너의 길을 계속 가라." 시련의 시기에는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특히, 시련을 겪을 때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에 겸손하게 순종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신앙을 보이십시오.

이제, 나고야에서 생긴 추돌 사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사고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주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제가 여러 고통을 겪은 것은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압니다.[5]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급한 마음을 잠재우고, 공감하는 마음을 키우며, 고통받은 사람을 위로하도록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를 깨닫자, 저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시련을 주신 데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련을 겪든지 하나님을 우선시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모든 일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모로나이는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니,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6]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며, 자신의 "길을 계속 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시련 속에서도 성취될 것임을 진심으로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아브라함서 3:25.
2. 교리와 성약 122:7, 9; 강조체 추가.
3. 이더서 12:27 참조.
4. 헨리 비 아이어링, "주의 힘을 의지하여",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7쪽.
5. 히브리서 12:7~9 참조.
6. 모로나이서 10:32.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나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택함을 받고"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임 지도자 직책에 영적으로 깊이 성숙하고 판단력 있는 노인들이 봉사하는 것은 진정 훌륭한 일입니다.

지난 1996년에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미국 전역으로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 *60분(60 Minutes)*에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노련하고 집요한 언론인 마이크 월리스가 여러 중요한 주제로 힝클리 회장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월리스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장로제 교회다, 노인들이 끌어 가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이에 힝클리 회장님은 망설임 없이 유쾌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교회의 수장이 성숙하고 판단력이 있어서 온갖 교리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니, 얼마나 훌륭합니까?"(1996년 4월 7일자 방송)

저는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임 지도자 직책에 영적으로 깊이 성숙하고 판단력 있는 노인들이 봉사하는 것이 왜 진정 훌륭한 일인지를, 또한 주님께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 택[하신]"(교리와 성약 112:1) 그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모사이야서 2:9) 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막중한 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동안 성신이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일생을 통해 얻은 교훈

저는 확연히 다른 관점에서 이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년 동안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나이가 가장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봉사하는 동안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평균 연령은 77세였기에, 이 경륜의 시대에 사도들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11년간이었습니다.

저는 함께 봉사하는 정원회 회원들이 사도로서 해 온 경험과,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얻은 경험과 통찰력을 포괄적으로 접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지도자들에게서 배우고, 또 함께 봉사하는 그 놀라운 기회를 설명하기 위한 좋은 예로,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과 함께했던 일화를 들어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어느 일요일 오후를 헤일즈 장로님 댁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심각한 병고에 시달리다 회복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족에 대해, 또 정원회에서 맡은 책임과 중요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 중에 저는 헤일즈 장로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장로님은 남편으로나 아버지로, 또 운동선수이자 비행사, 회사의 중역으로,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 오셨지요. 연세가 들고 신체적인 제약이 점점 커져 가면서 장로님이 배우신 게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헤일즈 장로님은 잠시 말씀이 없으시더니 이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늘 하던 일들을 못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일들만 하게 된다네."

저는 그분의 간결하고도 포괄적인 대답에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동료 사도께서는 그렇게 일생을 통해 배운, 혹독한 육신의 병고와 영적인 탐구를 통해 얻은 교훈을 알려 주셨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나약함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따라오는 제약은 실제로 영적인 배움과 통찰의 훌륭한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종들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데 제약이 될 것이라며 대다수가 생각하는 바로 그 요소들은 그분들의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제약은 시야를 넓혀 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기력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소화할 수 없다는 점은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일들에 집중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 사회의 심각한 여러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교회에 더 젊고 활력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실 때 지도력에 관한 이 시대의 철학과 관행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이사야 55:8~9 참조) 우리는 이 교회의 회장과 다른 상위 지도자들이 연령이 높고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일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로 주신 방법, 즉 평의회를 통해 그분의 교회를 다스리는 이 방식은 인간의 나약함을 보완하고 그 영향을 감소시켜 줍니다. 흥미롭게도, 필멸의 인간으로서 겪는 제약은 이분들이 받는, 또한 이분들을 통해 오는 계시의 신성한 근원을 실로 확신시켜 줍니다. 참으로, 이분들은 계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신앙개조 제5조 참조)

준비의 방식

저는 주님께서 성숙하고 판단력 있는 노인들을 교회의 상위 지도자로 봉사하도록 하시는 이유를 이분들에게서 보아 왔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이 대표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개인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신의 신성한 언어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계시를 받는 주님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평범한 인간인 이분들은 가장 비범한 발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야가 선명해지고 통찰력을 얻으며 모든 나라와 모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회복의 실재성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분들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고전하는 와중에도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고 영화롭게 하고자 부지런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거듭해서 목격해 왔습니다. 이분들은 고난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그리고 고난을 안은 채로 용감하게 전진하도록 축복받고 강화됩니다.

이 주님의 대표자들과 함께 봉사하면서 저는 그분들의 가장 큰 열망이 우리 하나님

시계 방향으로 왼쪽 위 부터: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고든 비 힝클리 회장,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조셉 비 워슬린 장로의 초상화; 위: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과 엘 톰 페리 장로의 초상화.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뜻을 분별하고 이행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들과 논의할 때 우리에게 온 영감과 우리가 도달하는 결정은, 인간의 지성과 논리와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복잡한 문제에 관하여 하나가 되어 일하는 동안,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집합적 이해력은 성신의 권능을 통해 놀라운 방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저는 이 지도자들의 개성과 능력과 고귀한 성품을 일상에서 하루하루 눈여겨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분들의 인간적인 약점을 당황스러워하며 그것이 신앙을 약화시킨다고 여기지만, 저는 그러한 불완전함을 보며 용기를 얻고 신앙이 고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께 배운 것들

지금까지 저는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 조셉 비 워스린 장로님, 엘 톰 페리 장로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 그리고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까지, 이렇게 여섯 분의 사도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 영의 세계에서 새로운 책임을 맡도록 보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 용감한 사도들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증하는 일에 "온 영혼을"(옴나이서 1:26) 바쳤습니다. 이분들의 가르침을 통틀어 보면, 그 가치를 감히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이 종들은 헌신적인 수십 년간의 봉사에서 배운 여러 교훈을 집약하여 필멸의 사역 기간 마지막 몇 년 동안 강력한 영적 가르침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일부 사람들이 이들의 역량이 최저치에 이르렀다 여길 만한 그런 때에, 오히려 위대하고 값진 진리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마지막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니파이는 이런 말씀으로 자신의 기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이같이 주께서 내게 명하셨음이니 내가 순종해야만 하리라."(니파이후서 33:15)

생애가 끝나 갈 무렵 야곱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오 그러할진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회개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생을 얻기까지 계속하여 협착한 길로 행하라.

오 지혜로우라. 내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으리요."(야곱서 6:11~12)

모로나이는 부활에 대한 희망찬 기대를 품고서, 금판을 준비하는 자신의 과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서 쉬리로다. 그리하여 나의 영과 육신이 다시 재결합하고, 내가 공중에서 승리자로 나아와, 산 자와 죽은 자의 영원한 재판관이신 위대한 여호와의 기쁜 심판대 앞에서 너희를 만나리라."(모로나이서 10:34)

여러분과 저는 후기의 선지자 및 사도들의 축복된 가르침과 간증을 통해 배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이름은 니파이나 야곱이나 모로나이가 아닌, 파우스트 회장, 힝클리 회장, 워스린 장로, 페리 장로, 패커 회장, 스코트 장로입니다.

사랑하는 이분들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분들의 사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하거나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자신의 영적인 학습과 일생의 경험이 모두 합쳐진 결과로, 절대적인 진실성과 크고 날카로운 권능으로 영원한 진리들을 강조하셨습니다.

2007년 4월, 파우스트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참석하신 연차 대회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의 속죄를 통하여 소중한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분노, 악의, 또는 복수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기꺼이 던져 버릴 때에만 올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저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교리와 성약 64:10]는 구주의 훈계에 따를 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치유의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용서가 낳는 치유의 힘",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69쪽)

파우스트 회장님의 이 메시지는 제가 사랑했던, 또 제가 알기에 용서에 가장 관대했던 한 사람이 일생을 통해 배운 힘 있는 교훈입니다.

힝클리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참석하신 연차 대회인 2007년 10월 대회에서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선지자 조셉의 부름과 그의 업적과 영원한 진리에 대한 순교자로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간증을 인봉한 것에 대해 거듭 간증드립니다. … 여러분과 저는 첫번째 시현과 그 뒤를 이어 일어난 사건들의 진실성을 받아들이느냐는 준엄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정당성은 첫번째 시현의 진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참되다면,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산에서 뜨인 돌",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86쪽)

힝클리 회장님의 이 간증은 제가 사랑하고, 또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라 알았던 한 사람이 일생을 통해 배운 힘 있는 교훈입니다.

워스린 장로님의 마지막 연차 대회 말씀은 2008년 10월 대회에서 전해졌습니다.

"저는 우리 팀이 풋볼 경기에서 지던 날 어머니가 주신 충고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떤 일이 닥쳐오든 그것을 사랑하거라.'

… 역경은, 올바르게 대처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

유머를 찾고, 영원한 안목을 추구하며, 보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간다면,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견뎌 낼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어떤 일이 닥쳐오든 그것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어떤 일이 닥쳐오든 그것을 사랑하십시오",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28쪽)

워스린 장로님의 이 말씀은 제가 사랑했던 한 사람, 구주를 믿는 신앙을 통해 역경을 극복하라 외치는 웅변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일생을 통해 배운 힘 있는 교훈입니다.

여섯 달 전에 페리 장로님은 이 단상에 서 계셨습니다. 당시 우리는 다음 간증이 그분의 마지막 연차 대회 말씀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간증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족이 삶의 중심이며, 영원한 행복의 열쇠임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지상에서 아흔 해를 보냈으니 이렇게 말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삶을 복되게 해 주고 영원하게 해 준 아내와 자녀들, 손주와 증손주들, … 먼 친척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이 영원한 진리에 대한 저의 가장 강하고도 성스러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전 세계 어디에서나 결혼과 가족이 중요한 이유",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42쪽)

페리 장로님의 이 말씀은 제가 사랑하는 한 사람, 가족과 영원한 행복 사이의 불가결한 관계를 방대한 경험으로 이해했던 한 사람이 일생을 통해 배운 힘 있는 교훈입니다.

패커 회장님은 6개월 전 연차 대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과 구주의 속죄, 그리고 영원한 가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계십니다. 그분의 속죄와 신권 권능으로 필멸에서 출발한 가족들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

얼마나 어렵든, 오래되었든, 또 얼마나 많이 반복되었는가에 상관없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낼 수 있는 … 속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속죄는 여러분이 깨끗하고 합당하게 다시 앞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 [줍니다.]"("행복의 계획",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28쪽)

패커 회장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제가 사랑하는 한 남성이 일생을 통해 터득한 교훈으로, 그 남성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의 [목적]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현세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인봉되는 모습을 보는 것"(*리아호나*, 2015년 5월호, 26쪽)임을 강력하고도 반복적으로 선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코트 장로님은 그분이 참석하신 마지막 연차 대회인 2014년 10월 대회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시험을 겪으며 성장하기 위해 필멸의 삶으로 왔습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좀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되게 해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해 줍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모든 유혹과 심적 고통,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음을 … 간증드립니다."("신앙을 행사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94쪽)

스코트 장로님의 이 간증은 제가 사랑하는 한 사람,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랑받는 특별한 증인이었던 한 사람이 일생을 통해 배운 힘 있는 교훈입니다.(교리와 성약 107:23 참조)

약속과 간증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부디 우리가 주님께서 공인하신 대표자들이 가르치는 영원한 진리에 귀를 열고 주의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고, 특정 상황과 필요에 맞는 영적인 인도와 보호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부활하셨고 살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친히 택하신 종들을 통해 그분의 회복된, 이 살아 있는 교회의 제반사를 주관하심을 저는 영혼을 다해 증언합니다. 저의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대회 말씀을 삶에 적용합시다

다음 활동과 질문을 활용하여 가족 토론을 시작하거나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함으로써, 연차 대회에서 받은 가르침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어린이

- 86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좋은 모범을 보이라고 하셨다.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어떻게 가족과 친구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을까? 좀더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한 가지를 하기로 목표를 정할 수 있다.
- 104쪽: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아버지가 호주를 방문했을 때 일요일에 교회를 찾아다닌 이야기를 했다. 교회를 찾아다니던 중 아이어링 회장의 아버지는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마다 어느 방향으로 걸어야 할 지 알기 위해 기도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찬송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고 성신이 길을 찾도록 도왔음을 알았다. 여러분이 성신을 느꼈던 때에 대해 생각한다. 그 일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 6쪽: 본부 초등회 회장 로즈메리 엠 윅솜

자매는 에이미라는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에이미는 하나님이 진짜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계신지 알기 위해 기도했다. 이 이야기를 가족과 함께 읽거나 다시 이야기해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때에 대해 말해본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때 어떤 느낌을 받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도록 도울 수 있는가?

- 121쪽: 칠십인 정원회의 앨런 디 헤이니장로는 두 형과 함께 마당에 큰 구멍을 파서 수영장으로 만들었던 이야기를 했다. 소년들은 진흙탕에서 놀면서 진흙이 잔뜩 묻게 되었다. 헤이니 장로의 할머니는 깨끗이 씻기 전까지는 집에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깨끗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청소년

- 83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하나님의 계명이 장애물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지침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라고 말했다. 몬슨 회장의 말을 시험해보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보라. 신성한 도움을 받고 보호까지 받을 것이다.
- 6쪽: 자존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자주 실망하게 된다. 본부 초등회 회장인 로즈메리 엠 윅솜 자매는 "세상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옆으로부터가 아니라, 아버지께 위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주 일지에 여러분의 신성한 성품과 그 사실에서 오는 축복을 적어본다.
- 20쪽: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롭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좀 더 높은 창공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제자

됨에 대해 좀 더 단순하게 접근해 보십시오. 복음의 기본 교리와 원리, 실천에 집중해 보십시오."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받고 압도되었다고 느낀다면 삶과 복음 예배를 단순하게 바꿀수 있는 방법을 생각 해본다.

- 65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는 선교 사업을 나가고 싶었지만 대신 가족들을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강한 신앙과 주님의 축복으로 청년은 결국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청년과 같이 우리의 길을 가로 막는 장해물을 해치고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 33쪽: 칠십인 정원회의 래리 알 로렌스 장로는 여러가지 해야 할 일들로 고민하던 귀환 선교사가 일요일에 복음 공부와 하나님에 대한 봉사에만 전념하기로 결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작은 변화로 그는 자신이 구하던 평안과 균형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로렌스 장로는 말했다. 일요일을 더 나은 방법으로 주님께 헌납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성인

- 86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구주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이 보여 주신 삶과 가르침대로 생활할 때, 그 빛은 우리 안에서 타올라 다른 이들의 길을 비춰 줄 것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 세상을 밝힐" 더 큰 빛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회장과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여성과 어머니의 역할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했다. 홀런드 장로는 "인간이 지닌 그 어떤 사랑도 자녀를 향한 헌신적인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에 근접한 것은 없습니다."(47쪽)라고 가르쳤다. 넬슨 회장은 개종하고 성약을 지키는 여성들이 "타락해 가는 세상에서 점점 더 눈에 띄"게 될것이라고 가르쳤다.(95쪽) 이 말씀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해보고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보조할 수 있는지 토론해본다.

- 여러 연사들이 시련을 통해 얻는 힘에 관한 말씀을 했다. 칠십인 정원회의 휴고 몬토야 장로는 시련과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오지만 "성공적으로 넘어선다면 우리에게 힘과 성장을 가져다줍니다."(53쪽)라고 가르쳤다. 칠십인 정원회의 몬토야 장로의 말씀과 제임스 비 마르티노 장로(58쪽), 칠십인 정원회의 명예 총관리 역원인 고이치 아오야기 장로(126쪽), 본부 청년 회장단의 제2보좌인 닐 에프 메리엇 자매(30쪽)의 말씀을 읽어본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떻게 주님께서 시련을 통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
- 33쪽: 칠십인 정원회의 래리 알 로렌스 장로는 자신의 말씀에서, "영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도록 계속해서 과제를 부여합니다. … 우리가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겸손해진다면 성신은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라고 가르쳤다. 그분의 말씀을 읽은 후에 성신의 인도를 통해 여러분이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본다.
- 104쪽: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항상 영과 함께한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성신의 인도와 지시를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라고 가르쳤다. 영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여러분이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생각해본다. ■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 색인

다음은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를 선별한 목록입니다. 이 내용은 개인 학습과 가정의 밤, 그리고 그 밖에 복음을 가르치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각 말씀이 실린 첫 장을 나타냅니다.

연사	이야기
닐 엘 앤더슨	(65)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한 청년과 그의 형제자매들은 그 청년이 전임 선교사 부름을 받아드리기로 결정한 후에 금전적인 축복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두 형제가 비행기 사고로 부모 및 두 형제자매를 잃은 후에 살아갈 힘을 얻는다.
고이치 아오야기	(126) 교회 지도자와 이야기하며 고이치 아오야기는 성신을 통해 구원의 계획에서 역경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력을 얻는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128)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는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로부터 언제나 해 왔던 일을 할 수는 없으며 오직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랜들 케이 베네트	(69) 랜들 케이 베네트 복음을 서로 나누어야겠다는 느낌을 받은 두 러시아인 후기성도가 결국에는 성전에서 결혼한다.
킴 비 클라크	(124) 성신의 음성에 용기를 받은 킴 비 클라크의 부모는 필리핀으로 가라는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쿠엔틴 엘 쿡	(39) 쿠엔틴 엘 쿡은 젊은 선교사로써 "브리스틀식으로 정돈하기"가 무슨 뜻인지를 배운다. 쿠엔틴 엘 쿡이 유대교 샤밭(유대교 안식일)에 참여한다.
헨리 비 아이어링	(80) 연세가 많으신 자매님이 성찬을 전달해 준 집사에게 감사를 표시한다. 어느 장로 정원회 회장의 노력으로 주님께서는 몇몇 저활동 수련 장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헨리 비 아이어링의 증조 할아버지가 주님께서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지켜봐 주시고 영감을 주심에 대해 기뻐한다. (104) 성신이 호주에서 헨리 비 아이어링의 아버지를 성찬 모임 장소로 이끄신다. 헨리 비 아이어링의 아버지는 그의 부인을 사별한 후에 성신의 위안을 받는다.
브래들리 디 포스터	(50) 앤 설리반이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인 헬렌 켈러가 읽은 법을 배우도록 돕는다. 브래들리 디 포스터는 합당한 예비 선교사와 접견을 한 후에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이 복음 진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야한다는 긴박함을 느꼈다.
앨런 디 헤이니	(121) 소년 시절에 진흙탕에서 논 후에 앨런 디 헤이니는 할머니가 호스로 깨끗이 씻기기 전에 집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제프리 알 홀런드	(47) 임종의 순간에 임한 교회의 어느 저활동 회원이 다음 생에서 어머니를 마주하는 것을 겁내 한다. 신앙심 깊은 어머니가 아들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돕는다. 리사 터틀 파이퍼가 딸이 호산나 찬양에 동참하도록 돕는다.
폰 지 키치	(115) 호주의 해변 입구에 위치한 방책 때문에 불평을 하던 서퍼들이 방책이 사실은 상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래리 알 로렌스	(33) 래리 알 로렌스가 성신이 어떻게 사람들이 발전하도록 "개인에게 필요한 조언"을 주는지 몇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닐 에프 매리엇	(30) 닐 에프 매리엇이 10년 동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끝에 교회를 발견하고 받아들인다. 매리엇 자매의 가족이 자전거 사고로 죽은 딸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 것임에 신앙을 행사한다.
제임스 비 마르티노	(58) 제임스 비 마르티노가 몰몬경에 대해 진실하게 공부하고 기도한 끝에 침례받기로 결정한다.
리처드 제이 메인즈	(27) 타이치 아오바 장로가 청소년들에게 찰칵을 도자기 물레의 중심에 맞추라고 가르친다. 낸시 메인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고 그 가운데 생활하며 진정한 기쁨을 발견한다.
캐럴 에프 맥콩키	(12) 102세의 자매님이 매일 회개함으로써 청녀 표창을 받았다고 말한다.
토마스 에스 몬슨	(83) 어느 여성과 그녀의 남편이 회개하고 교회에 돌아온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평화와 희망을 찾는다. (86)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가 비와이유 예루살렘 센터에 재학하는 후기성도들의 눈빛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고민한다.
휴고 몬토야	(53) 휴고 몬토야가 칠십인으로 부름받은 후에 러셀 엠 넬슨 회장의 미소를 보고 평화를 찾는다.
러셀 엠 넬슨	(95) 젊고 용기를 잃은 심장 외과 전문의인 러셀 엠 넬슨이 아내의 안목, 사랑, 그리고 격려 덕분에 일터로 돌아간다. 어느 스테이크 초등회 회장의 영감받은 의견이 스테이크 평의회의 방향을 바꾼다.
린다 에스 리브즈	(9) 한 친구가 자신의 어려운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후에 린다 에스 리브즈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슬퍼한다.
데일 지 렌런드	(93) 데일 지 렌런드가 감독으로 부름받은 후에 그의 형은 주님께서 데일을 통해 이루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불렀다고 말해준다. 심부전으로 인해 사망한 아이의 부모가 데일 지 렌런드를 위로한다.
그레고리 에이 슈바이처	(98) 그레고리 에이 슈파이처가 그의 손자가 피아노로 연습하는 찬송가의 멜로디와 찬송가가 전하는 메시지를 느끼도록 도와준다.
번 피 스탠필	(55) 번 피 스탠필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무리를 지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함께 모은 빛으로 불안감을 이겨낸다.
캐롤 엠 스티븐스	(118) 캐롤 엠 스티븐스가 사랑한다는 말로 손녀가 카시트에 앉도록 달랜다.
게리 이 스티븐슨	(91) 사도로 부름받은 후에 게리 이 스티븐슨과 그의 아내 리사는 그들의 닻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임을 깨닫는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15) 11살된 소녀가 이모할머니로부터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열쇠임을 배운다. (20) 상호부조회 교사가 단순함에 관해 가르치기 위해 밤을 새워 퀼트를 짠다. (76)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는 한 아론 신권 소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고 슬퍼한다.
로즈메리 엠 윅솜	(6)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기위해 기도 한 청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받는다. 에티오피아의 배고픔에 굶주리던 한 남성이 고아가 된 아기의 복지를 걱정한다.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는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을 받은 후,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래스번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부름]이 … 제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영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결정이었습니다."

19세에 래스번드 장로는 주님의 결정에 따르는 것에 대해 비슷한 교훈을 이미 배웠다. 그는 부친과 형이 선교 사업을 했던 독일에서 봉사하기를 바랐지만 미국 동부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다. 그는 경전을 펼쳐 교리와 성약 100편에 있는 구절을 읽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고, 내가 너희에게 줄 권고를 귀담아 들으라.

"… 이 동쪽 땅에서 이 주변의 지역에 효과적인 문이 열리리라….

그러므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백성에게 너희 목소리를 높이고"(2, 3, 5절).

주님께서는 그가 동부 선교부에서 봉사하기를 원하셨다는 증거를 받았다.

래스번드 장로는 1951년 2월 6일에 초라한 환경에서 태어났다. "저는 [빵] 트럭 기사와 사랑스러운 [전업] 주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여러 대에 걸친 후기 성도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유산을 보물처럼 여긴다.

1973년에 래스번드 장로는 멜라니 위첼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다섯 자녀와 스물네 명의 손자녀를 두고 있다. 래스번드 장로는 오늘날이 있기까지 42년 동안 내조를 해준 아내에게 이렇게 그 공을 돌린다. "제 아내는 저를 토기장이의 진흙이라고 생각하고는 정말 중요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 아내의 영적인 영향력은 바로 이 아름답고 특별한 부름뿐만 아니라 제가 영적으로 했던 모든 것으로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1987년에 래스번드 장로는 전 세계적인 화학 회사에서 사장 겸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 그는 교회 봉사를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자신의 상사들에게서 배웠다.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 직장 생활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또한 "총관리 역원으로서 제게 큰 도움을 줬던 … 지도력 기술을 많이 배웠다."

래스번드 장로는 그런 기술을 사용할 기회가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감독, 선교부 회장, 2000년 4월부터 칠십인 총관리 역원, 북미 서, 북서, 유타의 세 지역에서 관리자, 유럽 중부 지역 회장단 보좌, 성전부 집행 책임자, 2005년부터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 2009년 4월부터 칠십인 선임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는 교회에서 받은 임무를 통해 어느 곳에서나 후기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신앙을 키워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에 더해졌습니다."(90쪽)

래스번드 장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봉사하게 된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주님을 섬기고 싶은 소망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저의 남은 생애 동안 제 시간과 재능,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저는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는 주님의 왕국에서 그의 봉사, 특히 사도로서의 봉사는 인도를 통한 봉사보다는 봉사를 통한 인도가 더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티븐슨 장로는 지지를 받은 후 가진 기자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종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합니다."(마가복음 10:44 참조)

스티븐슨 장로는 예기치 않게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교회에서 자신의 봉사, 특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서의, 또 2012년 3월부터 감리 감독으로서의 그의 봉사가 새로운 책임에 대해 그를 준비시켜주었다고 느낀다.

주님을 위한 봉사에서 그가 배웠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지닌 큰 가치였다. 스티븐슨 장로는 사도로서 전 세계 곳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류하고 또 그들에게 증거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그는 주님의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평의회에 앉아서 [그분들]에게서 배울 수 있고, [그분들]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분들의 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간증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게리 이 스티븐슨은 에반 엔과 베라 진 스티븐슨 사이에서 1955년 8월 6일에 태어났다. 그는 유타 초기의 후기 성도 개척자들까지 올라가는 가계를 갖고 있다. 그는 북유타의 캐시밸리에 있는 복음 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의 가치와 봉사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다. "제 청소년 시절에 감독이셨던" 그의 부친은 그들 와드에 살던 많은 미망인들을 함께 방문하자고 자주 권유했다. 어린 게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보살핌과 봉사에 대해 부친에게서 배웠던 교훈들은 지울 수 없는 인상을 그에게 남겼고, 그것은 감리 감독으로서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교회 감독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교회에서 스티븐슨 장로의 봉사는 그가 일본 후쿠오카 선교부로 전임 선교사 부름을 받았을 때 진지하게 시작되었다. 거기서 그는 일본 사람들과 그들의 언어에 대해 크나큰 사랑을 갖게 되었고, 그는 지금도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그는 선교 사업을 마친 후 유타 주립 대학교에 입학했고, 거기서 리사 진 히글리를 만났다. 두 사람은 1979년에 아이다호 아이다호폴스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아들 넷을 두고 있다. 스티븐슨 장로는 마케팅 경영학을 공부해 학위를 받았다. 그는 훗날 운동 기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세계 유수의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했으며, 그 회사의 사장 겸 최고 경영자로 일했다.

스티븐슨 가족은 여러 해 동안 일본에서 살았다. 2004년에 스티븐슨 장로는 일본 나고야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2008년에 칠십인으로 부름을 받은 후에는 북아시아 지역에서 보좌와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는 2011년에 대규모 지진이 일본 북부 해안에 엄습해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그 경험은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

스티븐슨 장로는 교회의 대응 규모를 결정하는 것을 도왔고, 교회는 식품과 용품, 지원, 장기간의 도움을 제공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보살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받은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는 거룩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는 "돕고, 축복하고, 지원을 조직하는" 신성한 특권이었다고 말했다.

스티븐슨 장로는 주님께서는 후기 성도들이 "약한 자를 [돕고]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교리와 성약 81:5) 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할 때,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서 또 사도로서 느끼는 책임이 따릅니다." ■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을 받아 처음에 깜짝 놀랐던 데일 지 렌런드 장로는 아내 루스와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인도했다"는 증거를 구했다.

렌런드 장로는 총관리 역원으로서, 심장병 전문의로서, 또 남편과 아버지로서 그런 인도를 구한 적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그가 미국 메릴랜드에서 수련의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아내는 난소암을 앓고 있었다. 딸 애슐리는 태어난 지 겨우 16달이 지난 상태였다. 그런 어려운 시절에 아내가 기도를 통해 그들의 성전 인봉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 렌런드 장로는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다시 들었다.

렌런드 장로는 심장병 전문의로서 사회 생활을 하며, 환자들의 심부전증을 다뤄 왔다. 그는 환자들이 죽는 것을 많이 보았다. 그러나 채드라는 환자가 죽는 것을 본 후, 채드의 부모가 응급실에서 그와 함께 했을 때 외과의사로서 맞은 위기의 순간에 그가 지녀 왔던 냉정함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 순간에 그는 부모의 눈을 통해 채드를 보았다.

이 경험에 대해, 렌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하려면 부모의 눈,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그들을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오직 그럴 때만 우리는 한 영혼의 참된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94쪽)

렌런드 장로의 어린 시절과 교회 봉사는 또한 그가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또 교회의 다양한 회원 구성을 이해하도록 그를 준비시켜 주었다.

데일 렌런드는 성전에서 인봉을 받기 위해 유타로 왔던 스웨덴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1952년 11월 13일에 태어났다. 데일이 소년 시절에 그 가족은 핀란드로 이주했다가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갔다. 그는 삼 년 뒤에 가족과 함께 유타로 돌아왔다. 19세에 그는 스웨덴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부름을 받았다.

2009년에 렌런드 장로는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가 받은 첫 번째 임무지명은 아프리카 남동 지역 회장단이었다. 외과의사와 교수로서 렌런드 장로의 사회 경력은 끝이 났지만, 그의 아내는 "큰 희생을 했다"고 그는 말한다. 렌런드 장로가 부름을 받았을 때, 아내 루스는 자신의 법률 회사 사장이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사회 생활을 접었다. 그러나 1977년에 두 사람이 결혼한 후로 그녀는 최선을 다해 왔고 또 그가 큰 힘을 얻는 근원이었다.

아프리카에서 렌런드 장로 부부는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 성도들에게서 배웠다." 한 번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렌런드 장로가 회원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얼마간 채근하자 "한 나이 지긋한 신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렌런드 장로님,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렌런드 장로는 이렇게 돌아본다. "아내와 저는 그들 카낭가 성도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 그들은 가진 것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다 갖고 있습니다."

사도로서의 첫 번째 말씀을 마치면서 렌런드 장로는 이렇게 간증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흠모합니다. 그분이 살아 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분, 곧 메시야임을 간증드립니다."(94쪽) ■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

칠십인 선임 회장

어렸을 때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는 일과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의사였던 그의 부친은 의사 업무 때문에 토요일 이른 아침마다 집을 비우곤 했다. 떠나기 전에 부친은 하루가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칠판에 일일이 적었다. 돌아왔을 때, 부친은 아들들을 불러다가 함께 열심히 일했다. 클레이튼 장로는 자신의 인생에 축복이 되었던 근로관을 부친에게서 배웠다.

클레이튼 장로의 가족은 저녁 식사가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 "우리는 정치에 대해, 학교에서 있었던 일과 이웃, 복음과 교회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 성장기에 경험했던, 정말 멋진 추억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의 토론은 클레이튼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대를 이어 따르는 전통이다.

클레이튼 장로는 2015년 10월 6일에 칠십인 선임 회장으로 지명되었다.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을 받은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의 후임이다.

클레이튼 장로는 2001년 3월 31일에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를 받았다. 그는 2008년부터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했으며, 유타의 여러 지역에 대한 감독 책임을 갖고 있었다.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아프리카 남동 및 아프리카 서 지역을 감리하는 일을 보조했다. 또한 홍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도 봉사하고 있다. 그는 2002~2003년에 남미 남 지역 회장단에서 보좌로 또 2003~2006년에는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는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나 1973년에 케이시 앤 킵 자매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일곱 자녀와 이십 명의 손자녀를 두었다.

클레이튼 장로는 유타 대학교에서 금융학 학사 학위를 받고, 퍼시픽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81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그는 지역 칠십인, 지역 대표, 선교부 회장 보좌, 고등평의원, 감독, 스테이크 선교부 회장, *복음 교리*반 교사로 봉사했다. 그는 1970~1971년에 페루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

게릿 더블유 공 장로

칠십인 회장단

근래에 칠십인 회장단에 부름을 받은 게릿 더블유 공 장로는 타이완에서 선교사로 봉사할 때 들었던 속삭임을 기억한다.

한 구도자가 성찬식에 참석했다. "저는 모스 부호로 그에게 '성찬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뵈니 반갑습니다!'라고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 사람은 무선 통신사였고 그 메시지를 받고 좋아했다. "그 전에 배운 것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다가설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그가 보이스카웃에서 모스 부호를 배운 후로 배움과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공 장로의 인생에서 흔한 일이었다. 1977년에 그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동양학 학사 및 일반 학사 학위를 받고, 1979년에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 석사 학위를, 1981년에는 국제관계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 장로는 고등평의원, 대제사 그룹 지도자,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 세미나리 교사, 감독, 스테이크 선교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 지역 칠십인을 비롯해 교회의 여러 부름에서 봉사했다. 2010년에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을 당시, 그는 유타 남 지역에서 칠십인 제오 정원회 회원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1985년에 공 장로는 미국 국무부의 특별 차관보로 일했으며, 1987년에는 중국 북경에서 미국 대사의 특별 자문역으로 일했다. 1989년부터 2001년까지 그는 워싱턴 디시 소재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에서 여러 직책을 거쳤다.

게릿 더블유 공은 1953년에 캘리포니아 주, 레드우드시티에서 태어났다. 그와 아내인 수잔 린지 공 자매는 네 자녀와 세 손자녀를 두고 있다. 공 장로의 조부모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그의 가계는 당나라 후기인 서기 837년에 중국 남부에서 태어난 공씨 가문 시조에까지 이르고 있다. ■

제럴드 코세 감독

감리 감독

제럴드 코세가 33살 때 프랑스의 식품 유통 업계에서 경력을 쌓아 가고 있을 때 회사 사장이 그를 따로 불렀다. 사장은 제럴드의 영적 확신과 건전한 판단력, 또한 직원을 단합시키는 능력에 주목했다. 그런 특성들은 교회에서 활동과 봉사, 지도력을 통해 키워 온 것이었다. 사장은 제럴드가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얼마 후 1,800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기자 제럴드는 적지 않게 놀랐다. 십년 뒤인 2008년 4월에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을 당시에 제럴드는 여러 식품 유통 회사를 관리하고 있었다.

코세 감독의 경영 및 관리력은 그의 교회 봉사 및 지도력 경험과 어우러져 교회의 감리 감독이라는 새로운 부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2012년 3월 이후로 감리 감독단 제1보좌로 봉사해 온 코세 감독은 10월 연차 대회가 끝나고 며칠 후에 새 부름을 받았다. 그는 2015년 10월 3일에 십이사도 정원회에 지지된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의 후임이다.

교회의 제15대 감리 감독이 된 제럴드 장 코세 감독은 1963년 프랑스의 보르도에서 태어났다. 그는 발레리 바빈과 1986년에 스위스 베른 성전에서 결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세 자녀와 다섯 손자녀를 두었다.

감리 감독단과 칠십인 정원회 일원으로 봉사한 경력 이외에도 그는 유럽 지역 회장단에서 보좌로, 지역 칠십인, 스테이크 회장,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감독단 보좌, 대제사 그룹 지도자,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젊은 시절 코세 감독은 교회 봉사를 통해 신앙은 물론이고 행복도 찾았다. 그는 12살에 초등회 반주자로, 또 16살에 주일학교 회장으로 봉사했다. 또한 그는 아론 신권의 의무도 게을리지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감독과 지부 회장으로 봉사할 때 도왔던 것을 비롯해 "교회 봉사는 제가 간증을 얻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코세 감독은 1987년에 프랑스의 에섹(ESSEC)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사회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프랑스 공군에서 복무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배속되었다. ■

딘 엠 데이비스 감독

감리 감독단 제1보좌

딘 엠 데이비스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십대 시절에 이웃 중에서 잘 다듬은 잔디 정원을 갖고 있어서 기분이 좋았고,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서 실제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이 가치관이 되었고, 앞으로 이것은 감리 감독단의 신임 제1보좌인 그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데이비스 감독은 2015년 10월 3일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를 받은 게리 이 스티븐슨 감독의 제2보좌로 봉사해 왔다.

딘 마이런 데이비스 감독은 1951년에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여덟 자녀 중 하나로 태어났다. 그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키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하는 축복을 깨닫도록 도와준 부모님께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1973년에 댈러 제임스 자매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두 사람은 다섯 자녀와 열네 명의 손자녀를 두고 있다.

데이비스 감독은 또한 198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할 때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웠다. 지진이 나는 동안 그는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아파트가 심하게 파손된 것을 목격했다. "그날의 일들을 회상하여 곰곰이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얻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의 폭풍우나 지진, 재난을 제대로 이겨내려면 반드시 견고한 기초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견고한 기초",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9쪽)

데이비스 감독은 1995년 7월부터 교회 직장에서 일해 왔다. 가장 최근에는 특별 프로젝트 부서의 관리 책임자로 특수 목적 부동산, 성전 설계 및 성전 건축에 대한 책임을 맡았었다.

교회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데이비스 감독은 펜실베이니아 주 랭커스터의 High Industries, Inc.와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의 Bechtel Investments, Inc.에서 일했다. 데이비스 감독은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스탠퍼드 대학교와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고급 경영자 과정을 마쳤다.

데이비스 감독은 푸에토리코 산후안 선교부 회장, 선교부 회장의 보좌, 스테이크 회장, 스테이크 회장의 보좌, 스테이크 집행 서기, 고등평의원, 그리고 여러 차례 감독단으로 봉사했으며, 우루과이/파라과이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델 감독

감리 감독단 제2보좌

대학 운동 선수로서 크리스토퍼 와델은 미국 갤리포니아 주에 있는 샌디에이고 대학교에서 배구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방학 동안 집에 있을 때, 다른 것에 대해 그에게 물었던 감독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분은 '배구를 잘하고 있나요?'가 아니라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나요, 건강한가요, 교회에서 활동적인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런 것들에 … 대한 질문에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와델 감독은 이렇게 회상한다.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은 와델 감독이 "명예롭게 귀환하라"와 "주님을 신뢰하라"는 두 가지 가훈에 따라 생활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런 신뢰를 통해 그는 배구를 뒤로 미루고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었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 그 가훈 때문에 그는 다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젊은 여성과 기나긴 연애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훗날 두 사람이 결혼한 후,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사하는 것에 대해 결정할 때 영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의 방식대로 하면 일들이 잘 풀려 나갑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는 2011년 이후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해 왔고, 또 지금은 감리 감독단 제2보좌가 된 와델 감독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있다.

웨인 크리스토퍼 와델은 1959년에 캘리포니아 주의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1984년 7월에 캐럴 스탠설과 로스앤젤레스 성전에서 결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네 자녀와 세 명의 손자녀가 있다. 그는 남미 북서 지역 회장단에서 보좌로 봉사했으며, 페루에 단기간 체류할 예정이다.

와델 감독은 1984년에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경영대학원 임원 과정을 마쳤다. 1984년부터 그는 메릴린치에서 일했으며, 거기서 투자담당 부사장이 되었다.

와델 감독은 지역 칠십인, 스페인 바르셀로나 선교부 회장(이 선교부에서 젊은 시절 전임 선교사로 봉사함), 스테이크 회장,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선교부 회장단 보좌, 감독, 감독단 보좌로 봉사했다. ■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형제가 텍사스 휴스턴 남 선교부 회장 임기를 마치고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로 부름을 받았다. 부름 발표는 6월에 있었으며, 2015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지지를 받았다.

태드 알 콜리스터 형제가 계속 본부 회장직을 수행하며, 2014년 4월부터 제2보좌로 봉사해 온 데븐 지 듀란트 형제가 제1보좌가 되었다.

존 에스 태너 형제가 하와이 브리검 영 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되어 회장단에 공석이 생겼다.

브라이언 켄트 애쉬턴은 미국 유타 주 프로보에서 1969년에 켄트 애쉬턴과 비키 브라운 애쉬턴 사이에서 태어난 아홉 자녀 중에 제일 맏이로 태어났다. 그는 부모님이 가정에서 한결같은 복음 교사였다고 기억한다.

애쉬턴 형제는 페루 리마 남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가 선교사로 봉사해야 한다고 말해야겠다는 강한 느낌을 받은 그의 훌륭한 친구가 그 봉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친구가 그 느낌을 이야기할 때, 브라이언도 영의 확인을 느꼈다. 봉사 기간 중 어떤 큰 지부의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몇 가지 상당한 건강 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 그 당시 그는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분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그분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브리검 영 대학교에 입학했고, 장차 아내가 될 멜린다 얼 자매를 거기서 만났다.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그녀는 스페인 말라가 선교부에서 봉사했고, 그 동안 애쉬턴 형제는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일했다. 그녀가 선교 사업을 마치자, 두 사람은 유타 세인트조지 성전에서 결혼했다. 두 사람은 일곱 자녀를 두었다.

애쉬턴 형제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을 때 애쉬턴 자매는 의과대학원에 다녔다. 애쉬턴 형제는 사업가이며, 여러 회사를 창립했다.

애쉬턴 형제는 감독, 고등평의원, 장로 정원회 회장, 복음 교리반 교사를 봉사했다. ■

여성 지도자들이 교회 평의회에 참여하다

교회는 여성들에게 주요한 지도자 평의회 세 곳에서 봉사할 것을 권고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린다 케이 버튼 자매는 신권 및 가족 집행 평의회(예전의 신권 집행 평의회)에서 봉사하게 된다. 본부 청녀 회장인 보니 엘 오스카슨 자매는 선교사 집행 평의회에서 봉사하게 된다. 그리고 본부 초등회 회장인 로즈메리 엠 윅솜 자매는 성전 및 가족 역사 집행 위원회에서 봉사하게 된다.

상호부조회, 청녀, 초등회 본부 회장단에서 봉사하는 자매들이 수십 년 동안 이들 평의회에서 정기적으로 공헌을 하고 또 조언을 해 왔지만, 이런 권고를 통해 평의회에서 지속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다. ■

왼쪽부터: 로즈메리 엠 윅솜(본부 초등회 회장), 보니 엘 오스카슨(본부 청녀 회장), 린다 케이 버튼(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후기 성도판 포르투갈어 성경

후기 성도판 포르투갈어 성경이 복음 자료실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9월에는 AsEscrituras.lds.org에서도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ePub와 PDF 버전과 같은 다른 형식으로도 제공된다. 인쇄본은 2016년 3월에 제공되며, 오디오 및 점자본도 2016년에 나올 예정이다.

*Bíblia Sagrada, Almeida 2015*라는 이름의 새 성경은 포르투갈 개신교 목사였던 João Ferreira Annes de Almeida가 번역한 1914년 역본의 번역이 아주 잘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삼았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시 아래, 몇몇 총관리 역원과 지역 칠십인, 전문 어학자, 교회 회원들이 팀을 이루어 오 년 동안 후기 성도판을 검토하고 준비했다. 교회에서 약 1,400만 명의 회원들이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 ■

난민에게 도움을 줌

교회의 인도주의 지원 창구인 후기 성도 자선회는 다양한 위기가 많은 사람들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는 지역에서 난민들을 계속해서 돕고 있다. 다음은 세 가지 사례이다.

- 우크라이나에서의 내전으로 2014년 이후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던 곳을 떠났다. 이들 중 60%가 연로한 사람들이다. 후기 성도 자선회는 유엔 개발 계획과 접촉해 가난하고 연로한 난민을 보살피는 현지의 비정부기구와 함께 연계 활동을 펼쳤다. 후기 성도 자선회는 위생용품, 위생 키트, 석 달치 상당의 식품을 13,000명이 수용되어 있는 37개 시설에 제공했다.
- 1월 이후로 시리아 내전을 피해 350,000명이 넘는 난민들이 유럽에서 망명지를 찾고 있으며, 연말까지 그 수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기 성도 자선회는 국제적인 비정부기구, 현지의 지방자치 당국, 중앙 정부 기관과 협력해 난민들의 필요 사항을 돕고 있으며, 현지의 교회 회중에게 자원을 제공해 그들 책임 아래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 세계 곳곳에 있는 난민 캠프에서 더 좋은 거처를 제공하도록 돕기 위해, 후기 성도 자선회는 유엔난민위원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적인 가구 소매회사는 텐트에 비해 장점이 많은 구조물을 개발했다. 그 구조물은 거주자를 다른 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과 창문의 보안을 강화하고 지붕을 더 튼튼하게 덮었다. 후기 성도 자선회가 이라크 쿠르디스탄에 있는 난민 캠프에 제공한 333개의 숙소가 현재 조립 중에 있다. ■

성탄절 미디어 활동

2015년 성탄절기에 교회는 "구주 나셨도다"라는 제목의 멀티미디어 활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알고, 따르고, 또한 그분의 탄생과 가르침, 속죄를 통해 오는 축복을 받은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활동의 핵심은 전 세계 어린이들이 출연해서 구주에 대한 자기 간증을 나누고, 2,000년도 더 된 시기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새로운 동영상이다. **christmas.mormon.org**에 가서 동영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에 대해 더 알아본다. ■

“우리 어린이들이 주님의 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어린이들이 교회 잡지에서 시작한 봉사 캠페인에 열렬히 호응을 했다. 잡지는 어린이들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은 다음 종이 위에 손을 따라 대고 그린 후 그 안에 자신이 어떤 봉사를 했는지 적어서 *리아호나*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잡지는 세계 곳곳에서 밖으로 나가 구주의 사랑을 나누며 가족과 이웃을 축복했던 어린들이 보낸 30,000개가 넘는 손 모양 그림을 받았다.

캠페인에 대한 영감은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2010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너희가 곧 내 손이니라”라는 제목으로 하신 말씀에서 나왔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훼손된 예수 그리스도 동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동상을 복원하는 중에 손을 복원할 수 없게 되자 동상 받침에 “너희가 곧 내 손이니라”라는 말을 새겨 넣었다.

어린이들의 봉사활동은 그들이 제출한 손 모양 그림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예를 들면,

나탈리 에스(5세)는 홍콩에서 손 모양 그림 두 장을 보냈다. 한 장에는 “엄마의 집안일을 도와드렸어요”, 다른 한 장에는 “어떤 사람이 휠체어를 미는 것을 도와줬어요.”라고 적혀 있었다.

러시아의 에릭 에스(11세)는 “우리 동네는 겨울이 춥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가족이 그의 마을로 이사를 왔는데 따뜻한 옷이 없었다. 에릭은 이렇게 말했다. “아르투에게 제 외투를 줬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어요.”

베네수엘라의 가브리엘라(10세)는 자기 손 모양에 이렇게 적었다. “학교에서 저는 친구와 함께 체스 수업을 들을 때였어요. 체스를 같이 할 상대를 찾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남자애가 있었고, 슬퍼 보였어요. 돕고 싶었지만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때 그 소년의 친구가 되어 주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 소년에게 가서 말을 걸었어요. 지금 우리는 친한 친구예요.”

손 모양 그림들은 9월과 10월에 두 주에 걸쳐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본부에서 전시되었다. ■

신권 회복 유적지 헌납

2015년 9월 19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침례 요한에게서 아론 신권을 받았던 곳인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유적지 헌납을 감리했다. 1820년대에 이 지역은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로 불렸으며, 회복된 교회의 초기 역사에서 다음과 같은 많은 사건들이 이곳에서 일어났다.

- 조셉 스미스와 에머 헤일의 만남과 구애, 그리고 신혼 생활.
- 몰몬경 번역을 서기로서 돕기 위한 올리버 카우드리의 도착.
- 몰몬경 대부분의 번역.
- 아론 신권 그리고 (정확한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멜기세덱 신권의 회복.
- 현대에 신권 권세에 의해 집행된 최초의 침례식.
- 교리와 성약에서 15개의 편과 값진 진주의 일부가 된 여러 계시를 받음.

새로 재단장된 유적지에는 현지 지부의 집회소로도 사용되는 방문자 센터, 재건축된 조셉과 에머의 집 및 에머의 부모인 아이잭과 엘리자베스 헤일의 집, 사스케하나 강에서 조셉과 올리버가 침례받은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대한 접근로 등이 있다.

"하모니는 조셉에게 영적인 고독과 보호를 제공해 그가 몰몬경 번역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 기간을 통해 주님은 조셉이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서의 그의 신성한 역할하도록 일일이 가르쳤습니다." ■

러셀 엠 넬슨 회장과 그의 아내 웬디 자매가 몰몬경의 상당 부분이 번역된, 조셉과 에머 스미스의 복원된 집을 둘러보고 있다.

학습의 수준을 높이는 세미나리 학생들

세미나리 학생들이 지난 해에 실시된 졸업 강화 요건에 잘 호응하고 있다. 근래에 발표된 통계를 보면 등록 학생의 81퍼센트가 학기말 평가에 합격했으며, 참석률도 71퍼센트에서 77퍼센트로 상승했으며, 약 80퍼센트의 학생들이 읽기 과제 요건을 충족했다.

새로운 요건에서는 교사들이 가르칠 때 핵심 교리를 강조하고, 학생들은 그와 같은 교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략 400,000명의 청남 청녀 학생들이 세미나리에 등록되어 있다. ■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우리는 주변에 날마다 빛을 발할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교회의 제185차 연차 대회에서
말했다. "구주의 모범을 따른다면, 집안 식구든 친구든
직장 동료이든, 아니면 단순히 아는 사람이든,
또는 처음 보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타인의 삶에
빛이 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4 KOREAN 02125 71320 7
12571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앞줄 왼쪽부터: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 리처드 제이 메인즈 장로, 크레이그 시 크리스턴슨 장로

뒷줄 왼쪽부터: 율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린 지 로빈스 장로, 게리 더블유 공 장로